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6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고증없는 건축불사

758년 발징이 중건해 염불만일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으로 우리나라 만일회의 효시가 된 사찰 건봉사. 그 건봉사가 고증없는 복원불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0년부터 98년까지 28억원을 들여 대웅전 팔각전 등 복원과 29건의 문화재 정비 등이 정밀 지표조사와 정확한 고증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기단석 및 석축 쌓기가 네모형과 마름모형이 뒤섞여 있고 연지의 경우 연못 중심을 통과하는 영원교에 석조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일제 때 촬영돼 90년 발간된 건봉사지 지표조사보고서 화보에 실려 있는데도 복원 설계에는 빠져 있을 정도로 정확한 고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전통사찰로 그 역사와 유래가 깊은 건봉사가 고증이 부실해 복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찰 복원불사가 전문가의 감수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문기구 구성
문헌등 사전 조사

문화재 조사도 중요하고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찰을 짓고 고치면서 정작 전통적인 불교건축이 어떤 것이고 각 사찰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는다면 사찰 훼손은 물론 문화재적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찰건축 고증팀을 종단 자문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국립박물관이나 각 대학박물관과 연계해 복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헌자료 조사부터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찰 복원시 문헌 검토와 정밀 지표조사가 선행될 때 이번 건봉사 복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헌자료와 복원설계도가 다른 상황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황룡사 감은사 등 오래 전에 유실된 사찰과 한국전쟁의 와중에 훼손된 사찰 등 복원해야 할 사찰들은 많이 있다.

복원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발굴조사와 철저한 고증이 선행돼 복원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직장직능 불교단체 3년새 두배

96년 184곳서 현재 350곳 신행활동
회원 소극성-재정·법사부족 여전

조계종 포교원 현황조사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가 96년 184곳에서 3년만에 160여곳이 늘어 350여 단체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의 영향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의 불자회가 최근 속속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96년 이후 경북도청불자회 등 23개 단체가 창립됐다. 또 3백50여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9%의 단체가 94년 조계종 종단개혁이후 창립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포교원이 발원회하며 직장직능 신행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을 실시한 것도 창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19일, 20일 서초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직장직능신행단체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직장직능 신행단체 현황파악을 통해 밝혀졌다. 96년 조계종 중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실시한 현황조사에 이어 종단차원에서는 두번째로 실시된 이 조사는 지난 한달 동안 96년 파악된 1백84개 단체를 비롯 현대불교신문 및 중앙신도회가 파악하고 있는 곳 등 3백30여곳과 신행단체 파악이 어려웠던 전국 경찰서 2백4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수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각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은 96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의 소극성(52.5%), 재정부족(33.1%), 지도법사 부족(3.4%), 회원 교육프로그램 부재, 법회장소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단체가 회원참여 부족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는 반면 직능단체는 재정부족을 1순위로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보현사서 남북불자 합동법회

◇남북의 불자들이 북한지역의 사찰에서 최초의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불추위 대표단과 북한불자들이 보현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올 광복절 서울·평양 통일기원법회 열자

불추위 대표단 조불련과 합의…문화재 남한전시 등 논의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지역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박태화)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방문한 민족화합불교추진위(불추위) 방북대표단 단장 지선스님을 비롯 성조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유지원(불추위 사무총장) 김기창(보광사 신도회장)씨등 4명과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등 2백여명의 북한불자들은 12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민족의 통일을 함께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지선스님이 법어를 했으며, 성조스님과 최형민선사(보현사주지)는 "민족교류협력과 화합,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불자의 원칙과 실천행을 펴자"는 발원문을 함께 낭독했다.

8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16일 귀국한 불교추진위 대표단은 2차례 조불련과 남북불교도회담을 갖고 남북불교간 인적교류, 학술교류, 문화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문화재의 남한전시 등 문화재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8월15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의 불자들이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동시에 봉행하여 이때 공동발원문도 남녀키로 합의했다. 불추위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광양인근 광법사 법운암 용화사와 묘향산 보현사 상원암, 사리원 성불사등 6곳의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스님들과 면담했으며,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문화재보존 현황도 파악했다. 〈관련기사 3면〉

김형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 · 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신륵사 외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 5만5천원
◇문 의 :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봉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불교조각원

행자교육 1년으로 연장

조계종 교육법개정안 마련…행자교육원 연 1회 개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행자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교육법 개정안의 기본골격은 행자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년에 두차례 개원하는 행자교육원을 연 1회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또 행자교육원 수학연령을 현행 15세이상 50세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하고 학력은 고졸 이상을 필수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원이 97년 4월 실시한 '기초교육제도 개선과 기본교육 미이수자 대책을 위한 공청회' 및 98년 7월 '기초교육 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것.

개정안은 행자교육원 수학자격도 강화해 행자로서 출가본사에서 11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 기초과정(사미 · 사미니 율의,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기본불교예식의궤) 숙지자로 정했다. 특히 문신, 간질, 정신이상, 신원이상 및 난치 혹은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에 부적당한 자는 물론 파렴치범의 전과자, 입산일 기준 이혼경과일이 6개월미만인 자는 수학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원은 이밖에도 승려법 계단법 선원법 등 승가교육 관련 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교육원회의를 통해 확정된 교육관련 종법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의 협의 후 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북분쟁 지혜롭게 극복하자"

고산스님등 종교지도자 서해교전관련 성명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16일 오찬모임을 갖고 남북간 서해교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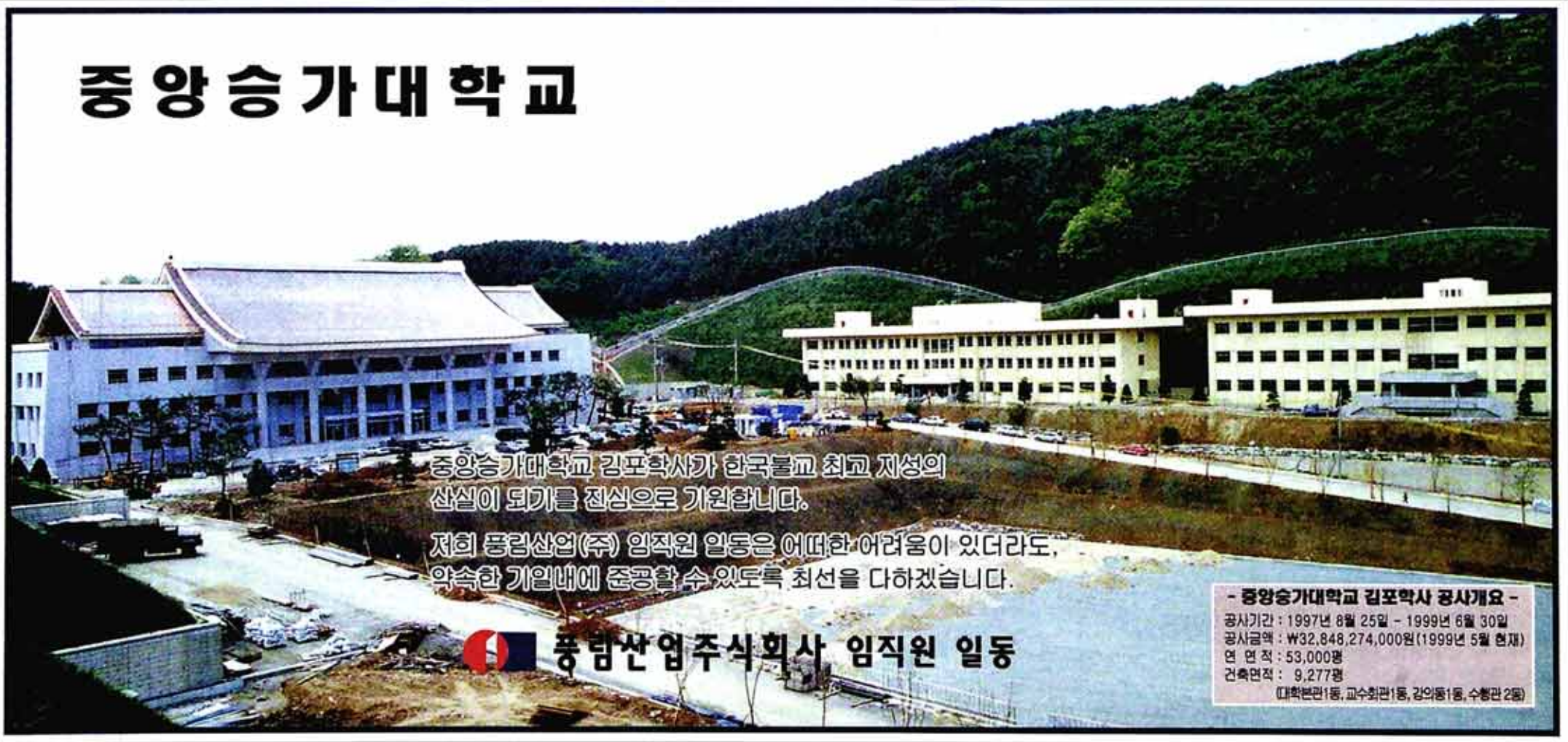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에서 "지난 십여일간 서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군사적 충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남북은 분쟁을 자제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족의 화해와 행복을 위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분단극복에 더욱 정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고산스님과 원주 전 조계종총무원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김옥균 천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김봉은 신부(전 종교인평화회의 회장), 김동완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가 한국불교 최고 지성의 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풍림산업(주) 임직원 일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한 기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산업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공사개요 -
공사기간 : 1997년 8월 25일 - 1999년 6월 30일
공사금액 : ₩32,848,274,000원(1999년 5월 현재)
연 면 적 : 53,000평
건축면적 : 9,277평
(대학본관1동, 교수회관1동, 강의동1동, 수행관 2동)

사 설

'자비의 죽비' 보내기

조계종 전국신도회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자비의 죽비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국신도회가 이 운동을 계획한 것은 우리의 교육현장이 무관심과 삭막함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치유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들린다.

소위 사랑의 매라 불렸던 체벌이 폭력시비에 휘말리면서 급기야는 체벌을 당한 제자나 그의 부모가 스승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보니, 체벌을 가해서라도 내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겠다는 선생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학생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무관심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순수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지는 체벌마저 폭력으로 규정하려는 현실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때의 회초리마저 들지 못하고 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 폭력시비를 불어오지 않고 학생들을 경책할 수 있는 도구로 법구의 하나인 죽비를 생각하게 된 것같다.

예로부터 선원에서는 입선과 방선의 신호로 죽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좌선 중에 자세를 교정하거나 졸음에 빠지는 이를 경책할 때 주로 죽비를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죽비는 스승과 제자간에 인격을 도야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훌륭한 수행도구였던 것이다.

사실 죽비로 상대방을 때릴 때는 죽비가 직접적으로 가하는 아픔보다는 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질책할 때 죽비를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죽비 보내기 운동의 일차대상은 종립학교라고 하며 점차 전국의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교사들에게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선 학교에서 죽비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인데,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죽비 보내기 운동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뿐 아니라 황폐화된 우리의 교육현장을 자비의 도량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불교의 포교차원에서도 이 운동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므로 불자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바다.

1구좌 동참금이 1만원이라고 하니 뜻있는 불자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전국의 각 사찰에서도 자칫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기 쉬운 방생행사를 지양하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비의 죽비보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전국신도회는 1만개 죽비보내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국의 초·중·고 교사 36만여명에게 고루 죽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조계종 신도회 차원에서만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불교적 차원에서 확대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죽비는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접하게 될 법기이니 보급에 앞서 크기나 모양을 예쁘게 디자인하여 통일하고 부처님 말씀 한 마디라도 새겨 넣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국어사전 불교용어 오류투성

조계종 문화부 257항목 지적
"불교용어위원회 구성 바로 잡아야"

국어사전에 수록 풀이된 불교용어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아 교학사 금성 민중 등 유명출판사에서 펴낸 6종의 국어사전과 2종의 불교사전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불교용어를 잘못 풀이했거나 풀이 내용이 빈약한 단어가 257개 항목에 이르렀다.

오류로 지적된 여 가운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를 '불교에서 사람의 인생이 허무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불교 사상을 왜곡한 경우도 있다. 또 계를 받는 '수계(受戒)'를 스님들만으로 한정해 풀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불교용어집의 발행과 보급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를 위해 가칭 불교용어위원회를 구성, 잘못 풀이한 불교용어의 바른 풀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국어사전은 교과서와 같이 언어 및 문자생활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국어사전의 오류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조사대상에서 교리 용어와 지명 등 고유명사를 제외했으므로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바른 서술의 예를 작성해 각 출판사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연구원과 동아출판사 국어사전편찬실 관계자는 "검색 결과를 알려주면 개정판을 펴낼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출판사는 '새 국어사전' 개정판을 내년 중 발행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단 단복 품평회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15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단복 품평회를 가졌다. 포교사단은 19일부터 진행되는 서울·경기지역 포교사 전문화교육부터 한달간 포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단복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 부설 의생활연구소(실장 강선정) '물푸레'팀이 만든 포교사단 단복 시안은 감색 및 회색의 생활 한복 형태로 편안한 인상을 주면서도 활동성을 갖추고 있다. 천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없애 가격은 12~15만원 정도로 저렴하며 반맞춤 형태로 제작된다. 이 단복은 포교사단이 실시중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포교사들만이 입을 수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관광상품
조계사·봉은사 첫선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불교체험을 소재로 한 '불교관광상품'을 개발,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첫 선을 보이기로 했다.

조계사에서 주관하는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은 22일부터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0~12시 진행된다. 한국불교사찰 소개, 참선 및 다도체험,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시내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봉은사도 7월2일부터 매주 수·금·일요일 오전 10~12시 조계사와 동일한 외국인대상 불교 참선 및 다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사미니 기초선원 내년 봄 개원

조계종 교육원…동화사 부도암·양진암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동화사 산내암자인 부도암과 양진암에 사미니 기초선원을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원과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1일 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미니 기초선원 개원에 합의, 사미니 기초선원 운영주체를 전국비구니회에 위임, 기초선원 운영에 따른 교선사, 선감 및 원생의 직접적인 관리를 전국비구니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 60여명이 탈락, 사미니 기본교육을 종단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안성 법계사에 지방승가대학을 신설하고 청암사를 증설(30여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내 최초의 비구니 스님 율원인 수원 봉녕사 금강율원(율원장 묘엄)이 21일 오후1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인터뷰 4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방승가대 교육부 인가 추진

조계종 승가대 평가… 승가 교육환경 개선안 마련키로

조계종 교육원은 15일 전국 지방승가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종단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각 승가대학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공청회를 거쳐 지방승가대 발전 방향과 교육환경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원은 또 지방승가대 운영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각 대학별로 교과목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을 공모하기로 하고 한 편당 50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승가대 및 학림, 승가대학원의 교육부로부터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학제 인정(지방승가대학점은행제 등 강구)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지방승가대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기중 학인들의 전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한정된 지방승가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총학인 30명 미만의 승가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교구본사가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지방승가대학의 체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전통 강원의 장점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성급한 교육부 인가 교육기관으로의 변신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알찬 배움터

"큰문중 위주 원로의원 지양"

조계종 원로의장단 간담회서 제기
7월초 원로회의 '연령제한' 논의키로

16일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부의장 도원스님, 총무원장 고산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이 참석한 간담회. 원로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도원스님이 먼저 "종단내에서 영향력있는 문중의 어른들만 원로의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로회의가 종단의 최고의결기구인데도 원로의원들의 의사보다는 모시는 스님의 의사에 좌우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총무원이 요청해 회의를 열기보다는 회기를 정기화해 종단 상황도 보고받고 건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로회의의 권위회복론도 제기됐다.

지난 해 조계종사태 때 원로회의를 소집해 원로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원로들까지 분열되는 양상은 막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편 원로의원 연령 상·하한선 조정에 대해서는 7월초 원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총무원 청사 신축
조계종 29일 공청회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불교회관1층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청사 신축 및 조계사 도량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총무원이 주최하고 한국박물관건축학회(회장 서상우 국민대 건축과교수)와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박언곤 홍익대 건축과교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정성운 기자

대의원총회 소집
중앙신도회 17일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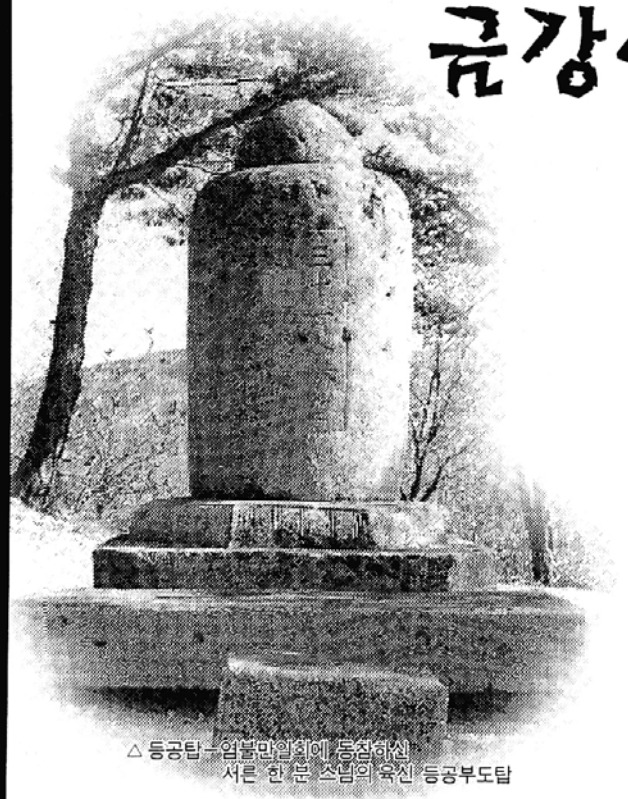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7일 교계 신문에 대의원총회 소집 및 임원선거를 공고했다. 회장 등 임원선거 일정은 △7월 9~13일 선거인 명부작성 △7월20일 선거인명부 확정 △7월 21~24일 추천서 교부 △8월 3~5일 후보자 등록 신청 및 후보자 연석회의 △8월12일 홍보인쇄물 발송 △8월2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 및 임원 선거 등이다.

김재경 기자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금강산 건봉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등공탑-염불만일회에 동참하신 서른 한 분 스님의 육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99년도 여름 아미타 염불성지대회를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8월 2일 ~ 4일(2박3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내 용 : 본행사 및 염불보살계 수계식(수계희망자는 별도 신청바람)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참 가 비 : 3만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안국동 로터리)
○ 출발시간 : 1999년 8월 2일 오전 9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5,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1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신도자격 현실화 필요
신도교무금 폐지 '한목소리'

조계종 '포교-신도법 제·개정' 토론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5, 16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포교·신도법 제·개정 기본안에 대한 토론회를 잇달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도등록 사업과 신도증 발급의 실효성, 신도의 자격문제, '전교사'의 용어 문제, 신도단체 임원 등에 대한 교육이수의 현실성 등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16일 중앙신도회와 신행단체, 조계사 신도회 등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도등록이 16만명에 그친 것과 관련, 신도증의 무용성과 사업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포교원이 신도등록 사업을 교구 본·말사로 이전하되 신도증 양식을 통일하는 선에서 관리에만 그치고, 신도교무금도 폐지하는 것이 신도 확보 등 현실에 맞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신도등록을 전후해 5계를 수지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 신도등록, 후 교육 및 수계'(삼보에만 귀의하도 '신도')가 사찰의 현실과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전교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교사'라는 신조어가 개신교식의 낯선 용어라면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법사를 원용한 '전법사'가 적합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의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120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이 소요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신도단체의 조직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 장애인 대학생 등 계층별 교육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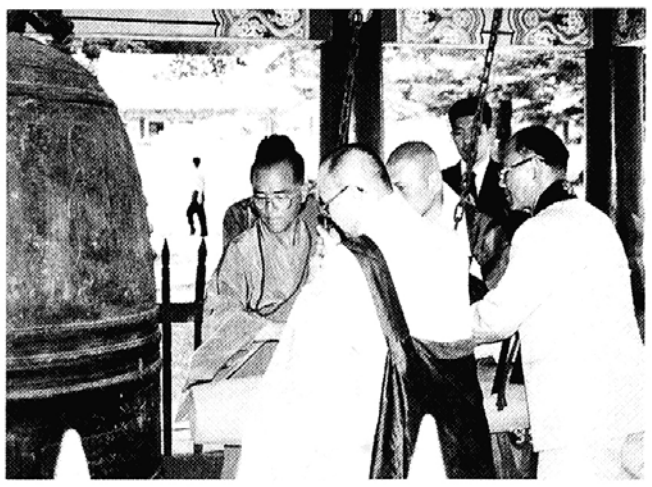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신도 교육(재교육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으며, 현실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선에서 가능한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선 15일 포교원장 정련,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홍, 간사 지현, 종헌종법개정특위 위원 학담, 동국대 교수 각현,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과 포교 일선의 젊은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첫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본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신도법 제·개정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신도교육 및 수계 자격, 활동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되 기한과 자격기준 등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신도들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포교원은 앞으로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25일),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7월1일), 종합공청회(7월10일), 설문조사(6월10일~7월3일)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7월 중앙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보현사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기에 앞서 지선, 성조스님과 보현사 주지 최형민선사 등이 타종하고 있다.

남북불교교류 '디딤돌'

불추위대표단 첫 방북 의의

보현사 합동법회 찬불가 함께 부르며 반야심경 봉독

이번 불교대표단의 방북은 조불련의 첫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방북대표단의 방북을 통해 합동법회 봉행, 남북불교문화교류 합의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남북 불교교류에 밝은 전망을 가능케 했다. 조불련이 불추위 대표들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것도 진일보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방북대표단과 조불련은 2차례에 걸친 남북불교대표회담을 통해 남북불교간의 교류와 협력, 신뢰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순수한 만간차원의 교류를 우선하자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조불련은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을 초래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불교도가 나서야 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 불교계가 가장 중심에 두고 남한불교계를 바라보는 것은 정치권과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방북단의 분석이다. 논의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방북과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는 상황이 되면 방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대답에서 반증된다.

그럼에도 교류에 대해서는 조불련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를 내세우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차근차근 접근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결합의 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것에는 양측이 의견을 접근시켰다는 것이 불추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불추위 대표단의 방북기간중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멀기만 하였던 북녘의 산사에서 남북불자들이 찬불가 '찬양합시다'를 부르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합동법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여러 사찰을 방문, 법당을 참배하고 그곳 주지스님의 불공의식을 체험했다. 북한의 불공의식은 우리와 비슷하나 음정이 달랐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북한불교에 대한 직접경험으로 향후 불교교류와 통일운동에 기초자료가 됐다는 점이 향후 불추위 사업을 전개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방 북 소 감

지선스님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10여 차례 초청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이 첫 방북이다. 이번 방북은 조불련에서 남측대표를 최초로 초청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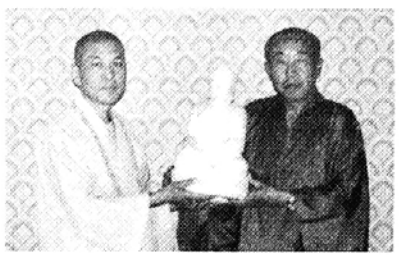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물질의 제공도 조건없는 무주상 보시가 돼야 한다. 북한은 이미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본질대로 대할 때 민족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번에 보고 듣고 깨달았다.

성보문화재도 사명대사 철모자, 백제금동반가사유상 등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성조스님 평양에 들어갔을 때 긴장이 됐다. 과연 북한까지 와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만나서 일정조정과 인사나눔, 면담을 했을 때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북한은 한민족이요, 같은 동포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 우리가 길을 열어놓았기에 이후 좋은 성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양 광법사는 1천2백여명이 신도로 등록했다고 한다.

분단 50년만에 공식초청으로 남측 대표단이 방북해 북한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왕래하며 불법을 논하고 만남을 갖도록 하겠다.



◇불추위는 지난해 대불련 회원들이 사경한 반야심경을 복장하여 조성한 불상을 조불련에 전달했다.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이 지선스님(왼쪽)에게 불상을 전달하고 있다.

인터뷰



문화재청 **서정배** 초대청장

"문화재 보존관리 적극적 행정 펼터"

12일 문화재청 초대청장으로 임명된 서정배(57)씨는 "국민 모두가 문화유산과 친근해지고 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문화재청의 운영과 성보문화재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정부가 성보문화재 복원을 돕는 것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불교 관련 문화재건 다른 종교 문화재건 그것을 복원하고 가꾸는 것은 당연하다. 편향적 후원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편파적이다. 유산은 바로 우리의 일상과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 IMF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보수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의 대책은.

▲예산의 한계를 갖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담당자들의 '의식의 무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문화유산 가운데 성보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불교계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원칙적으로 청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이지, 종교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아니다. 또 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는 불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원불교 등과 관련 있는 문화재들이 많다. 불교계와 직통 라인을 개설하면 타종교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 불교계는 문화재청이 전문성 있는 기구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미시적인 전문성만으로 모든 행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소신과 그것을 실현시킬 적극성이 중요하다. 또 연구기관의 활성화 없이 문화재 업무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장기적 발전 대책에 대해 고민하겠다.

- 문화재청이 나아갈 방향은.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들은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숨결을 이어받았다. 우리의 후손들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문화유산 보호의 효과적인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국립박물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약력 42년 서울출생, 성균관대 졸업,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예술원 사무국장,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역임.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목어

햇볕과 포용

태양은 밝고 따뜻한 햇살을 무심(無心)히 내려 비추고 있건만, 인간의 햇볕은 유심(有心), 즉 차별심이어서 시끄럽기만 하여라. 보살은 무연중생(無緣衆生)을 제도하므로 분별심 없이 무주상(無住相)으로 한없이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은 인연에 따라 주고 받으므로 대가성 거래를 하여 차별상(差別相)으로 원한만 쌓이고 있네.

〈화엄경〉에 보시에 대한 말씀이 있다.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하여 후회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果報)를 바라지 않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작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우리의 형제이면서 적인 북한을 포용하여 그들을 가난과 굶주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우주를 싸고도 남을 거창한 제목을 걸고 다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육로로 수로로 쌀도 비료도 소떼도 보내고 금강산에도 가서 관광세도 납부하는 등 많은 보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햇볕정책의 보시들이 무심의 태양처럼, 무연중생을 제도하는 무주상의 구원처럼, 대가와 명예를 바라지 않는다면 오죽 좋으리요마는, 세상 인간의 마음에 어디 공짜가 있는가. 주는 마음에 기댐이 있으면 받는 사람 역시 몹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굶어 죽어도 거부할 수가 있으며, 설사 받아도 고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햇볕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시적 물질 살포는 북한의 자존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지 않을까?

가난한 이웃을 말없이 돕고 남이 모르게 위할 때 받는 사람은 스스로 갈등할 수 있고 마음에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다. 남쪽에서 북쪽을 포용하겠다는 것을 북한은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서해에서 포성이 울리고 격전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쌀이나 라면을 사재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무감각해서일까, 불신해서일까, 설마 전쟁일까 하는 의심도 하지 않는다. 마치 병정놀이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 정치이다.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해야 할 테지만 특히 대북정책일수록 과시적인 것보다는 진실하고 실제적이며, 흡수 포용적인 것보다는 동화하여 민족애를 자아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화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참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과시적 성과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무주상 보시를 실현하면 좋겠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생활속의 삼매체험 선禪 수련회 참선생활운동 99전국 여름수련

1, 2차 - 전북 금산사 3차 - 제주 원명선원

내가 바르면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가 비뚤어지면 세상도 비뚤어 보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속이는 사람같고, 내가 정직하면 남도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남이 그릇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릇된 때문이며,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모두 고치고 비뚤어진 세상을 다 바꾸려면 요란하여 시끄럽기만 할 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과 비뚤린 마음을 바로 하면 세상이 모두 바로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삼매를 닦아 나를 고치면 세상이 편케됩니다. 본래 번민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삽시다.

♣ 취지 : 내가 없이 사람이 실종된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참선 생활 운동에서는 3박 4일의 수행중 누구나 곧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의 삼매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련일정 :
1차 8월 2일 - 8월 5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2차 8월 7일 - 8월 10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3차 8월13일 - 8월 16일 (3박4일) 50명 제주 원명선원

♣ 특징 : 1. 본 원의 수련은 통상 극기적인 수련이 아니며,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2. 수련후에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3. 수련후 생활중에 삼매 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지도함

♣ 선착순마감 : 선착순으로 7월 10일까지, 마감후에는 현장에서는 접수안됨
(3차의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은 항공 이용시 예약을 곧바로 하여야함.

조속히 접수후 안내를 받아야함. 항공 이용자는 가능하면 팩스로 속히 우송바람)

♣ 대상 : 일반인(고교생은 보호자 참석시 가능함) 65세 이하

♣ 자원봉사신청 : 매 차수별 7명내외 (회비없음)

♣ 회 비 : 8만원 (온라인 농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20528 예금자 : 원명선원)
※입금후 반드시 담당자 통화요함. 접수자는 개별 통지 받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신청서류 : 1. 이름(한자. 한글) 2. 주소 3. 전화(자택,직장,휴대전화) 4. 종교
5. 주민등록번호 6. 직업 -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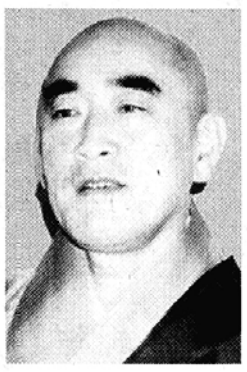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묵언, 법문, 점검, 행선20- 30분. 좌선10-20분, 예불, 선문독송, 염송

♣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
☎ 064)755-3322 전송 : 064)755-8913

참선생활운동 · 한라산 원명선원

"은사 뜻 받들어 생활불교 지향"

'불광' 2대 법주 지정스님



"은사스님의 평소 뜻대로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정진원 건립 등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개해 포교역량을 결집하고 수행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덕스님에 이어 20일 열린 추대법회에서 불광사 불광법회 제2대 법주에 오른 지정스님은 선교율(禪敎律)을 겸비하고 전법과 수행이 둘이 아닌 실천적 보살행을 강조해온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불광회 운영방침에서도 그와 같은 소신은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스님은 불광회를 최고의 포교단체 반열에 올려 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지정스님이 밝힌 불광회 발전방향의 큰 틀은 크게 세가지. 우선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종합포교타운인 '정진원' 건립과 '불교사회과학연구원' 설립 등의 세부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둘째는 '불광회 운영협의회'를 결성을 통한 운영의 합리화다. 연초와 연말에 수입지출계산서를 발표하는 등의 재무관리 투명화를 통한 공개운영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광덕스님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불광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덕스님 부도탑 및 비석 건립 등의 추모사업이 계획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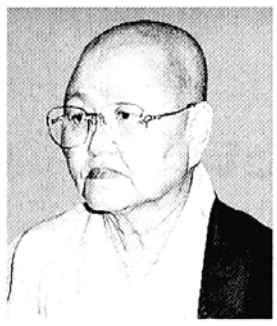
"정진원은 불광이 오래전부터 꿈꿔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련원, 교육원 등은 물론 참선과 정진할 수 있는 공간과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종합포교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주라도 마음대로 하지않고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을 합리화하고, 은사스님의 부도탑은 정진원과 범어사 두 곳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정스님은 65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71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87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다. 84년 불광사 주지와 91년 함안 군 봉불사 주지를 거쳐 96년 광덕스님으로부터 불광회 부법주로 임명됐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율학 연구·율사 양성에 전력"

첫 비구니 금강율원장 묘엄스님



"계는 안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단속하고 밖으로 도 닦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것인 만큼 부처님이 되려는 수행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율장의 전문적 연구,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율학을 전승할 율사의 양성'을 목표로 율장정신의 회복과 전승을 위해 원력을 세운 묘엄스님(봉녕사 주지). 국내 최초의 비구니 스님 율원인 봉녕사 금강율원 원장 묘엄스님은 21일 오후1시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을 율주로 묘엄스님이 율원장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금강율원은 11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입방자 5명을 선정했다.

조계종 율원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2년제 과정의 금강율원은 봉녕사 탁연, 상일, 적연스님등 4명의 강사진으로 1년차에 계율개론과 사미니 율의, 남·북전 율장비교연구, 선원청규 등의 강좌를 개설하며 2년차에는 사분비구니율장, 범망경, 비구니교단사 등의 강좌를 연다.

평소 "계율은 쉽게 일상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묘엄스님은 앞으로 계율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복지사업통해 포교 활성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효강이사장



법인설립추진 1년여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효강 이사장은 복지사업을 통해 전법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로 첫소감을 대신했다. "종단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이양받아 전문화하는 등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전형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효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청소년에서 노인 및 교육문제에까지 종단이 벌여온 크고 작은 복지관련 사업과 종단이 수탁운영해 온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복지사업의 체계화 전문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 괴산의 종단 소유지에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전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불교계가 그동안 축적해온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물을 상호 공유하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명우 기자

교차로

경주 남산 용문사서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은 27일 오전 10시 경주 남산 용문사 주최 큰스님 초청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02)777-2049

보훈가족·노인 무료관광



법등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은 17일 관내 보훈가족 및 무의탁 노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보훈관광을 실시했다.

23사단 호국용해사 낙성법회



현해 월정사 주지는 23일 오전 9시 강원도 삼척 소재 23사단 호국용해사(군승법사 이광회) 불상 점안식 및 법당 낙성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한다. (0397)574-8006

정토회관서 '현실속 수행' 법문



도법 지리산 실상사 주지는 정토회 초청으로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 정토회관에서 '현실 속의 수행과 수행의 현실화'를 주제로 법문한다.

경봉스님 열반 17주 추모재



명정 극락선원장 스님은 7월 10일 오전 10시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경봉스님 열반 제1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제2건국위 기획위원에



효림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스님은 11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위원에 내정됐다.

삼화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원행 삼화사 주지는 14일 적광전에서 삼화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harmanet.net/~samhwasa) 개설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어린양의 집등 위문



성인(대덕사 주지)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스님은 지난달 말 등지 청소년의집을 위문한데 이어 13일 시흥 어린양의 집을 방문해 정신박약아와 지체부자유아들을 위로했다.

종합예술대전 우수자 시상식



도각 한국불교청년회 회장 스님은 13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4회 '참나 청소년' 및 지도자 종합예술대전 우수자 시상식을 가졌다.

무의탁노인 1천명 초청 잔치



묵화 범어사 지장암 주지는 11일 지장암에서 경로위안잔치를 마련, 무의탁노인 1천여명을 초청해 위로했다.

문경 김용사·대승사 순례



목정배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27일 서울·경기지역 회원과 법사회불교대학 재학생들과 함께 문경 김용사와 대승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499-1671

수필집 '아내얼굴을…' 펴내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아내 얼굴을 화장하는 남자'라는 수필집을 펴냈다.

청소년 포교공로 표창 받아



이원주 동국대부속중학교 교장은 5일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으로부터 청소년 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문화부 예술진흥국장에



윤청하 前 문화관광부 종무관은 11일 예술진흥국장에 임명됐다.

부산 거사림 창립 27돌 법회

엄영건 부산불교 거사림회장은 29일 오후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거사림 창립 2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1)805-1280

제13회 동국 문학상 수상

박진환 시인은 16일 동국대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동국문학인회가 주관하는 제13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구과장에

고명석 전 대원정사 편집장은 14일 조계종 교육원 연구과장에 임명됐다.

미스 한국일보 이웃돕기 성금

9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 한국일보로 뽑힌 손혜임(21·대구대 사회복지학과 3년)씨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상금으로 받은 3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독실한 불자인 손씨는 강화 보문사 신도.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태고종 충담대종사 1주기 추모

지난해 6월 27일 청평 감로암에서 소신 입적한 태고종 승정 충담당 원종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법회 및 부도탑 제막식이 17일 감로암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곡 태고종 포교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 2백여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해 충담스님이 보여준 소신공양의 높은 뜻을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1년전 스님을 감로암까지 태워 준 택시기사 안승도씨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생생히 들려주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작설차 만드는 외국인

Focus

'차 한잔에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가 담겼다'는 말이 있다. 13일 하동 한발 녹차밭에서는 40여명의 내·외국인이 함께 푸른 꿈 맑은 바람의 우주를 찻잎에 담으며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회장 김건웅)가 마련한 '외국인과 함께 차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잎이 참새 잎같다'고 해서 '작설'이라 이름한 작설차 만들기 삼매에 빠졌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6월 : 사굴산문(굴산사지)·등명낙가사·보현사

6월에는 범일국사에 의해 개창된 사굴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굴산사지를 찾아갑니다. 현재 절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보물 제86호)와 부도탑(보물 제85호), 석조비로자나삼존불상 등을 통해 당시 번창했던 산문의 규모와 선사들의 향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 일출로 유명한 등명낙가사에서 참선 정진의 시간도 갖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법일국사 최초 창건 가람인 보현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6월 26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김홍술(강릉시청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 문수보살의 가피가 어린 ·

방생기도 도량 반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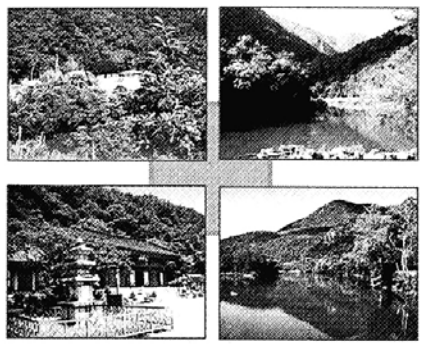


성제스님

삼보 귀의하옵고,
반야사는 문수동자와 세조임금에 얽힌 전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천년고찰로
불자님들의 기도영험이 탁월한 곳입니다.
때묻지 않은 이곳에서 복전(福田)을 일구십시오.

☞ **반야사는…**

- 신라 성덕왕 19년(720) 의상대사의 수제자인 상원대덕이 창건했으며 벽계 정심선사가 견성후 보림했던 수행처입니다.
- 조선 세조임금이 반야사에 들렀을때 문수동자가 나타나 망경대로 인도했는데 이곳에서 목욕한 후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조 임금이 어필을 남긴 유서깊은 도량입니다.
- 큰개울이 태극형태로 흘러 저수지를 형성하고 절을 에워싼 산봉우리는 연꽃형태를 띤 대명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황간인터체인지에서 10분거리로 망경대, 물한계곡등 인근에 명승지가 즐비합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 T)0414-742-7722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 말사 반야사
주지 성제 합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김성철(승가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암도스님(전교육원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남수영(동국대교수) ·게환스님(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표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탐방 부산시청법우회



◇부산시청법우회는 불법의 실천을 통해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신행단체다. 97년 12월 파계사 성전암에서 간부수련회를 마친뒤 철웅스님과 함께 했다.

공직사회 친절봉사상 심어

94년 창립…회원 500명
불우시설 방문·성지순례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매달 부산광역시청의 컴퓨터 게시판에는 그 달의 법회를 알리는 법회안내문과 함께 짧지만 일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법구가 올려진다. 5백여명을 넘어선 부산광역시청 법우회 회원들은 이 법회안내문을 통해 법회참석의 마음을 다지고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본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법회를 가져 '목요법우회'라고도 불리는 부산광역시청 법우회는 94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정진해 가정과 직장을 건강한 삶터로 만들고 공직사회에 불법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으로 발족했다. 22명의 불자가 뜻을 모아 시작한 작은 신행회에서 이제는 본청을 중심으로 각 구청에 지회를 두고 5백 여명이 활동하는 거대한 신행단체가 됐다.

부산광역시청 법우회는 그 규모의 거대함보다는 회원 개개인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대민봉사하는 것을 곧 수행이라고 여기며 신행생활에 임하고 있다.

회장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은 "공직자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사회에 반영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이 사회를 밝고 지혜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요법회에서는 각 지회가 다함께 모여 자체 법회나 봉사활동 등에서 체험한 회원들의 체험담을 나누며 실천적인 불교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산사순례를 진행, 좀 더 깊이 있게 본성을 찾는 구도자가 되고자 한다.

부단한 정진을 통해 기복신앙를 탈피하고 각자의 자성을 밝히고 있는 부산시청법우회는 불우이웃시설 방문과 보시, 시민을 향한 친절한 봉사로 사회 곳곳에 향기를 심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

조계종 직장직능단체 현황조사 내용

월1회 이상 법회 76% "불교 생활화 한 몫"
사찰과 교류 50%…포교원 "연합회 유도"

직장직능 신행단체 중 기존 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신입회원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각각 45%, 37%에 그쳐 직장불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6년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단체가 정기법회(71.1%)를 주된 신행활동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성지순례(10.9%), 봉사활동(6.3%), 교리공부(4.7%) 등의 순으로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5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에 응한 단체는 1백29곳이다.

96년 포교분과위 조사결과 인근 사찰에서 법회운영을 하던 단체가 극히 일부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62개 단체(50.8%)가 주변사찰 법당을 이용하고 있는 음을 알수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인근사찰과 신행단체간의 활발한 교류 및 유기적 관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사내 공공시설과 자체법당을 이용하는 곳은 23개(18.9%)와 22개(18%) 단체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와는 별개로 모든 단체들이 자체 법당 마련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각 단체가 법회를 보는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79%(1주 1회 12%, 2주 1회 6%, 월 1회 61%)로, 정기법회 봉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6년 조사 때는 월 1회 이상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곳이 52%였다.

그러나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30명에 머물러 절반에도 못미치는 회원이 정기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들의 활동이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53%의 응답단체들이 회원의 참여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회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법회에서의 설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님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83%)이었는데, 포교원 포교사단을 비롯한 재가법사들의 적극적인 투입과 활동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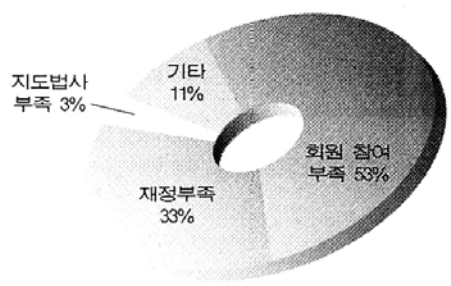
이와함께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자체 회비 납입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법회운영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 회원이 전체 등록 회원의 20~30%에 불과하고, 76%의 단체가 회사와 사찰의 지원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체 수익사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수련회는 1년에 1~3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41%였으며, 수련회 내용은 큰스님 설법(57.3%), 절 수행(37.8%), 참선(30.5%)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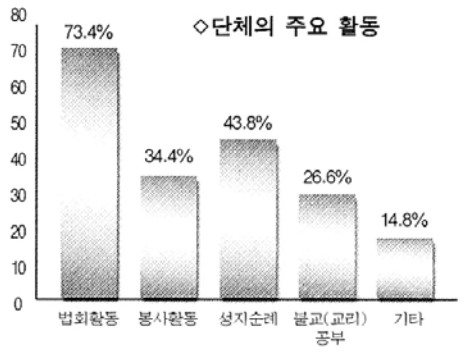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포교원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네트워크 형성 필요 △종책적 접근을 통해 조직유지 및 연합회 결성 유도 △다양한 신행프로그램과 활동의 개발 △회원 교육체계와 자생력 확보 등은 종단과 각 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단체의 애로사항



◇단체의 주요 활동



우리 모임에선

수원 불심회 자원봉사

수원교도소불심회(회장 고왕식)은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9시까지 등지소년의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불심회 직원불자와 경교대(교도소 경비대원) 등 20여명이 참여할 이번 자원봉사에서는 세탁 및 제초작업, 막힌 하수구 뚫는 일 등을 할 예정이다.
(0331)211-1285

개인택시정법회 정기법회

개인택시불교정법회(회장 류지순)은 24일 오전 11시 혜림원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성사 주지 설호스님이 법문한다. (053)764-0766

KBS불자회 26일 모임

KBS불자회(회장 백영석)는 26일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6월 정기모임 및 법회를 갖는다. (02)781-2481

금오복지관 직장인 강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교양강좌가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에서 열린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피부메이크업반과 한식조리사반을 개설하고,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메이크업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한식조리사반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7시~9시 열린다. (0546)45-0230

금융감독원 정기법회

금융감독원불교회(회장 홍순우)는 25일 정오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법회를 연다. 10여명의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회를 여는 금융감독원불교회는 이날 법회에서 예불은 물론 각 회원간 신행이야기를 나누며 신심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02)3771-5191 백명현

과천 정불회 법화경 강좌

과천종합정부청사 불교신행회 정불회(회장 강평수)는 25일 정오 청사 5동 지하 상황실에서 〈묘법연화경〉 강좌를 연다. 김정호 지도법사(경생불사회 회장)가 〈묘법연화경〉을 강술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504-5143 장재군

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 창립



◇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가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회에 이어 3번째로 창립됐다.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 광주전남 지회가 창립됐다.

한국불교언론인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이춘성 광주매일신문 부장)는 4일 광주 무각사에서 언론인 불자와 광민스님(무각사 주지), 김두원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부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에 이은 3번째 지회가 되는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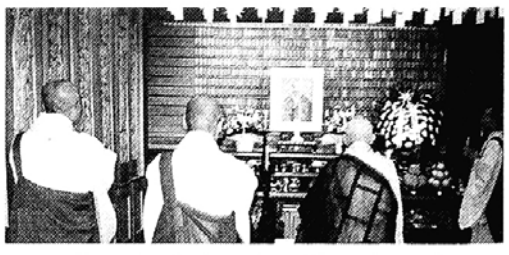
광민스님은 법어에서 "불자언론인으로서 언론을 개도하고 불교의 권익옹호 및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춘성 회장을 비롯 이두헌 전남매일신문 부장과 양봉모 광주불교방송 기자가 각각 부회장과 총무에 선출됐다.



불출협 제1회 도서전시회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스님)는 12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제1회 불교도서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 오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불교출판협의회장 원택스님을 비롯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나춘호,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 불교TV사장 허문도, 정병조 동국대교수 등 교계출판사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칠보사 남전스님 63주기 추모재

칠보사(주지 오철)는 1일 도봉 석주 성월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중앙선원을 창건한 남전한규(南泉翰圭) 스님 6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을 비롯 문도들과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석주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전심전력했다"며 남전스님을 회고하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용맹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 창립법회

사단법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16일 정토회관 3층강당에서 진월스님(동국대강사) 서영훈(제2건국위원장) 이장호(서울대교수) 서경석목사 김명현목사 박청수교무 김귀옥(서울대교수) 최형록(한국노동연구소)씨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법륜스님은 "'좋은벗들'은 한민족 화해와 통일, 나아가 국제평화와 난민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 부산법회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 진관스님)는 14일 부산 감로사에서 동서화합을 위한 1차 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진관스님은 "부산불자들이 나서 동서화합을 위한 1만번 염불결사를 펼치자"며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우리 시대에 실천하는 운동으로 일으켜 동서가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법형제 수련회

한마음선원 본원 법형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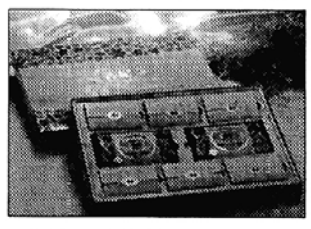
- 아 래 -

1. **수련회 주제** : "마음공부 어떻게 해야하나"
2. **일 시** : 1999. 6. 26(土) 17:30~6.27(日) 14:00(1박2일)
3. **장 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4. **참가자** : 법형제 회원
5. **준비물** : 회원증, 간편복, 운동화, 세면도구, 필기도구
6. **문의처** : 선원사무처 0343-470-3100
   법형제회 총무 011-794-6365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회장 명 을 식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공직자 **"벼슬에 있어도 청탁개입 안된다"**

고관부인들의 고급옷 로비의혹, 검찰의 대낮 폭탄주 발언 등 공직자들과 관련된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성토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설때 마다 관리 좌우명, 공무원 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 등 예외없이 부패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들 사건의 파장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밝은 달은 이지러짐이 없어서 허공을 옮아 감에 청정하며 장애없듯이, 늘 초립자같이 참괴하는 마음을 갖출 것이며, 몸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조금도 산란함이 없이 법도대로 하여 청정해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월유경〉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으론 벼슬에는 있을지라도 죽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니, 벼슬에 있으면서 그러한 다섯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불반니항경〉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오직 아첨꾼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정당한 정책은 폐허 속에 묻혀 버린다. 그렇게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청정한 마음은 착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은 악한 행위를 하게 한다.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하며,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세계가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우리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주(主)를 삼는 것이니, 온갖 것이 마음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느니라. 〈심지관경〉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물 가뭄 폭풍 비 등 기상상황을 알고, 농사의 작황과 풍작을 위한 대책과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고, 공과 죄를 확연히 가려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현명한 치자는 백성이 곤궁할 때 나누어 주고, 넉넉할 때 거둬들이며,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부과할때는 잘 판단하여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잘 화합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성보박물관을 지으며

목.소.리



혜우 선암사 재무국장

지난 3월 선암사 대웅전 후불탱화를 도난당했습니다. 성보를 도난당한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뒤에 당한 여러가지 일들입니다. "탱화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어떻게 문화재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요?" 등등….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뒷편에 탱화를 모시는 일이 당연한 일이며 가장 귀하게 모시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취급했다고 야단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전문지식없이 비판만 난무한 기사에는 많은 이들이 받을 상처에 대한 배려마저도 없었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더 슬픈 것은 성보에 관심이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방적인 매도입니다. 수행하는 승려가 수행의 대상에 관심이 없다니 어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밖에서 성보박물관 짓는 소음이 들립니다. 그 소음소리가 다른 공사때와는 다르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제 박물관이 완성되면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세상 고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진정 자유의 문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던 부처님상이나 탱화들을 단지 문화재보호란 이름으로 제 손으로 유배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이기전에 종교가 우선임을 사람들은 모르는가 봅니다. 우리 불교가 지니고 있는 문화는 종교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 부산물에 불과한 문화재적인 가치로 인하여 종교성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절집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단절된 문화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생활 문화이며 정신적 의지처로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삶의 가치를 오롯이 세울 수 있는 귀의처임이 분명합니다. 절이란 세상의 어떤 기준도, 어떤 조건도 없이 삶에서 일어난 그 어떤 괴로움도 벗을 수 있는 곳이며 지친 삶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함 곳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난과 훼손의 문제때문에 오래된 절집마다 성보박물관을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습니다. 성보를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대안이나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어느날 그대가 지친 걸음으로 찾아들었을 때 대웅전에서 플라스틱 미소를 띠고있는 부처님이나 사진으로 복사된 불 보살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마당

새시대 불교포럼 6월포럼 '신지식인운동' 불교적 이해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은 15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지식인 운동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주제로 6월포럼을 개최했다. 신지식인 운동은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이다. 이날 포럼은 박승원씨의 주제발표와 2인의 약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신지식운동은 불교사상에 입각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불교적 선지식운동으로 전환

발제 **박승원** 〈시스템경영연구소장〉



최근 들어 지식의 가치를 논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신지식인의 모형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위기가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쟁력 약화가 '지식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독주'에 의한 사회적 공정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지식인운동은 지식의 기능적 내지는 결과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지식을 경제적 산출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익혀온 가치관의 연장에 불과하다. 부가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심미적이거나 정서적 그리고 감성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근본적으로 문학 사회학 철학등 인문과학의 괴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운동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보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신지식인운동은 선지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지식이란 벗으로 사귈만한 훌륭한 사람, 즉 스승을 뜻하며 무엇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사이(知人)'에 근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춰주는 유익한 존재로 만나 지식인이 되어 무한한 정보원과의 상호관계속에 파생되어 새로운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파트너링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지식운동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라면 선지식운동은 찾아가는 과정 또는 방법론을 강조하며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여야만 자기계발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선지식운동을 통해 지식의 독주를 막고 균형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지식은 선지식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새로운 발상 중시 가치창출

홍성범 〈제2건국위원회 공보팀장〉



신지식인운동의 출발 배경은 지식이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발전전략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키위해 신지식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신지식인운동은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열의 개방 창의 네트워킹능력 등 지식의 활용과 일하는 방법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신지식인은 학력을 철폐하여 능력을 우선시하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생활현장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지식운동은 협의로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실천적 지식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자는 것이고 광의로는 조직내 구성원이 신지식인화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은 연계망적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선지식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와 지혜 둘다 축적돼야

토론 **김대곤** 〈한국경제신문 마케팅실장〉



대상과 인격체를 상징하는 선지식과 정보가 축적된 인간을 통칭하는 신지식은 다른 개념이다. 불교적으로 볼 때 원리와 일치된 지식을 말하는 지혜가 가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사회구조는 노동위주의 산업 농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천하고 있다. 그런만큼 앎의 힘(知力)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단순한 물리력 조직력 자본론적인 대응은 곤란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력 지식력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와 있다. 혼돈의 시대를 거쳐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연기론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문화력·정신력 시대로 가게 마련이다.

21세기가 되면 가치중심과 세계사 축의 변화로 인해 불교적인 사고와 가치가 자연적으로 필요한 때가 인류에게 도래한다.

그런만큼 지혜를 길러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 1부 기자〉

석굴암 유물의 진위

최근 연합뉴스의 '석굴암 유물' 관련 보도에 대한 진위를 탐문했던 기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함양군청 등 어느 곳에서도 공개된 유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물 소동'의 발단은 경주 함양에 살고 있는 배근택씨가 15일 석굴암 감실에 있었던 것이라며 유물 73점을 공개하고, 연합뉴스가 이 사실을 보도한 데서 시작했다. 석굴암과 관련있다는 소식에 교계 기자들은 먼저 유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1월부터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함양군청 등에 석굴암 감실 유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해온 터라, 이들 기관은 이미 유물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네 기관의 대답이 애매모호했다. "배씨의 주장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군청 공무원이 무엇을 알겠느냐" "관계 학자들이 조용한데 진위 여부가 가려진게 아니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등등. 하나같이 진위를 밝히는 데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더욱이 석굴암 감실 유물이 아니더라도 유물은 '진품'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소장가가 한 학자에게 '진위'를 묻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유력한 통신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위'를 묻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모른다'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경남지역 일간지에서는 배씨의 유물을 수차례 다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진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 채 배씨의 유물이 성보로 대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배씨의 유물이 '가짜'라면 이들 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문화재 보호는 지정문화재를 보존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지정하고, 또 시장에서 유통되는 문화재 가운데 '가짜'를 색출·근절시키는 데에도 있다.

(gobaoou@buddhapia.com)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면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락처 0351-861-0161 / 011-396-8525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 그림에세이

화제만발! 전국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참좋다, 정말좋다



시끄럽다, 먹이나 갈아라!



국판/264면/8,500원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걸판진 에세이 한마당
물 속에도 부처가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고…
산에 살면서도 산이 그립다고 고백하는 스님.
스님이 '먹이나 갈라'고 외친 진정한 뜻은…

*컬러그림 57점 수록

부처님 앞에 공양드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써낸 담백한 문체와 소박한 그림 중립일보 경쾌한 구도, 해학적 요소가 어우러진다 한국일보 큰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한다 경향신문 난해한 법문이나 불교 용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풀어 놓은 이야기와 그의 삶 자체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감을 담은 사자후의 설법이다 문학일보 세상사에 대한 응승깊은 글 50여 편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세계일보 승복의 찢긴 틈새를 보는 세도 스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 아무런 구속도 없기에 그의 고백에도 거리낌이 없다 동아일보 선화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해 온 저자가 스님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보여주는 개성있는 에세이 불교신문 세상을 보듬어 안는 스님의 진솔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람과 시학 지혜의 보살인 문수의 눈 혜안의 눈이란 뜻이다 이 글을 하나하나에는 그린 눈길이 느껴진다 부산일보 들에 박힌 수도보다는 중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는 작품세계를 통해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영남일보

386세대에게 바치는 뜨거운 연가
〈민족선 사람들〉의 작가
임동헌 장편소설 **앨범**
전2권/신국판/304면/8,000원

무지렁이를 자처하는 한 농부의 자연사랑 · 인간사랑
옹고집 농부 강문필 에세이 **하느님, 개구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6판/양장/198면/8,500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외롭다
새로운 작법의 신예작가
임동준 장편소설 **뒷모습**
신국판/296면/8,000원

즐거운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

'트로트와 불교와의 만남' 가요포교 나선 대주스님

초여름의 길목에서 트로트와 불교가 어우러져 한판 흥을 돋군다. 승려가수 대주스님(61·서울 청량리 백선사주지)이 지난 1월 타계한 대중가요계의 거목 손목인선생의 유작 및 신곡을 발표할 '故 손목인선생 유작 및 대주스님 신곡 발표회'가 바로 그것.

7월12일 오후7시 30분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콘서트에서는 대주스님 외에 평소 가수분과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 설운도, 주현미, 명국환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 6명도 찬조 출연해 각각 세 곡씩 보시한다.

방송인 김동건씨가 사회를 맡을 이번 행사에서 대주스님이 발표할 신곡은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뭐가 그리 잘났는가'를 비롯, 손목인선생의 미발표 유작인 '염불하는 노승'과 '그리운 을숙도', 자신의 시집 제목에서 따온 '해탈로 가는 길' 등 모두 네 곡. 이 곡들은 염불하다 틈틈이 떠오른 화두의 조각들을 가사로 옮긴 것이다.

특히 '아침 햇살 눈부실제 산새소리 벗을 삼아 법당에 홀로 앉아 염불하는 노스님…'으로 시작되는 '염불하는 노승'에 대해 스님은 "산사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포교 불음가요"라고 소개했다. 이 네 곡외에도 스님은 '나그네 설움'과 '눈물젖은 두만강'을 열창한다.

"염불은 가장 멋진 음악이며 찬불가 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포교수행의 연장"이라고 평소 주장해온 대주스님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포교 방법도 사부대중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활속의 열린 불교가 돼야 한다"고 이번 음악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스님은 "그 혁신적인 포교 방법의 일환으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7월12일 연강홀서 신곡발표 콘서트
'염불하는 노승' '해탈로 가는 길' 등 발표

올해초 트로트곡을 모은 카세트음반 '함지박 메들리'를 내놓고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던 스님은 4월초 '트로트 불가'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발표할 곡을 수록한 '뭐가 그리 잘났는가'를 CD로 출시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타행(利他行)도 불사라는 지론을 펴온 스님은 음반 판매 수익금을 불사를 위해 보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성직자들이 함께 꾸미는 종교화합음악회도 개최할 뜻을 밝혔다.

대주스님은 용주사 효행교육원 건립기금 모금 공연등 수차례의 무대공연과 MBC, sbs, KBS 등 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불교를 포교해 왔으며 범부부 위촉 종교위원으로 교화활동도 펴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6백석 전석이 무료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얼핏보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트로트에 불교를 담은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대주스님. 7월12일 콘서트에는 설운도, 주현미등 정상급 가수 6명이 찬조 출연한다.

禪畵에 푹빠진 김호석화백

15일부터 '올해의 작가' 초대전…100여점 전시



◇김호석화백의 성철스님 초상화 연작중 '성철스님 5'. 이번 전시회에는 스님의 초상화 30여점이 선보인다.

성철스님의 다비식 장면을 화폭에 옮겼던 동양화가 김호석(42)씨. 소재와 형식을 '전통'의 이름으로 제약하는 동양화에 매이길 원하지 않아 '수묵운동'에 합류하여 역사의 단면을 찾아나섰던 그가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해마다 '올해의 작가'를 한명씩 뽑아 대규모 개인전을 열어온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는 김씨를 초대한 것.

20여년간 역사의 단면을 기록하는 그림을 많이 그려왔던 김씨는 이 전시회에서 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작품 100여점을 내건다.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 장면을 그린 군중화 '역사의 행렬' 시리즈와 성철스님의 다비식 장면을 그린 '그날의 화엄' 등도 이번에 전시된다. 이 가운데 '그날의 화엄'은 해인사에 모인 일만이천명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내 화제가 됐다.

"지난 94년 성철스님의 초상화와 다비식를 그리면서 직설어법이 아닌, 우화와 은유와 상징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김호석씨는 요즘 역사의 한복판에서 움직이는 인물군상을 넘어, 최소의 선만으로 사람의 내면적인 깊이를 표현하는 '선화(禪畵)'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선기어린 그의 수묵의 세계가 어디까지일지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이재운씨 연재소설 '당취' 임란때 승려비밀결사 다뤄



◇사명대사

조선 중기 억불승유정책으로 일부 유생들이 스님을 잡아다가 노비로 삼는 등 훼불행위가 심각해지자 스님들이 결성한 비밀결사모임 당취(黨聚)가 결성됐다. 당취의 활약상을 담은 이재운씨(41)의 소설 〈당취〉가 14일부터 경향신문에 연재되고 있다.

〈당취〉는 〈소설 토정비결〉의 속편으로 8년여의 구상 끝에 발표하는 장편 역사소설이다. 이 소설은 토정의 제자들과 당취의 활동,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이 임진왜란에 참전하는 과정, 상고사의 비밀인 〈천부경〉을 통해 조선이 양반 나라가 아니라 '하늘자손'의 나라임을 자각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저자 이재운씨는 "당시 스님들은 툭하면 잡혀가 길을 닦고 성벽을 쌓고, 양반들의 허드렛일을 도와야 했다. 버림받던 스님들의 비밀결사모임인 당취가 임진왜란을 당해 의병의 근간이 되는 등 양반이 아닌 평민 천민 계층이 뭉쳐 국난을 극복했다. 조선의 민족의식을 눈뜨게 한 것이 바로 당취였다"며 "통치집단을 향해 던지는 당취들의 외침으로 민족의식을 두드려 깨우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여불련 광복 54주년 자선음악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천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54주년 기념 '한떨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에는 청룡사, 봉은사, 보각사, 묘각사합창단 등 23개 합창단이 정신대 할머니들을 기리는 합창곡을 선보였으며, 청주대 강혜숙교수의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영가 천도재 무용공연도 펼쳐졌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다도 음반 10월 출시
한국창작음악硏 제작

다성 초의선사(1789~1366)를 기리는 차 음악이 만들어져 오는 10월 음반으로 출시된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초의선사를 주요 테마로 음반집을 제작하는 한편 오는 10월 국립국악원과 '초의문화제'에서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음반에는 '동다송'(박일훈 국립국악원연구실장), '초당'(이종구 한양대 교수) 등 초의선사는 물론 추사 김정희, 소치 허유 등을 기리는 음악 10여곡이 수록된다.

간다라미술 진품 만날 기회

7월1일~8월 29일
예술의전당 미술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간다라 불교미술대전'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불교미술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간다라 불교미술의 정수를 국내에 소개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전시에는 세계 처음으로 조성된 간다라 불상과 부처님 일대기가 기록된 부조판 등 불교문화유산 1백 30여점을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직접 대여해 간다라 불교미술 진품을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또 고대 불교도시의 발굴현장과 사원, 사원의 생활용품, 사리숭배와 사리기, 간다라를 지배한 역대 군주의 모습이 담긴 고화폐, 각종 장신구와 상아 세공품 등 간다라 지역의 생활 모습과 불교미술의 생생한 원형을 전하는 각종 일상 용구들이 다양하게 전시된다.



◇전시회에서 '선보일' '부처님' 일대기 부조판'.

간다라 지역은 힌두쿠시, 카람코탐 산맥으로 둘러싸이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펼쳐진 페샤와르 평원지역으로 대승불교가 처음 발생한 지역이다. (02)580-1514

오종욱 기자

건봉사 능파교 수해대책 시급

석축 밑바닥 패여 붕괴위험

금강산 건봉사 능파교의 국보급 문화재 지정돼 수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능파교는 건봉사 불이문(문화재 자료 제35호)입구에 1708년(숙종24년) 세워 졌으며 길이 14.3m, 너비 3m, 중앙부 높이는 5.4m이다.

독특한 기법의 이 아치형 돌다리는 맑은 물과 기암괴석,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 어우러진 건봉사의 명물로 문화재위원 김정기(전 한림대교수)박사 등 학계와 지역주민들이 고성군에 보물지정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며 능파교를 중심으로 상·하 30~50m 구간에 쌓아올린 석축 밑바닥이 급류에 패여 석축 곳곳이 공중에 떠 있으며 주변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는 등 폭우시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1923년 급류에 붕괴된 기록이 있는 능파교 마저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돼 능파교 주변은 물론 경내구간 1km 정도인 냉천계곡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

건봉사 관계자는 "현재 착수된 능파교 주변 정비사업이 문화재 속원에 앞서 급류를 견딜 수 있는 대형 자연석이나 장대석 사용 등 수해방지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며 계곡천 양쪽 석축 쌓기와 물가둠 공사를 병행해야 급류 방지와 함께 경관도 돋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 정밀답사를 통해 문화재관리국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오종욱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한국불교 근현대사 100년 '한눈에'

선우도량 '신문으로 본…' 1·2집 완간 1896~1969까지 6987건 수록

지난 100년동안 불교계의 각종 신문뉴스를 총정리한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이 나왔다. 이 자료집은 1896년 4월23일자 독립신문의 '약수절 월압스님이 썩은 나무를 베어 움집을 짓다가 경무청에 갔혔다'는 기사에서 부터 1969년 12월2일 동아일보의 '뚝섬 봉은사 서기 794년 창건'이란 제하의 기사까지 총 9종 신문 6,987건의 불교관련 기사가 수록됐다.

선우도량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회장 혜담스님)가 95년에 1920년부터 1969년까지 각 신문에 실린 불교기사를 모은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1집을 출간한데 이어 최근 1896년부터 1945년까지를 정리한 2집을 펴냄으로써 100년의 근현대 불교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 자료집에는 교단의 문제, 일제 불교정책, 항일 자주화운동, 불교 지식인 논설 등이 시대별로 정리됐다. 이밖에도 불교관계 통계, 사찰의 상황과 스님들의 생활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2집은 일제기 이전 시기와 일제시대에 발행된 신문에서 발췌된 4천여건의 신문기사를 연대순으로 모았다. 2집은 '일본불교의 국내활동과 조선불교계(1896-1909)' '총독부 불교정책과 조선불교 왜색화(1910-1918)' '일제 문화정치하의 조선불교계 활동(1919-1930)' '전시총동원령과 불교계 친일(1931-1945)' 등 모두 4부로 엮어져 있다. 당시 한국불교계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개항과 더불어 조선에 들어 온 일본불교 각 종파의 국내활동을 비롯 승려 도성입성 금지 해제후 상황, 사사관리서(社寺管理署) 설치, 원종 종무원, 임제종 선언서, 불교문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 자료집은 역사적 고증자료로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초의 근대적 종무원이 원종종무원에 참여한 인원이 기존학설에서는 불교대표 52명이었으나,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1908년 3월 17일)에 게제된 '불교종무국 취지서' 광고에 따르면 65명이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선불교총종무소인 원흥사의 본래 이름은 소흥사로 1899년이 아닌 1902년(황성신문 1월6일자)에 건립된 것으로, 그리고 범어사, 용주사 등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불교기사가 가장 많이 실렸던 시기는 1915년으로 총 227건이다. 포교및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되면서 부터 불교관련기사가 각 신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제시대 관보인 대한매일신문은 불교정책을 비롯 교계의 동향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15년 3월21일부터 4월13일까지 한달간 대장경의 유래에서부터 '대장경에 대하여'라 논문까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집중 소개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는 후속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20명의 불교정화관련자 인터뷰자료집을 출간하고, 내년에는 일제 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살필 수 있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정리해 발간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보현행원 실천 이렇게

이종린씨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불교를 알게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솔직히 수행법을 몰랐다. 지식으로 알고 남들 하듯 법회도 나가고 좌선한다며 단전에 힘주고 앉아도 보고, 염불과 진언도 해봤지만 어디까지나 흉내였을 뿐이다."

행원의 실천으로 새로운 신행생활을 하고 그로인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종린 홍익소아과원장(45). 그가 보현행원을 노래한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를 펴냈다. 저자는 보현행원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행원은 비불자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출근길, 점심시간, 전화를 받을 때, 잠자리는 물론 하루 24시간, 행원을 실천한다. 물론 초기에는 행원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경전과 스님들의 법문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행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됐다.

신간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는 저자가 많은 의문과 방황속에서 보현행원을 만나 어떻게 보현행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고백서이자 자전적 구도기이다. 보현행원의 의미와 실천방법 등을 생활모습을 통해 해석하고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읽기 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현행원 안내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바쁘고 수행할 시간이 없는 이, 스승을 못 만나고 방황하는 이, 밀려오는 삶의 무게로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책이다"며 "보현의 열가지 행원을 일념으로 따라 하다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 깨달음에 한발짝 성큼 다가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광 刊, 값 7천5백원〉

보현행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께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께서 지은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지은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 만화 = 재미있는 감동



"큰스님, 저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남에게 귀한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면 제 지혜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지 않단다. 만일 어두운 방 안에서 네가 촛불을 들고 있다고 해 보자. 네가 촛불로 옆 사람의 초에 불을 전해 준다면 네 촛불의 밝기가 줄어들겠느냐."

"아닙니다. 제 촛불은 이전과 마찬가지의 밝기로 타오를 것입니다."

한 제자가 큰스님을 찾아가 남에게 불법을 전하면 자신의 지혜가 줄어든다며 전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해 큰스님은 촛불의 비유를 들어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이 더욱 환해지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며 "불법을 전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신간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에 수록된 글들은 짧지만 진한 감동을 준다. 재미도 있다. 어린이 잡지 〈동쪽나라〉에서 새싹불자들을 위한 글을 써온 양태석씨가 〈아함경〉 〈불교대전〉을 비롯 경전속에 담긴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만을 가려뽑아 엮었다. 여기에 〈소년 동아일보〉에 '호기심 세계일주'를 연재하고 있는 이범기씨가 각 주제의 요지를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들의 실생활에 맞게 만화로 그려 오늘의 부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다.

불교의 핵심사상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주제의 연기론(77편)의 경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의 비유를 들어 만화로 표현했다. 햄은 돼지고기로 만들고, 돼지는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2편의 '난타의 등공양'을 아빠의 생일날 구두티켓보다 정성이 듬뿍 담긴 시(詩)를 선물한 어린이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만화로 표현했다. 이처럼 이 책은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글과 어린이들의 실생활에 맞는 내용의 만화가 동시에 수록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이 책은 어린이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용어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교훈적인 이야기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저자 양씨는 "이 책에 실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앞으로의 인생을 참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워 좋더 나은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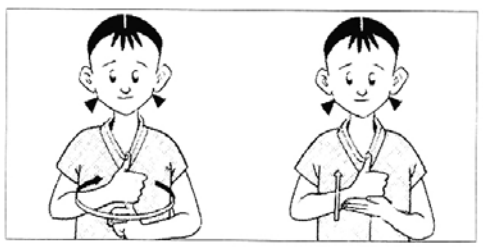
〈능인 刊, 값 6천원〉

수화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혜성스님 '자비의 수화교실'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화책이 나왔다.

혜성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 스님이 펴낸 〈자비의 수화교실〉은 불교용어를 비롯 인사, 가족, 날씨와 계절, 나라와 지명 등 총 22과로 자세하게 구성됐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수화책을 참고하고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불교수화를 모아 일반수화집에 불교과를 삽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쪽마다 가슴에 쉽게 와 닿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록함으로써 일반인도 이 책을 통해 수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불교의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부처님 왼쪽검지를 오른쪽으로 잡고 오른손 엄지를 펴서 화살표 방향으로 돌린다

저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작은 벗이 되어주고자 수화를 배우게 되었지만 불교수화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불법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웠다"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한 불교수화연구가 이제 책으로 출간됐다"고 말했다. 〈불광 刊, 값 1만2천원〉

4아함중 꼭 읽어야 할 경구 모아

정선 아함경 | 이연숙 옮김



삼보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재가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게 해주는 아함경. 수록된 경전의 성격이나 길이에 따라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 잡아함으로 분류한다. 〈정선 아함경〉은 4아함 2천여가지의 경전들 가운데 꼭 읽어 봐야 할 경구들을 가려뽑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체계적으로 엮었다. 부처님 탄생, 깨달음을 얻고 다섯 비구를 시작으로 여러 외도들과 수행자들에게 설하시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 생애를 조목 조목 살펴볼 수 있다. 사성제를 비롯 연기법등 기본적인 가르침도 가득하다. 〈시공사 刊, 값 2만4천원〉

화제의 책

깨달음 이끄는 사고변화수행법

티베트에서 온… | 주민황 옮김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인 사고전환법,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가 담긴 명상서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가 나왔다. 이 책은 삶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난관들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것으로, 더 나아가 행복으로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며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용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고변화 수행법'의 하나인 이 책은 불교심리학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맞게 7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황 옮김 〈정우사 刊,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 예 촌
2	타래	보 현	찬 섬
3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4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5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량
6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9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10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일타 큰스님의 신간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Ⅰ.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Ⅱ. 합장법과 예배법
Ⅲ. 사찰에서의 예절 Ⅳ. 법문 듣는 법
Ⅴ.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新禱)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불교미술 외길 50년 후회없어"

황수영박사 회고 전집완간 발표회서

"저에게 한국불교미술의 세계를 열어준 은사이신 우현 고유섭 선생의 장례 때 그분께 바친 추도사에서 '선생의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겠다'는 맹세 아닌 맹세를 지키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옛 문화유적을 따라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경제학도로 희랍사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한국불교미술 외길을 걸으며 끝까지 '황고집'을 부릴 수 있게 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6세 때 경주 불국사에서 다보탑을 마주대했을 때 느꼈던 감동은 저로 하여금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신라미술 연구에 종사한 것을 한번도 후회하지 않게 했습니다."

원로학자 황수영 박사(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전집 6권 완간을 기리기 위해 1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황수영 박사는 50년 넘게 걸어온 '불교미술 연구 반세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수제자인 정영호 교수(교원대)는 "불교문화재에 관한 일이라면 백리길 천리길도 마다않고 다니신 분이 바로 황 박사"라며 "황 박사님은 은사이신 우현 선생 비를 대왕암이 보이는 동해에 건립하고 비 주변에 검은 옥돌을 깔아 놓았지요. 황 박사님의 은사를 기리는 마음이 어찌 두터운지 돌이 없어질 때마다 돌을 사다 뿌린 것이 엄청났어요. 그런 정성 덕분에 이 비는 동해의 명물이 되었습니다"라며 황 박사의 불교미술에 대한 열정, 은사에 대한 존경심 등을 추앙했다.

"한국불교 대승사상 실천 부족"

유승무교수, 전통 禪의 사회적기능 경시 비판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각 종교가 나아갈 길과 사회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다룬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의 춘계학술대회 '한국의 종교와 사회적 기능'이 1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발표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한국불교의 선불교적 전통은 불교가 해야할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경향을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불교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종교가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고 특정한 세계관과 사회관을 심어줌으로써 사회화의 기능 혹은 사회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교는 불건전한 마음의 뿌리를 건전한 마음의 뿌리로 대체하고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과 현재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내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했다. 둘째 종교가 사회통합적 기능과 동기부여기능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교사상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강한 성취동기를 심어줌으로 개인의 목표달성노력에 기여하고 물질적 이기심을 극복과 이타심을 통해 사회완성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밝혔다.

개신교의 적극성 때론 훼불등 초래 사회갈등 일으키기도

- 노치준 교수 -

유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그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위상에 맞게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불교계가 종단 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5개 사항이 있다고 제안했다. 5개 사항은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 불교의 사회사상에 대한 재해석과 불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학문적 패러다임 형성, 둘째 불교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출가수행자를 포함한 사부대중의 사회적 실천, 셋째 신도교육과 출가자 교육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 교육투자, 넷째 종단의 안정과 화합, 다섯째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불교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와 한국인 자신에게 대안사회의 원리 제공 등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약해 온 부정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준 교수(광주대)는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기능'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종교인데 이 적극성이 때때로 타종교에 대한 갈등과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불상훼불사건이나 사찰 방화사건은 작게는 개신교인과 불교인의 갈등을 초래하지만 크게 본다면 한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내의 종교간 갈등에 가장 많이 개입되는 종교인은 개신교임을 볼 때 가족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한국 사회 전체 통합과 관련해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천도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고찰'-노태구 교수(경기대),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최병철 교수(청주대), '한국의 가톨릭과 사회적 기능'-박일영 교수(가톨릭대),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구득환 교수(대진대), '한국의 원불교와 사회적 기능'-이성전 교수(원광대) 등이 발표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원효스님의 중관철학 화해와 조화의 입장견지"

최유진교수 논문발표

"원효는 개개의 경전 모두가 부처의 진리이므로 옳다고 하는 화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관이나 유식에 대한 원효의 태도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우위에 놓지 않는다. 〈화엄경소〉의 교관에서 중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면 원효는 중관을 궁극의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치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그 경전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원효의 진의가 아니다."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가 개최한 제4차 월례발표회에서 '원효의 중관철학 이해'를 발표한 최유진 교수(경남대)는 "원효는 중관과 유식의 논쟁을 화해시키면서 공이나 유에 대한 집착 모두 버려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자체 집착이 없으면 진리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독특한 점이다. 원효는 그의 사상적 특징이랄 수 있는 화해와 조화의 입장 그리고 일심의 입장에서 중관철학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원효의 장애론'을 발표한 고영섭 강사(동국대)는 "〈대승기신론〉에 보이는 수행과 장애이론이 원효의 〈이장의〉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원효는 부처의 관점에서 장애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과 성문·연각, 보살의 측면에서 번뇌를 논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다운 수행이란 자신의 깨달은 위치에 맞게 번뇌를 극복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불교 특강·선수련회

동국대 경주 정각원, 일반인대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성본스님)은 여름방학맞이 '선불교특강 및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학생 뿐만 아니라 선불교와 선수행에 관심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선수련회는 단순한 참선수련만이 아닌 선불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밑받침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1차는 7월12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7월19일부터 22일까지 정각원 법당 및 기숙사에서 80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선불교 특강은 △불교사상의 이해 △반야심경 강의 △선의 기원과 역사, 선의 풍토 △선불교 개설 △선수행의 의미와 목적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의 수행방법 △선문화 선문학 좌선의 등으로 성본스님 이만 교수 등이 강의한다. 접수는 30일까지 정각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0651-770-2016)

학술단신

26일 보조사상硏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권상로의 불교개혁사상 연구'를 주제로 제21차 월례발표회를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26일 오후2시30분에 개최한다. 발표는 이재헌 박사(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가 한다.

中 절강성 불교유적 답사

동국대 동아전통문화연구회(회장 조영록)는 7월6일부터 14일까지 절강성 일대의 불교유적을 비롯한 한국관련 유적지를 답사한다.

절강대한국연구소는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학술대회 '한중해상교섭과 불교교류'는 중국 보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호의는 동국대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친 뗏목 횡해탐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 중 하나이다. 중국 주산시는 출발지점에 기념당을 지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새로 뗏목을 제작하여 이틀간 시승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중에 있다.

도올서원 '금강경' 등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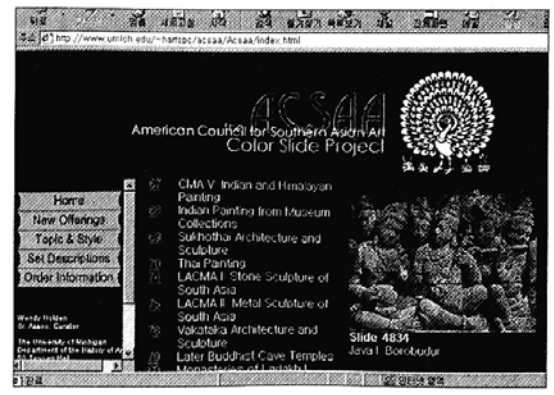
도올서원은 7월4일부터 30일까지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기신론〉의 불경강의를 실시한다.

제별(齊別)활동으로는 화계사 1박-숭산대선사 법문, 염불반, 산스크리트어 기초반, 원효의 〈기신론소〉 보독(補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독파 등이 있다. (02) 744-7992

'단호문화연구' 3집 발간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가 최근 〈단호문화연구〉 제3집을 발간했다.

3집에는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연구'(배진달), '금동선각열반변상판 소고'(이호관), '경설을 통해 본 불열반상의 신앙 및 사상성-현존 동관열반도를 중심으로'(김영태) 등 3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美 미시간大 예술硏

아시아 유물·유적등 25년간 연구 불교예술·탱화등 슬라이드 서비스

아시아 유물과 유적의 자료를 축적하고 보호하는 사이트가 있다. 美 미시건대학의 남아시아 예술연구소(소장 로빈스, 이하 ACSAA)는 아시아 유물과 유적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담아내는 일을 25년간 계속해 온 연구소.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의 아시아 관련 박물관, 연구소, 학회에서는 아시아의 건축·조각·전적·그림 등의 유산을 사진자료로 축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CSAA는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곳이다.

ACSAA의 '아시아 유물 유적 슬라이드 프로젝트'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네팔·티벳·버마·태국·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산재한 고건축과 고예술품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내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ACSAA에서 구축한 사진 데이터는 총 1만5천여장.

이 사이트에서는 ACSAA의 데이터를 △불교예술 △탱화·벽화 △스리랑카 예술 △히말라야 예술 △동남아시아 예술 △삶과 문화 △역사사료 등 12분야로 분류, 슬라이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는 약 1천여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 메뉴는 '불교예술', '탱화·벽화', '역사사료'이다.

총 200여종의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하는 △불교예술 서비스에는 '아잔타 건축·벽화·조각' '아시아 석조예술' '티벳 라다크의 불교예술'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 불자 네티즌이 △탱화·벽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리랑카·버마·미얀마·티벳·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한 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100여장의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한다. △역사사료 서비스는 이 곳에서 제공하는 고건축과 고예술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공한다. 유산에 대한 설명·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네티즌에게 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가늠케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가운데 클리브랜드·샌프란시스코 등에 소장된 아시아 유물 특히 불교유물을 소개 받을 수 있는 것이 백미이다. 이 서비스는 160여종의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PDF' 포맷이라는 국내에서 생소한 방식으로 작성된 이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에크로벳 리더(Acrobat Rea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슬라이드 자료는 ACSAA에서 제공한 '오더 폼(Order Form)'을 작성, 전송하면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구와 교육에 사용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오더 폼'에는 인도초기 석굴사원, 아프가니스탄 초기 불교미술, 인도의 탱화, 일본 초기 사원 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세분화된 사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로빈스 교수(예술사)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우선하고 있지만 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재 밀반출을 사전에 막는 기능도 겸불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umich.edu/~hartspc/acsaa/acsaa.html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4×6배판 / 값6,000원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염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참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찬게"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비실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

여래장 사상·8식 중심주제

능가경 (下)

경전 속의 禪 사상 23



글쓴이
남수영
〈동국대 강사〉

대혜보살 상대로 '정법·설법건립' 설명
초기선종 '능가종'이라 할만큼 비중 커

흔히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주장하여, 경전의 가르침을 배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종의 조사들이 모두 경전의 가르침을 모두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살펴 보았던 바와 같이 보리달마(菩提達磨)는 〈능가경〉을 중시했고, 혜능(慧能)도 〈금강경〉을 중시했다. 그러므로 선(禪)이 교(敎)를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일찍이 보리달마가 중시했던 〈능가경〉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능가경〉은 제4 불심품(佛心品)에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의 수행을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建立正法相)'과 '설법을 건립하는 모습(建立說法之相)'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혜(大慧)여, 어떤 것이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인가? 말하자면 자신이 안에서 증득한 뛰어난 법의 모양이니, 문자와 언어와 장구(章句)를 여의고, 능히 여러 수행의 단계에서 번뇌가 없는 올바른 계(戒)를 취하고, 모든 외도의 허망한 각관(覺觀)과 모든 악마의 경계를 떠나며, 일체 외도와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여실하게 수행해서 스스로 안에서 깨달은 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대혜여, 이를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라고 하느니라. 대혜여, 또 어떤 것을 '설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9부(部)의 여러 가지 교법을 설하여 '동일하다, 다르다, 있다, 없다.' 하면서 상(相)을 취하지 않도록 하되, 먼저 교묘한 방편을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곳에 들게 한다. 중생이 믿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 것이다. 대혜여, 이를 '설법을 건립하는 모양'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정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란 곧 선에 해당하고, '설법을 건립하는 모습'이란 곧 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능가경〉이 선과 교를 수행의 두 가지 방편으로 간주했으며, 일방적으로 교를 배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능가경〉의 이와 같은 관점은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理入四行論)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리달마는 이입사행론에서 "이입(理入)이란 경전에 의하여 도(道)의 큰 줄기를 알고 사람은 모두 범인(凡人)도 성인(聖人)도 평등하게 진실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만 외적인 망상에 의해 덮혀지고 숨겨져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망상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가 외연히 벽관(壁觀)에 머물면 자타(自他)도 범성(凡聖)도 하나이다.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문자(文字)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식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作爲)가 없는 것을 이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의 큰 줄기를 알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곧 교에 해당하고, '벽관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문자(文字)에 구애되지 않으며, 진리와 일치하여 마음에 의식하는 것도 없고 조용히 안정되어 작위가 없는 것'은 곧 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리달마가 말하는 이입은 선과 교를 함께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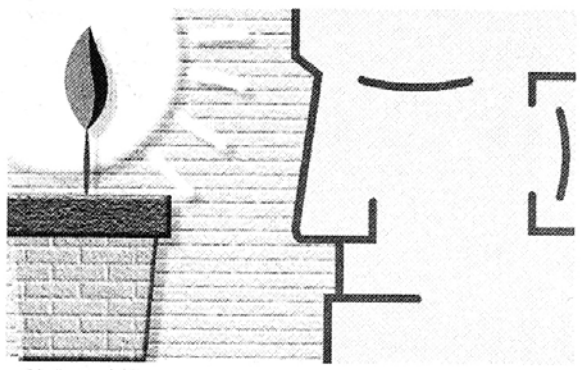
다시 보리달마의 벽관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자. 여래장 사상에 따르면 불성(佛性)은 번뇌에 덮혀 있어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번뇌가 사라지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구름이 걷혔을 때 태양이 스스로 밝게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보리달마의 벽관은 바로 이 여래장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리달마의 벽관이란 곧 벽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먼지를 막는 것과 같이, 본래 청정한 마음 속에 객진(客塵) 번뇌와 망념(妄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선법(禪法)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과 교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래장 사상이 없다면 보리달마의 벽관은 자신의 이론적 기반을 잃어 버리고 말 것이며, 반대로 보리달마의 벽관이 없다면 여래장 사상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이 달마의 벽관에 있어서 교와 선은 견성성불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해 서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턱대고 선을 강조하고 교를 배격함은 옳지 못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선과 교는 분명히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행의 방편으로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교합일(禪敎合一)과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한 고려 선사 지눌(知訥, 1158~1210)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산책 식물의 의식 (하)

인간과 감정 공유
기억력 · 자기방어 행위
크레브 백스터 발견



식물에게도 인간의 의식과 같지는 않지만 분명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분야의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크레브 백스터(Cleve Backster)의 발견을 살펴보자. 그의 발견 중 일부는 백스터 현상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백스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전문가였다. 1966년 백스터는 자신의 학교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중 자신의 방에 놓여있던 열대식물인 드러시너와 거짓말 탐지기로 실험을 하고 싶어졌다. 거짓말 측정기로 사람의 반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한다. 백스터는 식물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식물을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방법은 전극을 연결시킨 잎사귀를 불로 태우는 것으로 정했다. 그가 불을 떠올리면서 성냥불을 가져오려 움직이기도 전에 측정기에는 강렬한 반응이 나타났다. 마치 식물이 백스터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가 성냥을 가져와 거짓으로 태우는 시늉을 하자 측정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식물이 마치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해 온다거나 갑자기 개가 나타나는 등의 갑작스런 위협에도 반응을 보였다. 그에 의하면 식물은 다른 식물들의 출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동물이나 인간이 나타나면 바짝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또한 식물도 인간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기절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 방어의 행동을 한다. 이 현상은 식물을 태워 그 성분을 분석하는 과학자 앞에서 식물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식물을 의도적으로 기절시키거나 최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미국 인디언들이나 티벳의 사냥꾼들이 제물을 사냥하기 전에 의식을 거행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여 그 고기에 공포로 인해 생기는 해로운 화학물 생산을 방지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유태교에서도 볼 수 있다.

백스터는 식물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제비뽑기를 하여 한 사람에게 남이 모르게 식물 두 그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한 그루의 식물을 뿌리째 뽑아 버리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씩 방에 들어가게 하고 뽑히지 않은 식물의 반응을 살펴 쉽게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식물이 일종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으로 인식되었다.

식물들은 유대를 갖게된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백스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스톱워치를 가지고 나가 자신의 행동과 시각을 일일이 기록하여 돌아와 식물의 반응을 기록한 종이와 비교하여 보았다. 놀랍게도 식물의 반응을 기록한 종이는 백스터의 다양한 감정들을 비슷하게 그려내었다. 또한 1,120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식물의 주인이 비행기 착륙시 느끼는 스트레스를 식물도 느끼는 것으로 검류계의 기록이 나왔다.

난초를 키워 본 사람들은 식물에 칭찬과 관심을 쏟아야 잘 자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사실 난초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심지어 우리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기에는 미약하지만 식물들 또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많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의식의 입장에서는 동물, 식물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4)

소(牛)의 흔적 ①

마하 부아스님은 제자들을 단련시키는 일을 수행의 하나로 중시하고 비구로서 계율을 잘 지키는가, 사원의 규정과 단체 생활에 잘 복종하는가를 꼼꼼하고 자상하게 감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서양인 승려에 대해서는 마치 특별 대우를 하는 자식처럼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스승을 찾아가도 좋도록 허용해 왔다. 항상 그러하듯이 누가 떠난다고 해서 법석을 떠는 일도 없고 특기할 만한 행사도 없다. 법(法) 안에 사는 삶이란 바로 그 곳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이다. 마하 부아스님은 "여기에 온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다."라고 할뿐이다.

다른 스승을 찾아갔던 제자가 1년 후 다시 들아왔을 때, 마하 부아스님은 그 곳에 새롭고 훌륭한 법이 있던가를 물었다. "아닙니다. 새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여기 파 반 테드 사원에서도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법은 언제나 바로 여기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서양인 비구는 마하 부아스님의 서양인 제자 가운데 최고 상수인 사니사로 스님의 요사로 찾아가 그가 겪은 일들과 모험담, 새로 깨달은 것들, 수행상의 거창한 통찰 지혜 등에 관해 늘어놓았다. 사니사로 스님은 빙긋 웃었다. "아 참 놀랍네요, 놓아야 할 것이 또 생겼군요." 그 뿐이었다.

그래도 서구인들은 끊임없이 왔다가 또 떠났고 결국 이런 교훈

"불법은 '지금 여기서' 찾을수 있고 부처는 그대 마음속에 있다"

을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

완벽한 삶과 완전한 스승을 찾아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다니는 한 영국인 승려가 파반테드 사원을 찾아 수계했다가 환속하기를 여러 번 거듭했다. 마침내 마하 부아스님은 그를 향해 꾸짖었다. "자기 바랑 속에 개똥을 넣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냄새가 고약하다고 트집이군."

또 절에 들어왔다가 다시 직장으로, 유럽으로, 약혼녀에게로 그리고 다시 절로 왔다갔다하는 다른 영국인 스님이 어느 날 마하 부아스님의 요사에 왔다. 마하 부아스님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말했다. "이 사람 수염 달린 거북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얼마나 더 다녀야 그 거북을 만나게 될꼬?"

또 어느 서양인 승려는 사원 안의 생활에서 오는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마하 부아스님에게 가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수행이 힘든데다 대중 생활에 자신을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로서는 쉽지 않았던지 그는 드디어 주변의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저 스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염불은 왜 해야만 합니까? 혼자 따로 명상 좀 더하면 안됩니까…" 그는 돌대로 되라는 듯이 마하 부아스님에게 다그쳤다. "스님도 뭐 별로 깨달은 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아닙니까. 어떤 때는 무섭게 하다가 어떤 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스님이 깨친 분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하 부아스님은 그 말에 한바탕 웃고, 그러한 그의 태도에 젊은 스님은 재미있으면서도 한편 화도 났다. "자네 눈에 내가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이야. 그대가 깨달은 사람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틀에 내가 들어 맞았더라면 자넨 아직도 부처를 자기 밖에서 찾는 일에 매달려 있었을 테니까. 바깥쪽 어느 곳에도 부처는 없네. 부처는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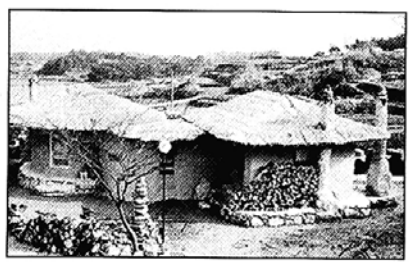
그 스님은 절을 올린 다음, 진정한 부처를 찾기 위해 자기방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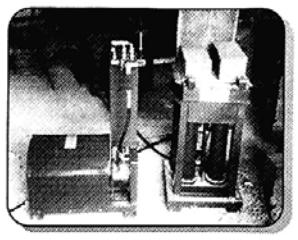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제6차 송광사 '송광암' 여름 수련회 안내

거금도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중엽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창건하신 참선수련 도량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인 "깨치기 전은 참수행이 아니다"라는 정혜결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청정한 남해 바다에서 파도소리를 관하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 련 일 정 표 ●
7월 22일 ~ 8월 22일까지 3박 4일(목~일)

차수	날짜	모집인원	연령	회비
1차	'99.7.22~25	30명	16세~60세	5만원
2차	7.29~8.1	30명	16세~60세	5만원
3차	8.5~8.8	30명	16세~60세	5만원
4차	8.12~8.15	30명	16세~60세	5만원
5차	8.19~8.22	30명	16세~60세	5만원

1. 수련내용 : 묵언, 오후불식, 부처님 호흡법, 활구참선 화두법, 수심결강의, 좌선의,108배, 좁功(선체조), 행선(금장해수욕장, 적대봉, 용두봉)
2. 접수요령 : 이름, 주소, 성별(남·여), 주민등록번호, 직업, 종교, 수련경험, 희망차수, 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수시접수)
3. 준 비 물 : 간편한 차림, 세면도구((수련복, 교재지급)
4. 찾아오시는 길
   1)서울 → 녹동(직통) - 강남터미널 호남선 오전 8시, 9시
   2)서울 → 광주(고속) → 녹동(항구) / 서울 → 순천(기차) → 녹동(항구)
   3)부산 → 대구, 진주, 마산 → 순천 → 녹동
   ☞ 녹동항에서 금진행 배를 타시기 바랍니다.(1시간 간격, 15분 거리)
   ※ 수련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바람.
5. 회비 납부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협: 617073-52-068116 (일선)

주소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 0666)843-8488 팩스 : 0666)842-7307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암 암주 일선 합장

철야 참선정진 법회

복잡한 현대생활의 피로를 벗고
자기 마음을
찾아 보지 않으시렵니까?

●일 시 :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밤9시 - 일요일 05:00까지
●입회비 : 만원 (단 불교신자에 한합니다.)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본사 화엄사 포교당
좋은절 선재정사
(전철3호선 구파발 삼송리역 농협대학 건너편)
전화 0344)962-6690 / 팩스 0344)967-1705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점 하나 획 하나 구도여정

탱화 그리는 보살들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佛母의 맥잇기 열심

'탱화 그리기'를 서원한 여성 불자들이 늘고 있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고행' 그 자체인 '탱화 그리기'는 최근까지만 해도 스님이나 남성의 전담 영역이었다.

스스로 '탱화작가'이길 자처하는 이 여성들은 전승공예대전과 불교미술대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영을(45·광주여고 교사)씨는 97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대전을 갖고 불화의 아름다움을 유럽인들에게 선보였다.

이들은 무형문화재 단청장·탱화장 보유자인 만봉·구봉 스님과 전연호씨 등에게서 10년 넘게 습작기를 보내며 '여성'이기보다는 '예비 장인'으로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탱화를 그리는 '불모(佛母)'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점 한 획을 더하며 정토의 세계로 나아가는 '탱화 그리기', 그것은 구도의 여정이다.











불화연구소 설립 후진양성

박정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후보 박정자(61)씨. 선궁기에만 3천장의 과자를 냈던 습작시절의 열정과 감동이 지금도 붓을 들면 여전할 만큼 불화 그리는 일에 빠진 불모(佛母)다.

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부모은중경'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지금까지 박씨가 그린 불화는 모두 5백여점. 대부분 3대 국보사찰 중 하나인 전남 장흥의 보림사를 비롯 전통공예관 등에 전시되어 있다.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색채의 대작(大作) 불화로 유명한 박씨의 특기는 금니 여래나 보살. 그래서 박씨는 '못지 못할' 일화에서 불화 그리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배우기도 했다.

"작품이 크니까 앉고 앉아 작업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부처님 얼굴에도 앉아야 하므로 처음에는 민망스러웠지요. 그런데 '무심이 바로 불심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니까 민망하다는 생각 대신 환희심이 일더군요."

박정자씨는 현재 고향인 무주에 불화연구소를 세우고 불화 그리기와 후진 양성에 골두하고 있다. 이미지가 다 들리는 3천불을 보시키 위한 기틀을 잡기 위해서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서원이기도 하다.

탱화 속에 역사비평도 담아

고영을 고영을(45·전남여고 교사)씨는 광주에서 19년간 부처님의 얼굴과 사상을 고집스럽게 그려온 탱화작가다. 고씨가 탱화 그리기를 시작한 것은 81년. 대학원 졸업논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본 불화에 감명받고, 광주시 지정 탱화장 고 구봉스님을 찾아갔던게 계기가 됐다.

그녀의 불화 세계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단백 천에 해온 금니 작업을 다양한 색깔의 염색천에 시도하고, 기존 탱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나뭇잎·연꽃·독도·성모마리아 등의 다양한 소재를 자유롭게 수용한 그녀의 작품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다.

고씨가 이런 작품 세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식적으로 설명·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비평적 시각까지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미술계가 그녀의 작품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내년 5월 광주 금호미술관에서 갖게될 개인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고영을씨는 "불화의 현대화·대중화는 전통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탱화와 '기능'을 '예술'로 승화시킬 때 가능합니다"라며 "내년에 열리는 개인전에서 '전통과 현대가 본래 하나'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불화서 색채·구도 배워

원화연 원화연(36)씨는 옛 화승의 초를 밤새워 베끼며, 성물(聖物)의 경계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장인이길 13년간 노력해 온 불모다.

원씨는 '고려불화'와 비견될 수 있는 탱화를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한다. 고려불화는 우수한 안료와 선명한 색채 그리고 자연스러운 구도로 가장 뛰어난 예술성이 표현된 탱화로 꼽힌다.

원씨는 "조형적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담고 있는 탱화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순수 창작예술의 한 분야 즉, 불화로 거듭 태어난 것"이라며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 창작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씨는 천연 안료를 조사·연구하고, 채색 순서를 수없이 실험한다. 또 고려불화의 '초(抄)'를 기본으로 선(線)의 구도를 분석하고, 입체적인 구도 잡기에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 아름다운 불화가 살내를 불심이 깃든 공간으로 꾸미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정자씨의 '금니부모은중경' 연작중 '생자망우은'.



◇탱화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고영을씨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 97년 프랑스에서 열린 초대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

불화에 매료 대학원서 이론 공부

최문정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했지만, 단청장 만봉스님에게서 10여년 탱화를 배운 최문정(32)씨.

"삼라만상을 녹일 듯한 강렬한 색깔과 불화의 꽉 찬 포만감에 끌려 배우게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한 탱화의 오묘함에 매료된 것이다.

기술보다 '도'를 강조했던 스승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최씨는 불국사 무설전 지장탱화를 그릴 때, 매일 불경을 외우고 참선하면서 마음을 닦고 '초'를 대할 만큼 독실한 불자다.

최문정씨는 요즘 작품보다는 '불화이론' 공부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올해 초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 체계적인 불교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 장인은 항상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녀의 지론처럼, 불교미술 석사과정은 그녀의 '화업 수행'이다.

인조안료 대신 석채사용 고집

김성희 98년 불교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성희(31)씨. 그녀의 작품은 명암을 두드러지게 하는 바름질 솜씨가 뛰어나 입체감이 돋보이고,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게 특징이다.

그녀는 유독 전통불화를 고집한다. 인조안료를 사용하는 대신 돌가루로 만든 석채를 쓰며, 구도나 색상에서도 전통불화의 맥을 잇고 있다. 불화의 섬부른 현대화는 자칫 국적없는 그림을 만들기 십상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녀를 가르친 전연호씨의 스승이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석정스님. 전통불화를 잇고자 하는 사조(師祖)의 '고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김성희씨는 대학에 진학해 이론적 바탕을 심화할 꿈을 갖고 있다.

오종욱·이윤호 기자(gobaoou@buddhapia.com)

1962년 단청·탱화장 지정
전승자 500여명…여성 7~9명

우리의 유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탱화는 '신앙'과 '교화'의 뜻을 담고 있는 불교미술이다. 〈신수대장경〉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기원정사 처마 벽면에 본생사등을 그리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부처님 생존 때부터 탱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57년에 만들어진 안악 제3호 고분의 벽면에 불교 미술적인 구름·연꽃무늬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불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372년(고구려 소수림왕)보다 훨씬 이전에 탱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탱화는 통일신라 때에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고려 때는 섬세하고 우아한 불교미술로 극치를 이루었지만, 조선조에 이르러 탁한 원색과 경직되고 도식화된 모습으로 쇠퇴했다.

1900년대에는 산중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금어)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졌다. 문화재보호법이 재정된 1962년부터 탱화는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탱화장으로 각각 지정·보호되고 있다. 현재 단청장·탱화장 전승자는 50여명(문화재청 집계)으로 추산되며, 이들 가운데 여성은 7~9명에 정도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6호 계신리 마애불.

마애불을 찾아서

산이 많고 바위가 많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바위나 절벽에는 선각이나 돋을새김의 기법으로 불 보살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 조각의 계파 연구나 시대연구에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는 마애불은 불상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처처에서 자비로운 미소로 불자들을 반겨주고 있는 마애불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대한민국불자포교사진연합회원들이 찍은 이 마애불들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깊은 신심이 불자들에게 경건한 귀의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편집자 주〉

계신리 마애불

당당한 모습에 미소 감돌아
고려초 조성…3중 원광 특징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6호인 이 마애불은 남한강을 굽어보고 서 있는 권권한 바위에 도드라지게 새긴 것으로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어 고려초기를 대표할 만 하다. 원만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감돌고 있고 삼진 양 볼은 다소 형식화가 엿보인다. 그러나 음직하게 표현한 육계라든지 3중의 원형 두광과 그 둘레에 새겨진 화염문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연꽃대좌위에 당당히 서 있는 신체는 생생하고 탄력감이 넘친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불의(佛衣)가 양쪽 팔에 걸쳐져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U자형을 이룬 점이나 내의에 보이는 띠매듭과 왼쪽 어깨를 감싼 가사의 표현 또한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오른손은 올려 어깨쪽으로 외장하고 왼손은 옆으로 곧힌 특이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다소 형식화된 면은 보이지만 당당한 모습과 유려한 의문(衣紋), 세련된 연꽃 대좌 등은 고려시대의 이 지방불상양식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사진·글=불자포교 사진연합회 제공

불자포교 사진연합회

가정에 부처님사진 모시기 전개

사진을 사랑하고 사진으로 불교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원력을 가진 불자들 20여명이 모인 신행단체가 대한민국불자포교사진연합회(회장 고준은, 이하 '포교사진연')이다. 지난해 4월 창립한 포교사진연이 특히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불자가정에 부처님사진모시기'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마애부처님 촬영'이다. 원만한 상호의 부처님을 가정마다 모시면 행동도 경건해지고 한층 불심도 살아날 것이라는 취지에서 홍성 미륵암의 마애부처님 사진을 12×14 사이즈로 돌아 원하는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지금까지 배포된 수량은 30여점. 포교사진연 고준은 회장은 "초야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마애불을 발굴, 적극적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또 어린이포교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귀엽고 천진한 상호의 부처님을 촬영, 어린이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올 가을에는 첫 회원전도 열 계획이다. 포교사진연은 사진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1-337-7312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㉔

或曰眞心 平生不生耶
혹왈진심 평생불생야
曰眞心 有時施用 非逐境生
왈진심 유시시용 비축경생
但妙用遊戱 不昧因果耳
단묘용유희 불매인과이

물었다. "진심은 평상하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했다. "진심은 때때로 베풀고 작용하지만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묘한 작용으로 유희하므로 인과에 매이지 않을 뿐이다."

15. 진심의 소재(眞心所往)

或曰未達眞心人 由迷眞心故
혹왈미달진심인 유미진심고
作善惡因 由作善因故 生善道中
작선악인 유작선인고 생선도중
由作惡因故 入惡道中 逐業受生
유작악인고 입악도중 축업수생
其理不疑 若達眞心人 妄情歇盡
기리불의 약달진심인 망정헐진
契證眞心 無善惡因 一靈身後
계증진심 무선악인 일령신후
何所依託耶
하소의탁야

다니는 고혼(孤魂)처럼 여기므로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하여 의탁할 데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或曰然
혹왈연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다.

曰達性則不然也 一切衆生 迷覺性故
왈달성즉불연야 일체중생 미각성고
妄情愛念 結業爲因 生六趣中
망정애념 결업위인 생육취중
受善惡報 假如天業爲因 只
수선악보 가여천업위인 지
得天果 除合生處 餘竝不得受用
득천과 제합생처 여병부득수용
諸趣皆爾 旣從其業故 合生處爲樂
제취개이 기종기업고 합생처위락
不生處爲非樂 以合生處爲自
불생처위비락 이합생처위자
己依託 不生處爲他人依託
기의탁 불생처위타인의탁

대답했다. "자성(自性)에 통달하면 그렇지가 않다. 모든 중생은 자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과 애욕으로 업을 짓는 것이 인이 되어

중생은 망령된 생각과 애욕으로 六趣에 태어나 선악의 과보 받아

물었다. "진심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의 인연을 짓습니다. 선인(善因)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악인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업(業)을 따라 생을 받게 된다는 그 이치는 의심이 없습니다만 만약 진심을 통달한 사람이라면 망령된 생각이 다 없어져 진심에 계합되고 증득되었으므로 선악의 인(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 영혼은 어느 곳에 의탁합니까."

曰莫謂有依託者 勝無依託耶
왈막위유의탁자 승무의탁야
又莫將無依託者 同人間飄零之薄子
우막장무의탁자 동인간표령지탕자
似鬼趣無主之孤魂 特爲此問
사귀취무주지고혼 특위차문
求有依託耶
구유의탁야

대답했다. "의탁할 데가 있는 것이 의탁할 데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냐. 또 의탁할 데가 없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 다니는 방탕한 자와 같이 보거나 귀신 세계에 떠돌아 여섯 갈래의 세계(六趣)에 태어나서 선악의 과보를 받고 있다. 가령 천업(天業)으로 인을 삼으면 반드시 천과(天果)를 받을뿐 제가 태어날 합당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 다른 세계도 다 그러하여 이미 그 업을 따르기 때문에 태어날 곳으로 낙을 삼고 태어나지 않을 곳은 낙이 아니라고 여기며, 태어나기에 합당한 곳을 자기의 의탁처로 삼고 태어날 수 없는 곳은 타인의 의탁처로 삼는다.

所以有妄情則有妄因 有妄因則有妄果
소이유망정즉유망인 유망인즉유망과
有妄果則有依託 有依託則分彼此
유망과즉유의탁 유의탁즉분피차
分彼此則有可不可也
분피차즉유가불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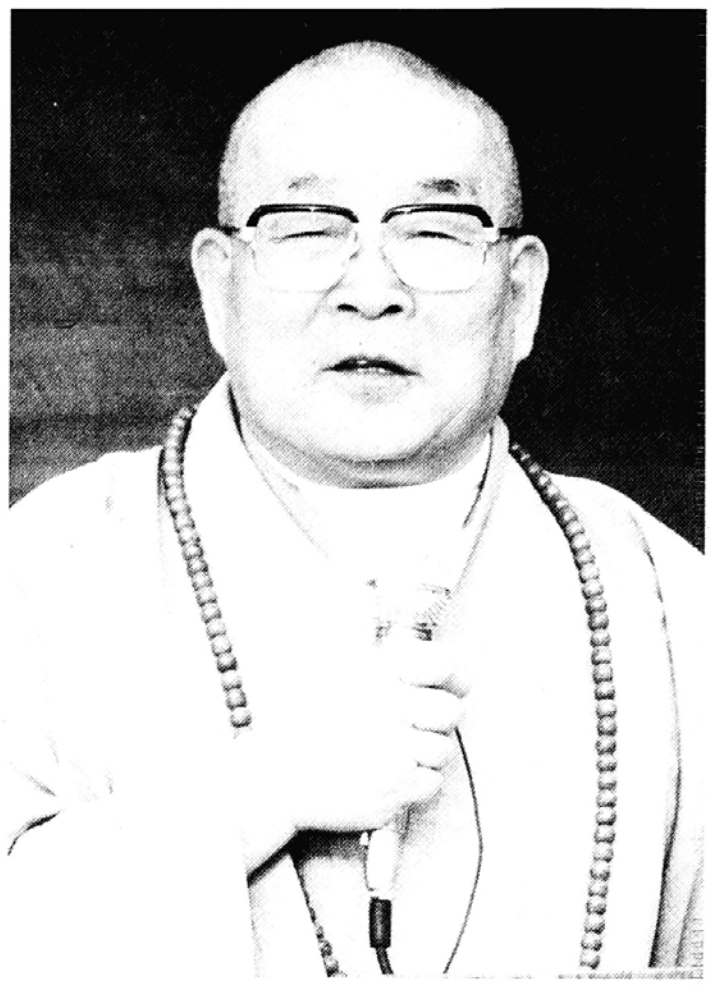
그 이유는, 망령된 생각이 있으면 망령된 인연이 있게 되고 망령된 인연이 있으면 망령된 결과가 있으며, 망령된 결과가 있으면 의탁하는 데가 있게 되며, 의탁하는 데가 있으면 저곳, 이곳을 나누게 되고, 저곳 이곳을 나누면 옳다, 그르다 함이 있기 때문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탐진치 삼독 여의는

원명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속가집은 김천역 부근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신자다보니 스님들이 종종 들렀습니다. 당시 청암사 수도암 정각토굴에 주석하셨던 은사 구산(九山 · 前송광사 방장)스님도 가끔 오셔서 공양도 하시고 부모님과 법담도 나누곤 하셨지요.

스님은 5척 단구인데도 어찌나 의젓하고 당당하신지 어린 제눈에는 아주 큰 도인으로 보였습니다. 오실때마다 저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짓기도 하셨는데 아마 사제의 연(緣)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어머니의 권유로 수도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남2녀중 막내아들인 저를 주저없이 출가시킨 것을 보면 어머니의 불심이 깊은 탓도 있겠지만 구산스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컷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암에는 참선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린 동자승이 들어오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같은 간식거리가 생기면 저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예경과 참선하는법을 알뜰하게 배울수 있었고 이듬해 송광사로 가서 사미계를 받음으로써 구산스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송광사의 가람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법당과 전각이 빼곡이 들어차있어 비를 갖지 않고도 해우소에 갈수있을 정도였으니까요.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대가람은 어린 사미의 마음에 신심의 불을 당기기에 충분했었지요.

그러나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 사찰이 전소되고 스님들이 잡혀가 고문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송광사는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량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송광사 조실이자 구산스님의 은사이신 효봉큰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가야산총림의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어 제자들과 함께 해인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인연이 아닌지 6.25 전쟁이 터져 해인사에서도 머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부산 동래 금정선원으로 피난을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살지못하고 통영의 용화사 도솔암에 정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약10여년간 효봉큰스님을 직접 시봉하게 되는 복연을 누리게 됐습니다. 효봉스님은 거기서 충무 미래사를 창건해 주석하시면서 조계종 정화불사에 간여하시다가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에 추대되셨습니다. 이후 팔공산 동화사에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효봉스님이 금당선원 조실로, 구산스님은 주지로, 저는 동화사 포교당인 반월동 보현사 원주를 맡아 지역불심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도솔암에서 효봉스님을 모실 때 손상좌인 저에게 친필 선경어(禪鏡語)를 내리셨는데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력
- 30년 경북 김천 生
- 43년 경북 금릉군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4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수지
-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율사를 계사로 비구 · 보살계 수지
- 62~68년 대구 보현사, 진주 연화사주지등 역임
- 78년 조계종 제5 · 6대 중앙종회의원
- 79년 제27대 송광사주지
- 81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초대회장
- 88년 불교대구교육원 이사장
- 89년 불교대구교육원 원장
- 95년~현재 대구사원주지 연합회 회장
- 97년~현재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이사장
-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이사장
- 68년~현재 대구 관음사 주석

게으름은 심신 병들게 합니다 맡은일 땀흘려 노력하면 하심공부 저절로 되는 것

請看東流水(청간동류수) 滾滾無停時(곤곤무정시)
參禪若如是(참선약여시) 見性何得遲(견성하득지)

동으로 흘러가는 저물을 보라 도도히 흘러 멈추지 않네
만일 참선을 이같이 하면 견성이 어찌 더딜까

은사이신 구산스님은 수도암토굴에서 정진할때도 직접 밭을 일궈 양식을 조달할 정도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행을 보였고 '일 수좌'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가람불사나 울력에 솔선수범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좌들도 자연히 게을러질수가 없고 일하는 가운데서 하심(下心)을 배울수 있었지요.

또한 구산스님은 송광사에서부터 해인사로 또 동화사로 스승인 효봉스님을 모시고 직접 수발을 들 정도로 효성이 지극해 '효(孝) 상좌'란 별명도 들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인 만큼 효행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가 있습니다.

나는 효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지요. 효사상과 관련해서 직접들은 얘기를 한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사는 한 보살이 우유배달을 나갔다가 놀이터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 한분을 발견하고는 인사를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도 대답이 없이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자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한후 연락처를 발견할 요량으로 호주머니를 살피니 쪽지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쪽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시되 여자음성이 들리면 끊고 남자음성이 들리면 통화하십시오"라고 적혀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여자음성이 들려서 전화를 끊었으나 한참 후에 다시 전화를 하니 남자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아들이었는데 잠시후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제 1 편 : 부처의 생애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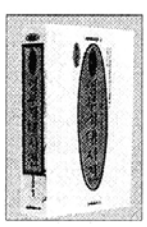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양장 신국판 정가 40,000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사주학 핵심비결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혜서 명리진평 양장 신국판 정가 30,000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자식가정문제등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 신/ 양장본
/4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 전수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레이키(Reiki, 靈氣)는 인류의 건강과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귀중한 우주 생명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자원을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레이키법 입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고유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단시일내에 氣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공법에도 없고 오직 레이키법에만 있는 어튜먼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비법중의 비법입니다. 여러해 동안 기공을 지도해 온 한 기공사는 나(박희준)에게 레이키를 전수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여러 해 동안 피 나는 수련을 해야 氣치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알고 있다. 그래서 레이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면서 두 손을 내저었다. 손에서 자유롭게 氣치료 에너지가 흐르게 되려면 얼마나 힘든 수련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나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한 번 레이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평범한 가정 주부 마저도 그 자리에서 氣치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는 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레이키법은 모든 기공인이 노심초사해 추구하던 바로 그 기적의 속성식 기공법임이 틀림없다. 모든 수련자가 레이키를 전수받아 자신들의 수련력을 촉진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레이키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지식 수준에 달려 있지도 않고 명상을 할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지도 않으며, 여러 해 동안 기공을 수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가 어튜먼트를 해 드리는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계시기만하면 됩니다. 레이키 에너지는 레이키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순간 치유 경험, 비젼이 보이는 경험, 전생 경험, 메시지(계시)를 받는 경험 같은 신비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눈이 열린다, 투시 능력이 생긴다, 직관 능력이 생겨난다 등의 심령 능력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레이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레이키마스터 박희준

·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氣와 정신세계 분야 번역 저술가로서 번역서 1백권 이상 저서 10권 이상을 낸 저술가이고 기공 연구가입니다.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갈수록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공이 필요한 것임을 절감하고 바른 현대인이 적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속성식 기공법을 찾아 헤매던 끝에 1990년에 들어와 갑자기 세계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레이키와 만났습니다. 도합 9-10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제의 레이키 지도자, 영국제의 레이키 지도자, 오스트랄리아제의 레이키 지도자에게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개발된 현대식 레이키법, 1995년에 미국의 레이키 마스터 윌리암 랜드가 새로이 개발한 카루나 레이키(일부 질환의 치료와 영성의 개발에 더욱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법을 두루 전수받아 세계의 「레이키 기술」을 폭 넓게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를 겸하고 다채롭게 레이키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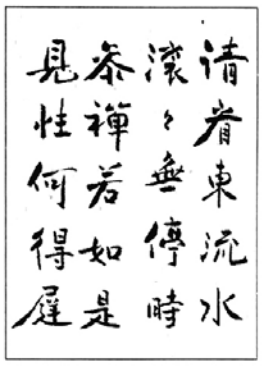
레이키는 미국 유럽 등의 여러나라에서 효과성이 높음이 이미 증명되어 있으며 아주 대중적인 힐링(요법)의 기법으로서 널리 일반인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래로는 미국 종합 병원의 간호사들이 많이 레이키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이키법의 전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제1단계 : 2 일 (※수시접수)
이 단계는 레이키를 처음으로 몸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제 2단계 + 제 3단계 : 2일, 이 단계는 레이키의 파워를 훨씬 높이고 생활의 각 방면에 레이키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수시접수)
▶ 전문임상응용단계: 도합4일 정도. 이 단계는 전문적 레이키 요법가가 되려는 분을 위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2-3일 전에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하며, 시간 사정이 맞지 않는 분에게는 개별지도도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큰스님 수행한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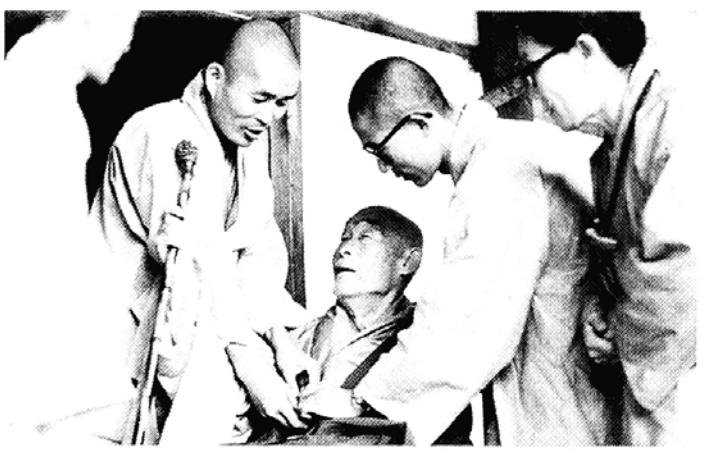
마음의 출가를 합시다"



◀효봉스님이 원명스님에게 내린 친필선경어.

▼1962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조실 효봉스님(사진 가운데)을 시봉하는 원명스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동으로 흐르는 저 물
도도히 멈추지 않네
참선을 이같이 하면
견성이 어찌 더딜까"



인과 믿고 계율 지키며 일념 정진해야
효는 백행의 근본이며 사람됨됨이 척도

"아주머니, 사실은 집사람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나가시는데 아주머니께서 모셔 주실수 없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물론 집을 한채 사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이 보살은 그후 할머니를 부처님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의 부모도 모시면 이렇듯 복이 오는데 자기 부모를 모시면 오죽하겠습니까?

당장 돈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가족간의 인내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집안은 멀지않아 불화와 공허감으로 불행해집니다. 요즘 늙고 못난 부모, 병들고 냄새나는 시부모라고 산골짜기에 내다버리는 일까지 발생한다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인 것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효심과 함께 삶의 좌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하심(下心)입니다. 구산스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 일반신도들에게도 늘 문호를 개방하셨는데 이러한 개방성은 국경도 뛰어넘어 후일 송광사에 국내 최초의 국제선원을 개원하는 근본 소인(素因)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9년 가을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문을 모아 'Nine Mountains(=九山)'를 출간하셨고 미국 LA에 고려사를 개원하셨습니다. 이런 스님은 자신을 돌사자(石獅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조계산 숲속에서 채마밭이나 매다가 오가는 운수납자들의 묻는 말에 응답이나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간의 행로를 물으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네거리의 돌사자 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시는 것입니다.

이같은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담고 수행해오지만 너무나 커서 제대로 흉내내기도 쉽지 않더군요.

도를 닦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합니다. 출가에는 몸으로 하는것과 마음으로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절에 들어가서 삭발을 하고 장삼가사를 수하는 것은 몸의 출가요,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것은 마음의 출가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출가라 할 수 있겠지요.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탐진치로 가득차 있다면 이는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것과 같아서 영원히 코끼리의 상아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실상 세간에서 처자식을 거느리고는 마음의 출가를 이루기가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경지로 가는 과정에는 50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살10지(地)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8지까지는 올라가야 주변환경의 지배를 받지않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남녀간의 애정행위의 결과로 생긴것인 만큼 애욕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들은 어머니 손에 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고분고분한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내가 대들거나 몰아부치면 남편은 밖에서도 기를 펴지못하게 되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간에서 도를 깨치기란 무척 어렵지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반이나 스승같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가정이 곧 수행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보면 마음에 애증을 여의고 복잡한 사량심을 놓아버린자가 진정한 출가사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68년도에 이곳 관음사 주지로 왔는데 당시 새내기 보살이던 사람들이 이젠 할머니가 다 되었어요. 이미 이승을 하직한 사람도 있고 남아 있는 분들도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달리 늙는게 아니라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니까 늙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무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카필라성을 떠난 것은 어떤 인간도 생노병사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대명제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법을 묻고 갖은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오늘날에도 고행하는 수행법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효봉스님이 인도에 가셨을때 입니다. 어느집에 당도하니 6명의 수행자가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돼서 3~4일간 같이 앉아 참선을 했는데 아주 지독할 정도로 움짝달싹도 하지 않더랍니다. 이에 효봉스님은 "내별명이 한번 가부좌를 틀면 옆에서 떠들던지 난리가 나던지 꼼짝않고 좌선한다고 해서 '절구통수좌'인데 인도의 고행자들도 아주 만만치 않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참구하라는 가르침이신 게지요. 부처님은 이런 온갖 고행을 하고도 깨달음을 얻지못하자 결국 보리수아래서 중도의 법(中道의 法)으로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는데도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인과를 깊이 믿어야 합니다. 인연으로 인한 과보의 상응함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결정된 업은 실제로 피할수 없는 것임을 알고 막행막식하는 것을 삼가야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믿는 것은 연기의 도리를 밝혀 아는 전제가 되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은 있지만 다만 망령된 생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능히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항상 동요하고 있으며 생각생각에 분별심을 내어 업장을 두텁게 하니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도리를 굳게 믿고 일체를 놓아 버려서 사사로운 정과 망념이 자기의 참된 본성을 더럽히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의 수행방편을 결정해서 곧 바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화두선도 좋고 염불도 좋고 경학도 좋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두들기기만 한다면 결코 도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며 금생에도 또 내생에도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上〉



조정봉 〈서울시청 불심회장〉

책방서 '불교대전' 만남이 불법인연
구청 불자모임 심월회 결성 신행

1980년 봄은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였다. 동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나는 직장에서는 사정의 태풍으로 공직기관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기에 가정의 우한까지 겹쳐 이래저래 고달픈 시간의 연속이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나는 흥미있는 책으로나마 어려운 고비를 넘겨 볼 생각으로 퇴근길 서점 문을 두드렸다. 마땅한 책을 선택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 서점주인은 한용운스님의 〈불교대전〉을 불쑥 내밀었다.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여 구입했지만 막상 책장을 넘겨 보니 생소한 불교용어들이 어지럽게 했다. 처음에는 대충보아 넘기려고 했으나 왠지 손길이 자꾸 갔다. 게다가 고액의 책값을 생각하니 독파해뵈야 겠다는 욕심이 났다. 결국 불교용어의 이해를 위해 불교사전을 구입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난해한 불교용어들의 뜻을 하나씩 이해해가며 읽는 재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800쪽의 이 책을 읽는 동안 만생각을 잊어 버렸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기는 했지만 생각나는 것은 팔정도(八正道)뿐 그저 허공속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그 무렵 각 구청 부서별로 독후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사회정화위원회의 지시가 있었다. 우리 부서에서는 우연히 내가 결정되어 〈불교대전〉을 제목으로 팔정도 사상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 제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선됐다며 강연준비를 하고 상을 받으러 오라는 전갈이 왔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내가 대중앞 단상에서 어떻게 팔정도를 설파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같았다. 며칠을 두고 고민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안절부절하던차에 수개월전 어떤 노신사가 나에게 대행스님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났다.

나는 즉시 대행스님을 찾아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파하면 되겠느냐고 자문을 청했다. 가부좌를 하고 한동안 감고 계시던 스님은 눈을 뜨시면서 '주인공에 맡겨라' 하시는 것이었다. 도대체 주인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한동안 스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단상에 서면 입에서 나오는대로 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왔다.

결국 내 나름대로의 느낌과 생각으로 강연을 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무슨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겨우 마쳤는데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대이상의 반응에 놀라 사무실에서 식을 땀을 닦고 있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찾아와 "어떻게 불교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아느냐, 구청에 뜻있는 불자가 10여명 정도 있으니 한번 모이자"라고 제안했다.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인가. 나는 불교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는데 세상은 참 묘한 것이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안다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정말 웃음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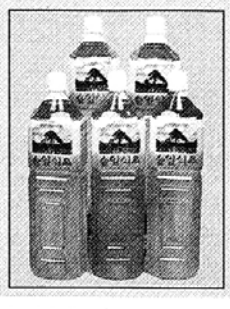


결국 7월 무더운날 10여명의 직원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행생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처럼 모두들 적극적이었고, 그 자리에서 불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를 회장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불교를 모르는 자가 불교모임 회장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후 우리들은 창립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가졌다. 단체이름을 무엇으로 하고, 창립법회는 어디서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다가 고명한 스님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나는 다시 대행스님을 찾아가 불자모임의 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이때도 가부좌를 하고 한동안 계시더니 모임이름을 '심월회(心月會)'로 하고 창립법회는 한마음선원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무덥던 여름날 불자공무원 48명이 모여 한마음선원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나는 이렇게 불교에 입문해 신행활동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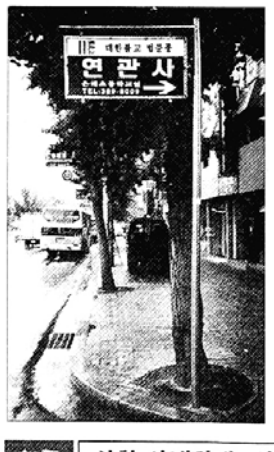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수강생 모집
● 교재 - 사주정해 1권 · 2권
저자 최 학 림
본 보현정사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선착순 10분 모집합니다.
※ 본교재 사주정해 1권 · 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 개 강 일 시 ◆
1999년 6월 17일 오후 2시
◆ 기 간 ◆
주2회 매주 화, 목 오후 2시~4시
(3개월 과정)
◆ 장 소 ◆
보 현 정 사
보 현 정 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24/3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200m거리)
문의전화 (02)952-7229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설법방법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합니다.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설법, 강의, 강연, 화술, 사회,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修辭) 원고작성, 상담기법등
■ 연 수 안 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사후관리 : 정회원 대우(매달 1회 모임)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숲 哲 솔 박사
♣ 문의 및 신청 ♣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솔잎식초
★ 발명특허 획득 제 065147호 ★
식초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의 영양가는 원료나 제조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솔잎식초는,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赤松)에서 채취한 토종솔잎만을 전통옹기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순수 자연발효공법으로 숙성시켰으며, 깊고 은은한 맛과 향은 식초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독특한 제품입니다.


○제품명 : 솔잎양조식초 ○영업허가 : 여주제20호
○원료명 : 솔잎 100% ○총산도 : 4° ○용량 : 1.5ℓ
▶온라인 : 국민은행 023-05-0035-409 김삼경
♣ 제조원 : 삼 송 식 품
♣ 문 의 : 솔잎건강연구소
휴대폰 011-389-9595, 전화 (02)2296-5151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 × 40cm
- 그외 지역 110cm ×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 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혁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전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가람의 장면들 8

선운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맞배지붕 형태로 백제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선운사 대웅전. 한국건축의 아름다움인 건물사이 여백이 근래들어 소실돼 아쉬움이 남는다.

여백미 사라진 자리 동백꽃만…

고창 선운사만큼 시심을 자극하는 절도 드물었다. 미당 서정주는 "선운사 골짝기로 / 선운사 동백꽃을 / 보러 갔더니…"로 시작하는 '선운사 동구'를 명시를 남겼다.

그러나 동백꽃 뿐 아니었다. 웅장한 대웅전은 지면에 붙은 듯, 이른바 백제계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품이었고, 휘어진 들보들의 만세푸는 민중적이면서도 종교적인 희열로 가득한 건물이었다. 건축에 능통한 시인이 있었다면 선운사 건축의 역동적 에너지와 광화로운 공간을 소재삼아 또 다른 명시를 남겼을 것이다.

선운사에는 두 개의 중요한 불전이 있다. 예의 대웅전과 대웅전 서쪽의 영산전이다. 대웅전이 물론 규모도 크고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맞배지붕을 하고 옆으로 길쭉한 두 건물은 서로 닮은 형제와 같이 동서로 나란히 서 있다. 그 가운데 희닥하게 놓인 노전건물이 있었다. 아마도 대웅전과 영산전 두 전각을 모두 관리했던 노전스님의 거처였으리라. 이 노전채는 관리상 두 불전 사이에 끼워넣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두 불전의 마당을 나누어 주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선운사 마당은 동서로 길쭉하다. 자칫하면 황하고 멍청한 마당이 되기 쉬웠으나, 약간 돌아앉은 노전채가 긴 마당을 두 개로 쪼개어 한 부분은 대웅전에, 다른 한 부분은 영산전에 속하도록 시각적으로 구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언젠가 노전채를 철거하고 말아 선운사 마당은 염려대로 비례가 맞지 않는 멍청이가 되어버렸다.

만세루의 서쪽에도 ㄱ자형 요사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승방 내부에 청정한 대방을 가진 고급의 요사채였다. 마치 묵언의 명상에 잠긴 듯한 근엄한 표정으로 마당을 감싸며 선풍(禪風)을 물씬 풍기는 명품이었다. 제대로된 승방 건물로는 몇채 남지 않은 희귀건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승방도 철거되고 말았다.

선운사에서 사라진 것은 두채의 요사채만은 아니다. 길뚝했기 때문에 아늑하고 광화로왔던 마당의 분위기는 사라졌고, 더욱 몰려든 관광객들의 소란만 가득한 곳이 되었다. 마당과 하나가 되어 넓고 풍요로웠던 대웅전과 영산전의 영역성은 사라지고, 운동장 같이 뻥한 마당에 두 건각만 덩그러니 남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폐허가 된 절터가 한두곳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폐허화된 절터에는 원래의 흔적이 남고 땅의 자취가 남았다. 그래서 폐허 위에서 온갖 역사적 건축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운사의 폐허는 일절 흔적마저 사라져 버려서 폐허인 것조차 모르게 한다.

노전·요사채 철거로 마당은 비례 맞지않고 아늑한 분위기도 잃어

한국의 건축이란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여진 마당이고, 마당과 건물이 하나로 엮어진 조합이다. 문인화의 난초 그림을 감상할 때, 난초잎의 흐드러짐이 주체가 아니라 잎줄기 사이의 여백이 주체이듯이, 한국건축의 주체는 건물 사이의 여백이며, 여백과 건물과의 관계이다. 선운사에는 이제 이 여백의 관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운사의 건축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은 셈이다. 아무리 대웅전과 영산전 건물이 위대한 작품이라 해도 부분에 불과하다. 선운사라는 가람의 전체성은 사라지고 건물이라는 부분만 남은 꼴이다.

한양성의 관문이었던 숭례문이 이제는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의 외딴 섬이 되어 남대문으로 전락했듯이 선운사의 대웅전과 영산전은 빈 공간으로 둘러싸인 또 다른 섬이 되었다. 어디 선운사 뿐이랴? 중국 절같이 우스꽝스레 된 수덕사, 사나운 들사자가 포효하는 해인사의 구광루 마당, 승보사찰의 전통을 압도하며 우뚝 선 송광사의 대웅전, 계곡의 건축적 질서를 메워버리고 새로 들어선 고운사 대웅전… 그리고 미처 비관도 못본채 사라지고 변형되어 가는 수많은 작은 사찰들. 모두가 건물을 살리려다 건축을 잃어버린 실패작들이다.

이제 선운사에는 동백꽃만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가람의 건축도 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가람이란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나오자일 뿐이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의 변화만이 가치를 갖는다. 천여년간 축적되어왔던 전통을 하루 아침에 무시하면서도 전통사찰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전통적 질서를 잃지 않아왔던 고귀한 앞 스님들의 심미안은 언제나 부활할 것인가.

TV인터넷 불교 정보화 첨병

컴퓨터 몰라도 인터넷 '척척'
여럿이 사용…법회 동영상 중계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또한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을 할수 있게됐다. 컴퓨터 없이 TV를 통해 인터넷을 즐기는 것이다. 작동도 TV를 보듯 리모콘 조작으로 간편하게 한다. TV에 인터넷이 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가능케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접속 절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뉴스. 특히 평균 연령층이 높은 불자들은 TV로 인터넷에 뜨는 모든 불교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케이블 TV나 비디오를 보려면 TV에 단말기를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TV인터넷도 TV에 '인터넷 단말기'를 달면 된다. 큰 TV 화면으로 여럿이 함께 볼수 있고, 필요한 정보는 화면인쇄도 가능하다. 불교관련 중요한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제공도 할 수 있고 동시에 디지털화 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 놀라운 성능은 8월부터는 최첨단 동영상기능이 개발돼 TV방송국처럼 TV인터넷을 통해 전국중계방송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신도 교육을 할 때나 해외 신도관리에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할 수 있고 중요한 법회를 전국 사찰과 신도가정에서 TV인터넷 생중계로 볼수 있게 된다. 또한 큰스님 육성법문을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5분안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국민 정보화를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보세계에서는 TV인터넷이 컴퓨터를 대체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인터넷을 개발한 (주)홈TV인터넷 대표 이장욱씨(33)는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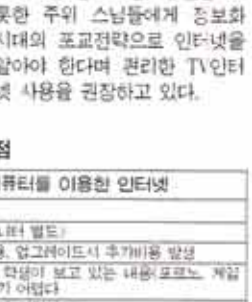
지식 정보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정보의 대중화와 혁신적인 포교방편으로 TV인터넷 보급불사를 벌이고 있다. 상담 문의 (02)732-1520

위영란 기자(yryu@buddhapia.com)



◇컴퓨터를 몰라도 TV를 보듯 간편한 리모콘조작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TV인터넷 사용하는 종회의장 법등스님



매일 1시간씩 이용 불교 정보화 선구

"정보화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를 지켜만 볼수 없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정보운영 능력에 따라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계도 정보화시대를 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TV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스님은 하루 평균 1시간 인터넷 항해를 해 불교정보를 비롯해 사회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적인 워드작업 정도는 해왔으나, 인터넷으로 사회 흐름이나 국제사회 추이를 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종단도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왔는데, TV인터넷을 알게돼 설치하고는 아주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종회의원스님들을 비롯한 주위 스님들에게 정보화시대의 포교전략으로 인터넷을 알아야 한다며 편리한 TV인터넷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TV 인터넷과 컴퓨터 인터넷의 차이점

구분	TV 인터넷 단말기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법 및 설치	쉽다	어렵다
가격	30만원대	100만원대(모니터 별도)
운영체계	프로그램 자동 업그레이드 무료 업그레이드	Win95 등 이용, 업그레이드시 추가비용 발생
설치장소	TV가 있는 곳(거실, 응접실). 온가족이 공동의 주제를 경험하고 이야기 할수 있음. 전천후 정보 접속	주로 공부방. 한명이 보고 있는 내용(포르노, 게임 등)을 통제하기 어렵다
전화 커넥 인터넷 접속시간	6초 이내	3분 이상(Win95 부팅시간)
교육용프로그램 제공	홈TV 인터넷에서 업선 제공(시사영어시, 교학사등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제공)	학생 각자가 정보 습득
인터넷 접속방법	전화선, ADSL, 케이블망	전화선, ADSL, 케이블망
사용 언어	한글,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전세계 언어 지원	한글, 영어
주요 사용계층	교사, 학생, 학부모	학생
자료입력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유선 키보드, 유선 마우스
음향	TV 스피커(또는 오디오 컴포넌트) 사용	소형 스피커 이용(음단)
IC카드 입력	가능	불가능
고장빈도	반영구적이고 전고장이 없다	자주 시스템이 다운되고 바이러스등 외부의 영향때문에 전고장이 많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주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기부터 알아야 우주 만물만생과 통해

외국인에 불법전하고 싶어요

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스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스님의 중생에 대한 한량없는 자비심에 감사드립니다. 타종교 외국인에게 불법을 전하려 하는데 독실한 신자입니다.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일체법이 꿈같고 환상인줄 알지만요.

답 예전에 가톨릭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다가 보니까 의심이 나더랍니다. 왜 의심이 났느냐? '내가 잘못해 놓고 저 신부님한테 떠다 말기면은 내 죄가 없어질까?' 하는 의심이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을 안위시키고 그랬을 뿐이지 그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딴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을 뺏어갈 수도 없고 행복을 갖다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요. 이 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자 광대무변하고 묘하게, 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고 바른 생각으로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대장부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거지 맨날 거지로 그냥 이 나무가 저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에너지 쪼금만 주세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다 죽게 됐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만, 나 살게끔 주세요.' 이러구 빈단 말입니다. 지금 기복으로 믿는 분들 다 안 그럽니까? '그저 욕심도 안 부리겠습니다. 쪼금만 주세요.' 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빼놓구 타의에서 구하니까 저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에너지를 줍니까? 자기 뿌리만이 에너지가 가능하죠. 그러니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구요. 오직 너의 뿌리만이 너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으니 너의 뿌리를 믿고 의지하라고 일러주세요.

실적 높이려는 욕심 있는데…

문 큰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실천하려 노력하는 부산의 청년입니다.

큰스님 법문중에 무심이 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하셨고, 또한 생각이나 마음내지 않으면 송장이라고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영업적인 성격이 강한데 항상 관하면서 일을 좀 잘해보려고 하다보면 어느새 끄달려서 괴로워하게 되고, 그러다가 문득 무심법문이 생각이 나서 되는 것도 거기, 안되는 것도 거기, 하면서 잘 하려는 마음까지 다 놓고 할 일만 하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지내니까 희안하게 잘 풀리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업무가 무계획하고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고객에게 소홀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잘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도 놓고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요.(그러면 무심이 안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가르침 주시면 반드시 실천하여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답 자기가 하는 일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놓으면 다 해결을 해준다. 그러니 믿고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져올 때는 네가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생겼지 않느냐. 그리고 둘째는 너로 인해서 생긴거니까 주인공만이 해결을 한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구 거기 아예 그냥. 믿으면은 그렇게 여러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걱정도 되지 않아요. 믿으면, 그런데 못 믿으니까 걱정이 되고 뭐 다 파산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이런 거죠. 정말 믿는다면 파산 아니라 생명이 지금 끊어진대도 하나도 걱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무심으로 말긴다면 무계획적이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몰록 맡겼다면 더 계획이 서고 적극적이 될 텐데, 사량심이 불어 들아가니까 오히려 더 잘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까지도 놓아야 합니다. 걱정이 된다는 건 벌써 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가서 벌어서 먹여 살리게 된 놈도 그 놈이고, 가난하게 사는 놈도 그 놈이고 믿는 놈도 그 놈이고 안 믿는 놈도 그 놈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일치해서 모든 것을 규정적으로 믿고, 죽든 살든 거기에 놓지 못하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된다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벗어나서 다 놓을 수만 있다면, 첫째는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둘째는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셋째는 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은 아래 위를 다 통일되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게끔 되니깐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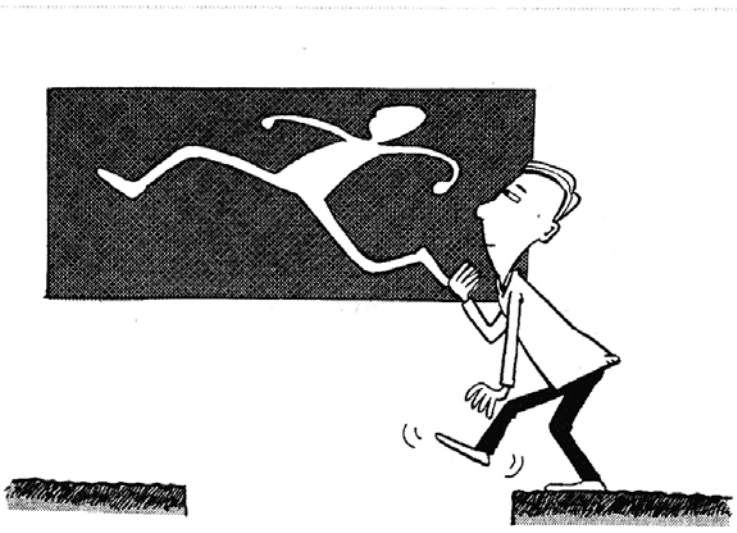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을 나처럼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사랑"

"자기 뿌리만이 자기 이끌수 있으니 주처인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면 자유스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문 신행 생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것 같고요,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아닌 숙제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요즈음 제가 다스리지않고 그저 받기만하는 또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식주 문제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 고독, 사람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부모와 형제간의 사랑이 아닌 남녀간의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어떤 것이 진실한 진정한 사랑인지요.

답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참, 누구도 믿을 게 없다고 그러죠, 자식이고 누구고 믿을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들으면 섭섭할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자식도 일 년 이태, 삼 년만 드러누웠어 봐요. 어떻게 되나? 또 부모가 이태 삼 년만 드러누웠어 봐, 어떻게 돼나. 서로 다 똑같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다 소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물질적인 것은, 일체 만물이 다 물질적인 것은 다 변질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못된다는 얘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가 속아? 아니 여자들은 천신 만신 섬중하고 뭐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벌어다가 주고 하구선 배신을 당하구. 그래 내쫓기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벌써 떠났으면 배신 당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몸뚱이만 있으면 뭘 해요? 누구든지 살면서 배신을 수 차에 당하면서 다시 또 붙어 들아가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럭하면서 살지, 한 번이라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거예요, 아마. 그러니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변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생각 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 값싼 눈물을 흘려서도 아니되지 마는 값싸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자비로운 마음,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바로 나처럼만 생각한다면, 싸울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방하착이 잘 안됩니다

문 이 세상엔 종교 없이도 별 다른 고통없이 잘 사는 분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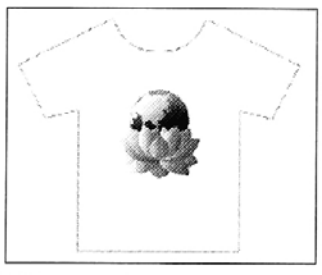
이 분들을 볼때는 종교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법을 자연히 깨친 사람들로 그 마음의 법이라는 것이 대행스님이 말하는 "방하착"과 동일하므로 사실 불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하착하라 관하라 하지만 사실 유전적으로나 큰 업이 없는 분들은 잘합니다. 이것은 꼭 불경에 방하착하라고 가르쳐줘서도 아닌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알고 따른 결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이 많거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거나 차별받고 자라거나 여러 요인으로 그릇의 폭이 작은 사람은 불안해서 사실 놓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놓는 다는 것은 이런 분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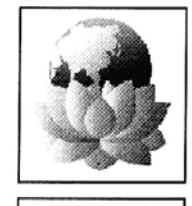
☞ 16면으로 계속

범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여름 선물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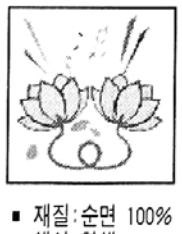
부다피아 티셔츠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나팔

- 재질:순면 100% (20수)
- 색상:흰색
- 인쇄: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순면 100%
- 인쇄:나염인쇄 (칼라)
- 가격:₩5,000



용문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대승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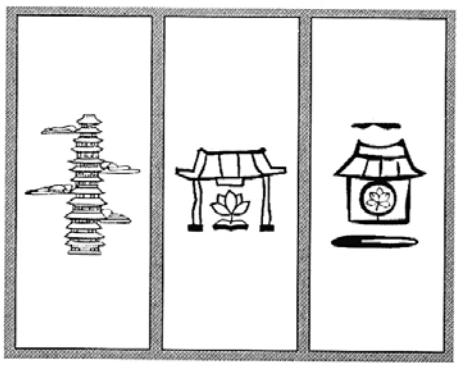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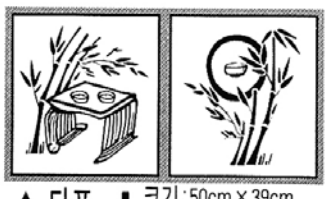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증심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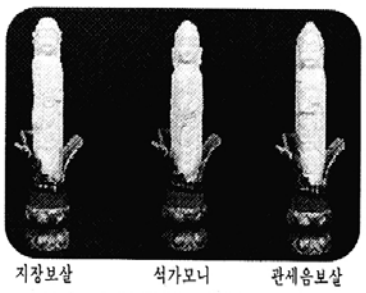
▲ 다포
- 크기:50cm × 39cm
- 가격:₩800

◀ 기도포
- 크기:84cm × 39cm
- 가격:₩1,600

기도포 100장, 다포 200장 주문시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현상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 가격:₩8,000(3개 ₩21,000)
- 재조원:金城通商
- 판매원:몰 · 부다피아

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 전 화 : 02-732-1522/737-8881
● 팩 스 : 02-737-0697
● 인터넷 : http : //mall.buddhapia.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모든 게 자기 것 아니니 집착 마세요

☞ 15면에서 계속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어떤 원천에서 끌어내서 인도할 수 있느냐가 결국 종교가 해야할 일 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후자에 속한 사람으로서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그 원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이 '불교'라는 단어는 종교라는 굴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란 '佛' 자체가 바로 우주와 더불어 만물만생의 '생명' 자체가 '佛'입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의 생명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다 '佛'입니다. '敎'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움죽거리고 알게 되고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고 가는 지금 현재 생활과 더불어 그냥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불교'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 우리의 생활이요 세계적인 생활이요 우주적인 생활이요, 과거·미래·현재가 같이 돌아가는 생활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부처님께서만이 아닙니다. 사대성인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먼저 믿어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뿌리를 믿어야지만 이 우주 전체와 삼천대천세계가 같이 호응을 하면서 통신이 되면서 같이 공해서 돌아가지, 믿지 못한다면은 돌아가는 그 도리를 모르느니라' 하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육신 속에 마음이 벗어나야 우주 삼라만상과 함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체가 없는 마음이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돌고도 남음이 있고 보고도 남음이 있고, 듣고도 남음이 있고 알고도 남음이 있고 모두 실천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육신 속에서 마음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즉 말하자면 지구라는 이 자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기주머니에 매달려서 그 공기주머니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공기주머니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계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그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자신 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로부터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무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구 세상이 있구 우주가 있구, 과거 미래 현재가 있구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땐 종교란, 종교라는 이름만 지어놓으면 종교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종교라고 이름을 짓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줄 아는데 자기 몸뚱이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기사, 즉 운전수가 참자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자기를 믿구 의지하구 그래야지 공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하면 운전수하고 차하고 콤비가 돼야 걸림이 없고 자유롭지, 차하고 운전수하고 콤비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면 이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세상은 물질세계로써만이 고도로 발달이 됐다 한다면 정신세계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정신세계로써만이 뒷받침이 될 수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와 같습니다. 운전수와 차가 콤비가 돼서 돌아가듯 정맥 동맥이 같이 콤비가 돼서 돌아가듯 우리 인간도 물질계와 정신계가 콤비가 돼서 돌아가야만이 바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화목을 가져올 수가 있고 싸움이 줄어들고 적대하는 기운이 없어지고 강도가 없어지고, 모두 그런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일체 미생물에서부터 일체 만물만생이 전부 통신이 됩니다.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근본과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 나무들은 나무들대로 같이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꽃이 피구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들을 되먹이고도 되남고 되먹이고 되남습니다. 봄이면 나와서 다 먹이고 그 이듬해 봄이면 또 나옵니다. 그러듯이 그 모든 끊어지지 않는 진리가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좋은 법, 우리의 생활이 진리이거늘 어떻게 네종교 내종교 따질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진리인데.

한마음공부 완벽한 수행인지…

문 저는 올해 스물여섯살된 청년으로 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라든지 마음을 닦는 것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실제모습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저자신의 못난 모습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게 잘 안될 때는 절망도 합니다. 그간 숱한 방편들을 조금씩 경험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 앞에는 왜 그렇게도 방해되는 것들이 많은지...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단전호흡'에 참으로 관심이 많았고 현재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평생을 수련하면서 보내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의 현실세계를 살면서 더군다나 저의 생활환경을 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차선책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생활가운데서도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방하착'에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단전호흡'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아니나 현실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대행스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마음속으로 많은 힘을 얻는 느낌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단전호흡도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쭈고 싶고요, 둘째, 한마음을 믿고 놓는 수행법 만으로도 빈틈없는 완벽한 수행체계가 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답 우리들에게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땅 속에서 금이 나오는 원리도 그러합니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금이 될 수도 없고 금을 캘 수도 없고 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금속으로서의, 이 세계가



그림 · 최주현

주시오! 나 될 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연방 틀어끼고 앉아가지고는 상대를 믿고 돌아가니 그 영령들이 한 사람 앞에, 마음은 하나인데 어디서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한 몸뚱이 속에서 둘이 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될 좀 할려면 이쪽에서 뭉기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그걸가지고. 그리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은 걸레를 빨아서 쭉짜면 아무데나 괭개치는데 만약에 금이라면, 금이라면 장 속에 갖다 넣느라고 야단났겠죠. 걸레 괭개치듯 그렇게 금도,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장 속에 넣긴 하되 걸레 짜서 버리듯이 착을 두지 말라 이 소립니다. 모든 게 자기 것이 아니예요. 자기는 관리인일 뿐이고 바로 생명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서 지켜 보고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른 건 그른대로 쓸 수 있어야 올바로 다스리는 방법"

금속 아니면 쓰지를 못하듯이 지금 전세계가 그거 아니면 못 살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선장의 원리는 바로 금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보배죠, 그 원리를 내가 한마디 더 한다면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있는 것이 마치 지평선이 바탕으로 돼 있으면서 우주를 형성시켰듯이 우리들 몸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 반면에 거기에 모든 자력과 원리가, 힘이 주어져 있단 얘깁니다. 자력·통신력·광력·전력 이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단전호흡을 해서 얻느니, 기를 모아다가 넣어서 살아야하느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구요, 모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기는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지, 한생각이면 기가 나오고 한생각이면 기가 죽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엉뚱한 생각입니까? 우리 선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중에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이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명상하다가 병이 걸린 사람도 많구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은 모두 타의에서 구하기 때문이예요. 싹은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해야 도를 이루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이 싹이 딴 데를 보고서, '아이고! 나 좀 통하게 해고 돌았다고 그러고요,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또 그 정신병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식이나 하고 염불이나 하고 그러면 낫는 줄 알구요, 마음으로 생긴 병은 마음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임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뚱이 속에 네 마음의 주인이 없다면 육신은 빈 집이기 때문에 이 영계 저 영계, 이 혼백 저 혼백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모르니 네 집을 가지고도 맘대로 살 수가 없느니라"하셨던 겁니다.

날더러 맨날 말을 하래서 하기는 하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책을 보고 이래서만이 도를 깨우치는게 아니예요.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배웠든 내가 지금 한발짝 한발짝 걸어다니는 게 어떤 놈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다니는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그 자체도 걸머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길에 다니는데 걸음걸이를 걸머지고 다닙니까? 그냥 놔버리고 다니죠. 지금 살면서 그렇게 놔버리고 가고 있는 것이 고정됨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보면 이걸 보게 되고 이걸 들으면 이걸 듣게 되고 저기 가게 되면 저기 가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걸 먹으면 저걸 먹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는 들의 집합소예요.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생각 한생각하는 게 금입니다. 금! 보배고요. 한 생각에 말입니다.

한마음은 끊어진 자리 아닌지요

문 스님이 한 길을 걸었듯이 그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시듯이 저도 세세 생생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신행요전에 한마음을 이어간다고 하였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음은 끊어진 자리가 아닌지요.

답 에누리 없는 세상에 에누리 없는 진리를 우리가 터득한다면 우리는 자유권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기필코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부처님으로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여러분한테 일러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하여튼 경이란 경은 다 합쳐서 팔만대장경을 위로 꿰고, 아래로 꿰고, 외워서 머리로 알려고만 하지 그거를 소화를 시키려고는 안 그래요. 알려고 하는 거를 다 놔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뚝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뚝 일어설 수 있죠. 어느 종교, 어느 종교 많지만 부처님의 뜻과 조사들의 뜻은 각자 자신들이 진리를 참구해야지, 자신의 주처를 믿지 않고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타의에 있는 것을 믿는다거나, 사람을 믿는다거나 또는 타의의 어떠한 신을 믿는다거나 타의의 어느 형상을 믿는다거나 이름을 믿는다거나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 장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는 것도 그 부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깨우치라 모신 것이지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고, 귀신 믿듯이 믿으라구 모셔놓고 점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그 형상은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그 마음도 둘이 아니요, 그 생명도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려서 '주인공' 한겁니다.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빛이 되게 할 수 있어,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으며 화목하게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말입니다. 자기 걸껍데기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속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되 타의로 믿고 다닌다면은 백날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을 선으로 돌리는 방법

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몰라서 한 것이요 해야하는 피치못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이때 악을 선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이 있으며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면 선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답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꾸 도둑을 맞아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도둑질 하는 낌새는 알고 있는데 물증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물증은 못 잡았어도 두 사람이 그러는걸 알고 있어서 하루는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관리인으로 책임을 지웠어요. "너희들 밖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도둑맞지 않게끔 해라." 했거든요. 그날부턴 도둑이 없더랩니다.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그거를 사람을 세워서 물증을 잡아라 이러고 했으면 그 회사가 뭔 꼴이 됩니까, 점점, 앙심도 생기고 뭐 별것 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점 그냥 끝 간데 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복수가.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저놈 참 나빠, 능숙하지 못해서 일도 잘 못하는 데다 저거하니깐 그만두게 해야 되겠어.' 이런다면은 자기는 너그럽지 못해서 업보가 생기는 거죠, 도둑질을 해가도 겁 안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사람을 죽였다 해도 겁 안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도 도둑질 한 것만큼 그 몇배를 불어내놔야 하는 뜻이 서려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가 겁나지 않는 거죠. 가져갔어도 그것은 스스로 자기한테 배로 해가 오는 거니깐요. 바로 사람이 양심이 언제나 자기를 살리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살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관하면 법문 다 알수 있는지요

문 큰스님의 설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의 공법을 삼분의 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큰스님 법문을 둘 아니게 관한다면 모두 알 수 있는지요.

답 이런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행이 없다면 그건 아나마나 아닙니까? 행이 문제지, 말이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당이니 서당이니 만들어 놓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남전스님이 왁자글해서 내다보니까 아, 동당 고양이니 서당 고양이니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곤 온통 야단법석이 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그 공부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덥썩 집었습니다. 덥썩 집어들고서는 "너희들이 한마디 한다면 이게 두동강이 나지 않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다면 두동강이가 날 것이니라." 하신겁니다. 들은 얘기 고대로는 못해도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냥 쥐 죽은듯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야, 남전스님은 약속은 해놓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뭔 꼴이 됩니까? 그래서 삼시간에 두동강이가 났죠. 그랬는데 외출했던 조주스님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남전스님이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신발 한짝만 머리 위에다 얹고는 휙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에 고양이를 죽인 것이 옳겠습니까? 살려둬야 옳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관문이요, 그 얘길 했는데 왜 신발 한짝을 머리 위에 이고선 휙 나가버렸냐는 것이 또 관문이요, 세째는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남전스님은 고양이를 삼시간에 죽였는가?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는 것이 또 관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관문말입니다. 말은 함이 없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함이 없이 대답하는 문제가 있고,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되고, 마음에서 우러져 나온다면은 함이 없이 하는 작용으로써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모르면서 전자에 종사들이 대답을 했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한다면, 그거는 큰 업보가 될 것입니다.

> "자기뿌리 믿지않고 타의형상 믿는건 도깨비 장난과 같아"

相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문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을 뛰어 넘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망상이라고 그러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대로 우리는 좌선을 하는 겁니다.

몇 시간을 앉았다고 해서 좌선이 아닙니다. 또 좌선을 하고 일어났다, "아휴, 오늘은 하루종일 좌선을 8시간 했어." 이렇게 아주 잘한 것처럼 그러지만은 일분일초도 하지 않았다 했다가 따로 없습니다.

소리없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참선으로 돌아가야 좌선이요, 참선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이리 왈 저리 왈 끄달림이 없이, 아무리 망상이라고 하더라도 관여없이, '응, 그래' 그러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래 그래, 그럴테지.' 수많은 의식이 다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지켜보고 옳은 거는 옳은 것대로 그른 거는 그른 것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돌아서 넣는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자기가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요! 모두가 이 마음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라든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 모두가, 핵심적인 나부터 돌아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할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누구 말마따나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질을 누가 시켰으며 선행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거기 놓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 묻는데 길게 답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핵심을 뚫어서 수행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강좌

통지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병(전직교사 · 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교육기간 : 3개월 ◆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 옆)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 창본
011)545-7252 처 사

견성 (?) 개인지도
- - ,생물 - - 생명
(? + 기록물) + 물질 (육체)
(1) ? - 자유 (불 생 불 멸) 성,
형상, 무게, 부피없음
(2) ,업(기록물)-경향(습관)성,유생
불멸, 형상있고, 무게, 부피없음
(3) ,물질(육체)-법칙(부지유)성,
생멸, 형상, 무게, 부피있음
-, ?을 ?이 보니 볼 수 없다 -견성
-, 증명과 체험위주 지도(수련테프 판매)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017)609-9068

장용 철학원
인생상담 · 동양철학 개인지도
진 창 운 이 궁 결 사 진 매
로 업 세 혼 합 혼 주 학 매
02)851-5827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64-23

구인

사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 : 28살
운전면허증 2종 有
017)872-1002

구 직
50대 독신입니다.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또는
야간 경비직으로 처사겸
일하고 싶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대형면허이
며 지방 사찰도 좋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찰은 저렴
한 보시로 봉사하겠습니다.
0351)826-1152
주간에 전화 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요.

미국 뉴욕 원각사에서 함께 하실
부전스님 구합니다.
20 ~ 30대
7월 9일까지
연락바랍니다.
011)845-1910
용 진

한식구처럼 같이 살 40세~60세 정도의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과 할머니 한분이
계십니다.
보시금은 약간 드립니다.
조계종 사찰입니다.
0596)972-1268
0596)973-1267

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귀하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179-32
●사찰명 : 봉내암 ●주지 : 이해천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봉내암 회장단 일동
1999. 6. 21.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세계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자석+금침+은의 3가지 복합효과
동광자기금침
실용신안특허 제118585호 보건복지부허가제조허가 131호 제품허가 31호
근육경직, 무릎, 어깨, 통증은 이제 그만!
동광자기금침은 이제 가정상비 필수의료품 입니다.
동양의 신비가 담긴 금침과 인체에 좋은 자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동광자기금침은 한방의학의 경락과 생체 에너지에 직접 작용하여 혈액순환, 요통, 관절염, 류머티스 근육경직, 부시고 결리는 각종 통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CATV 및 통신판매 중! 적은 투자! 고수익! 확신!
※ 지역총판 및 사찰판매점주를 모집합니다. ※
제조원 **동양전자의료기기 (주)** 판매원 東廣通商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5-11
대표전화 (0344)938-6292 FAX(0344)973-3505



건강추구! 자연치유
(스트레스 해소) (氣 기운 보강) 춘천 **玉山家(옥)**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 (02)777-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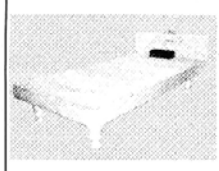
보이차
1kg (10만원)
■소타차 500g(10만원)
■칠자병차 3개(10만원)
茶道里
02)911-6798
017)406-6682



귄 달마스님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달마사
02)928-5551

제주 (땅)전문컨설팅
저희 가람공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제주 전지역 임야, 준농림지, 과수원, 전원주택, 기타 물건을 몸보시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상담및 전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물건 다량확보)
가람공사 공인중개 사무소
전화 02)488-4304
H.P : 011)9002-2404

◇ 건강 (숒) 침대 ◇



●여름철 습기제거와 노화방지 및 숙면유도
●숯 + 오동나무 + 백송 (100%원목)
●숯(40kg) + 오동나무 목침(1개)무료
02)935-3585/936-4383 해원공예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호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637-2345/02)677-4265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8평
◇실사용평수 : 120평
◇법당 : 20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7천만원(급매)
◇강능 고찰터 천평(4천급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 진 불 사

결장경 기도 · 휴양처 공급
◆원룸식 8평
◆텃밭 제공
◆자손 대대로 연구 사용
지리산 약수암
0671)625-6831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에서 15분거리
◆대지 : 500평
◆법당10평, 요사채30평, 종각
목욕탕, 화장실, 마당500평(잔디)
◆가액 : 1억2천
◆특징 : 천연수, 산세수려
안대가 좋음(사정상 급매)
016)314-0108

사찰(급) 안내
◆ 위 치 : 경남 산청
◆ 부 지 : 약 2113평 건물5동(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목욕탕, 화장실 1동)
◆ 가 액 : 2억 5천만원
(단 가격절충시 법당의 관음상은 포함되지 않음)
매매희망기간 : 올해 7~8월중순까지
◆ 특 징 : 그림같은 아담한 기상, 오염지
않은 창정수, 풍부한 식수, 넓고 도량, 도로포장 및 주차시설 완비
053)651-9363/0596)973-030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서울 약1시간 거리)
◆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 3), 요사 43평(방11 식당 회장실독립)
◆ 가 액 : 3억 5천
◆ 특 징 : 취락시기지 확정, 도면 열람가(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절터 안내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절골)무주 구천동인근
◆부지 : 약30만평
◆가액 : 평당 6천원
◆특징 : 덕유산 줄기 식수,
경관수려 이조초기 절터임.
천연고로쇠나무, 자작나무,잣나무등
현재 사슴농장으로 운영중
(주)0598)942-2400/(0)0598)944-2467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지 60평, 건평 36평
◆임법당 13평,방14칸,부엌,목욕탕
◆가격 : 1억 (절충가능)
02)936-4785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면소재지
◆대지48평, 방3, 주방(현대식 건물)
◆포교에 최적합한 지역임.
◆가액 : 3천 8백만원
0576)862-0329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서울
◇법당및 요사 :22평
◇부지 : 100평
◇가액 : 1억2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대지 : 500평 사용
300평 등기필
◆법당26평 산신각 용왕전
◆요사 총 4동 (방9개)
◆산속 암벽이 둘러있는 기도처이며 바다가 보임.
◆가액 : 2억9천(절충가)
019)616-3200

사찰 안내
◆ 위 치 : 군산 월명 공원내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부 지 : 300평
◆ 급한 사정으로 전세가함
0613)337-4020
011)579-9865

사찰 안내
◆ 위 치 : 나주산 정자교 유원지
◆ 법 당 : 2층 35평
◆ 요사채 : 1층 40평
◆ 부 지 : 148평
◆ 급한 사정으로 전세가능함.
0613)337-4020
011)579-9865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북 의성군
◆부지 : 3,700평
(대지 700평, 전 3,000평)
◆법당 33평,, 요사 45평 20평 2동
◆가액 : 답 사 후 결 정
◆특징 : 대작불사 가능하고 신병을 이유로 3분의 1가액으로 양도하고자 하오니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서는 연락바랍니다.
※전국의 사찰 사찰부지,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80)512-4447/019)390-6110

향토방 토굴 안내
◆면적 144평중 대지 60평
◆차진입로와 통하고
경관수려한 계곡있음.
◆가액은 전화상담 요망
0416)841-6013

포교당 · 철학관 · 법당
◆위치 : 동대구 안락 2동
◆평수 : 35평
◆가액 : 월세
(천만원에 35만원)
◆시설비 약간
051)531-2682
016)558-8753

법당 안내
◆위치 : 모래내 시장내
◆법당15평, 큰방1, 주방1, 목욕탕1
◆가액 : 3천 (월세)
032)468-3210
011)238-3210

고가 한옥 안내
◆위치 : 공주군 반포면
◆대지 : 407평, 임법당 있음.
◆가액 : 상담후 결정
0613)336-0504

사찰 안내
◆위치 : 과천 대공원 청계산 뒷편
◆법당 : 30평 ◆반지하 : 40평
◆1층 : 요사채 3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02)502-2932

포교당 안내
◆위치 :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254-2
◆법당 : 400평
스님실2개,욕실 화장실 74평,
욕상60평(사용가능), 3층건물의 3층
최신설비로 완벽시공 법회중
◆가액 : 보증금1천만원
시설비3천만원
0331)283-7682~3

포교당 안내
◆위치 : 경기도 일산 주엽역
3분거리
◆대지 : 80평 (법당, 강의실,
사무실, 주지실, 대중탕, 주방)
◆가액 : 4,000만원
◆특징 : 일산 신도시 포교 최적지
(중심가), 아파트 밀집 백화점
(그랜드 · 롯데 · 태양 등)밀집
011)708-8282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권
◆대지 : 300평
◆법당 : 50평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6천만원
011)608-2669
062)223-2669

부지 (급)안내
◆위치 : 강원도 홍청군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수련원 및 휴양지로 적합
◆평수 : 2,500평
◆가액 : 2억 5천(평당 10만)
◆산세수려하며 계곡 有
한라부동산 컨설팅 0343)3866-444 016)212-0988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양읍내
◆부지 : 600평 (실사용 약1천평)
◆법당 : 40평
◆물좋고 산세계곡 수려 - 절경임
◆가액 : 답 사 후 절 충
한국불사 02)561-7020 018)273-9390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시내
◆부지 : 700평
◆법당 25평, 요사채 200평
◆특징 : 산세좋음. 지하철역
전통 대형사찰임
◆가액 : 답사후 절충
좋 은 인 연
02)561-7020/018)273-9390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 거처할 방1
◆삼존불, 후불, 신중 · 칠성탱화 완비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
02)954-1289

포교원 안내
※ 아미타도량 급매 ※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지하철역앞 최요지
◆법당 : 40평 (시설최상급)
◆큰방4(주방,화장실,목욕탕)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철학원도 가능 (아주생활편리)
02)2212-1255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영동군
4차선 국도서150m 거리
◆법당 15평, 요사20평,
창고 18, 대지 150평
◆가액 : 3,500만원
0414)742-6772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
321-47(89번 버스 종점옆)
◆평수 :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신중단,
방2, 세면장, 주방
◆가액 : 보증금1,500 월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017)339-0566

토굴 안내
◆위치 : 충남서천
◆대지 198평 건평 28평(임법당),
목욕탕2, 입식부엌1, 방2,
마루1, 법당앞마루
◆가액 : 3천 8백만원
0459)951-6917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전기 · 수도등 통합고지서

(생활) 올 하반기부터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요금 고지를 일원화한 통합고지서가 발부된다. 또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회사원들이 퇴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개혁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휴대폰 114요금 58% 인상

(통신) 휴대폰으로 '114'를 이용하는 요금이 80원에서 1백27원으로 평균 58% 인상됐다. 종전에는 건당 80원의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됐으나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요금을 따로 받기로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대보증 가족으로 한정

(금융) 앞으로 개인별로 은행권 전체의 연대보증총액 한도가 정해져 한도금액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또 연대보증인 자격도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한정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매주 일요일 '신록순환열차'

(여행) 철도청은 경부선~충북선~중앙선을 돌아오는 '신록순환열차'를 당일관광코스로 운행한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55분 출발해 오후 8시17분 청량리역으로 돌아온다. 6월에는 매주 일요일, 7월 1~15일까지는 매주 토 · 일요일, 7월 16일 이후에는 매주 월 · 수 · 금요일 운행된다. 1만7천5백원. (02)392-7788

구청마다 아르바이트 모집

(모집) 서울 각 구청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 인원은 9개 구청에서 모두 455명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일을 맡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구청은 종로, 성동, 동대문, 노원, 은평, 양천, 동작, 관악, 강남구청 등이다. 보수는 일당 1만6천원(식비 3천원 포함)

장기보존 '요구르트 김치'

(새상품) 인하대 미생물생태연구실 한홍의 교수팀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유산균이 대량 함유된 '요구르트 김치'를 개발했다. 이 김치는 상온에서 한달 이상, 10도 이하에서는 6개월 정도 보존할 수 있다. 기존 유제품보다 1000배 가량 많은 유산균을 보유하고 있다. (032)860-7694

부업알선 미끼 교재 강매

효도관광 엉터리약 판매

텔레마케팅 사생활 침해



서민층 울리는 악덕상혼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다. 주로 서민층을 울리는 악덕상혼은 경제적인 손실을 안길 뿐만 아니라 생활영역까지 침해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악덕상술의 유형중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방문판매와 노인대상판매, 텔레마케팅 등이다. 우선 방문판매의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방문판매관련 상담만해도 1천3백여건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방문판매관련 피해사례로는 부업이나 직장 알선을 미끼로 한 자격증교재 강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10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해도 상품대금의 20~50%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약점을 노리는 악덕상술도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사례로는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빙자해 엉터리만병통치약을 팔거나 물품을 떠맡기고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한다. 심지어는 종교행사를 빙자한 금품사취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각종 물품 또는 부동산 구매를 권유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은 밤 12시에도 전화를 거는 등 아예 사생활 침해에 가깝다.

이밖에도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재나 회화테이프 등을 강매하거나 PC통신을 통해 물건판매광고를 낸 뒤 대금을 선납받고는 줄행랑치는 경우도 많다. 또 최근의 취업난 및 고용불안 틈새를 이용해 구인광고를 낸 후 금품을 갈취하고 달아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은 관련법규가 미비한만큼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며 판매원이 말하는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부대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한다. ▲해약은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야하며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작성해 해당업체에 보낸다 ▲서면통보 후에도 계속 대금이 청구되면 시-군-구청의 소비자보호과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한다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나 계약서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구입시 가격 및 판매처와 상호를 분명히 확인한다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무료상품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방문판매를 하지 않는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핫라인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인 080-220-2222에서 안내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의 눈

탐심이 악덕상술 키운다

〈우바새계경〉에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다. 또 〈백유경〉에는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다.

악덕상술은 지나친 탐심으로 더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이 틈새를 파고드는 악덕상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그에 합당한 물품을 주고 받는 건전한 상도의가 자리잡아야만 악덕상혼을 뿌리뽑을 수 있다.

佛어린이 5만명

邪敎에 시달린다

佛 경찰청 보고서

최근 프랑스에서 사교(邪敎)에 시달리는 어린이 실태를 파헤친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산하 정보총국이 2년여 조사끝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 또는 사교 속에 자라고 있는 어린이가 무려 5만명에 달한다는 것. 이중 5백여명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린이들이 교주의 노리개가 되고 있는 공동생활체에서 학대와 해괴한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 함께만을 허용하는 알프스 지방의 한 사교집단에서는 영양실조로 어린이 2명이 사망했으며, 남자 어린이는 머리를 빡빡 밀게하고 여자 어린이는 '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야릇한 화장을 시키며, 또 다른 집단에는 특별기도 기간에 수면과 음식을 완전히 금지했다. 심지어 '태양의 사원'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신의 제물'로 바치고 성적학대 등 끔찍한 신체적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또 집단생활이 어려운 도시주변의 사교종파들의 경우 보충학습 각성교육 등의 명목으로 신도의 어린이 자녀에게 정규학교의 특정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거부하도록 세뇌 또는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고.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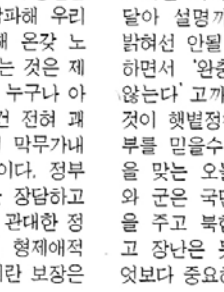
생활속 다이옥신 줄이는 법

다이옥신은 대기오염, 흡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의식주 전반에 걸친 요령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육류 · 어패류 등에서 지방을 떼내고 먹고 가급적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선의 경우 지방이 많은 내장이나 아가미, 껍질 등은 먹지 않는다. 특히 비늘은 잘 제거하거나 씻어야 한다 ▲탄 고기는 먹지 않는다 ▲과일이나 야채는 물로 잘 씻어 먹는다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소각장, 농약공장, 종이공장 주변에서 생산된 농 · 수 · 축산물은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구입한 흰색 내의나 흰색 침대시트는 반드시 한 번 삶은 뒤 쓴다. 표백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사용하는 1회용 기저귀나 형광색의 화장지, 흰색 내의나 침대시트 등 거의 모든 생필품이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시론

1999년 6월의 한국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해 남북충돌 나라 뒤죽박죽 국민에게 믿음을"

열흘이상 이어지던 북한군 전투함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입이 마침내 남북한의 무력충돌로까지 번졌다. 북의 병력들은 우리 측의 수없는 경고를 무시하고 남쪽 수역을 멋대로 휘젓다가 결국 피아간의 포격전 끝에 한반도의 긴장을 몰고왔다. 국민들이 아연 전쟁공포에 떠는가하면 심각한 정신적 혼란과 불안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국민의 불안과 혼란상이 이번 사태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복합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모 지사집의 엄청난 외화 도난 구설에서 시작해 일부 장관부인들의 고급옷 뇌물의 혹으로 이어진 현 정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다 대낮 폭탄주 기운에 기고만장해진 한 검찰 고위층이 파업유도를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장관의 목이 달아나고 노동계가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아우성인 난맥상이 모두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 권력자까지 한술 더 떠 국민이 여론재판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판이니 국민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바다에서 남북이 포격전까지 벌이니 국민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은 더 깊은 곳에 있는지 모른다. 6.25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또 근 50년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군이 총부리를 마주한 상황에서 시시때때로 북이 무장간첩이며 대남공작조를 남파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기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일인데 정부가 그건 전혀 괘념하지 않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정책을 펴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햇볕정책의 효험을 장담하고 있지만 그런 무한정의 관대한 정책이 북한을 감동시켜 형제애적 온건정책으로 회심하리란 보장은 없다.

그 실례가 바로 서해의 남북충돌이다. 이는 종래 우리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에 심한 혼란과 불안과 당혹감을 제기한다. 우리 해군장병들이 죽음을 무릅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동안 일각에서는 굶은 북한 주민을 살려야 한다고 비료며 식량을 모아 북으로 실어나르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가하면 또 한편에선 금강산 관광을 간다고 아우성이다.

사태의 위험성은 바로 이같이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이란 점에 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있고 그에 호응하는 국민의 일사불란한 정신이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의 생떼를 모두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이 가엾다고 온통 국민의 동정무드만 조성하여 쌀과 비료만 가져다 준다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웬만큼 장난질을 해도 햇볕정책을 펴는 남한이 설마하니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고 오판할 수 있고, 우리 정부도 잘못된 온정주의가 국방의 와해를 불러온다는 뒤늦은 깨우침으로 종래와는 다른 과격한 대결정책으로 치달릴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점에서라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북한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상호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북한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우리 해군이 아무일 없는양 보고도 않는가하면 북한 경비정의 침입을 '월선'이라고 하고 그것도 '꽃게잡이 보호차원'이라고 합법적 이유를 달아 설명까지 해주고 심지어 밝혀선 안될 완충지대까지 공개하면서 '완충지대에선 발포하지 않는다'고까지 공무니를 빼는 것이 햇볕정책이라면 국민은 정부를 믿을수 없다. 6.25 49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정부와 군은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고 북한에 대해서도 철없고 장난은 못하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다

화엄법계의 소 울음 소리를 들었느냐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320쪽 / 값 7,000원



이 명상록을 접하는 독자들은
금방 저자인 스님이 법당 안에서만 사시거나
경전의 글귀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의 삶 가운데 절간을 짓고 중생의 애환과 눈시울에서
경전을 읽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겪은 대로 말하는 글예술의 수필이 독자로 하여금
지은이의 삶을 머리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이라 한다면
스님의 이 명상록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믿는다.

시인,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 강희근

명예, 혹은 명성의 고삐, 체면과 윤리, 도덕의 굴레,
자존심의 송곳, 물질의 멍에……,
나는 이 모든 굴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각자 판단의 잣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아는 만용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벗은,
그래서 담을 것이 넉넉해져가는 큰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소설가 - 김수용

삶에는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하다

삶이란 뭐꼬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256쪽 / 값 7,000원

"누더기 같은 욕망을 버려라."
"쓰레기같은 집착심도 버려라."
"걸레같은 망상, 똥같은 오만과 편견도 버려라."
나는 한동안 삶에 지친 군상들에게 버릴 것만을 강조했다.
그들이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몇번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섶에는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법칙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불제자인가.

삶이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이다.
나는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중생들의 머리 위에서 노래공양이라도 하고 싶다.
그간 저질렀던 무심, 무능, 무학의 소치를 일부나마 덜기 위하여.

도서출판 빛샘 전화(대) : (02)3143-1516 · 팩스 : (02)3143-1518

■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캠페인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화계사·내원정사법회

외국인스님 14명도 '생명나눔' 동참

장기기증 56명 화장서약 608명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덕사 주지)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법회가 지난 5일과 14일 부산 원정사(주지 정련)와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에서 각각 개최돼 외국인스님을 포함해 56명이 장기 기증을 하고 608명이 화장유언을 남겼다.

초하루 법회와 함께 열린 화계사 법회에서 성광스님은 "장기기증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서 불자들이 화장유언서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특히 매월 1회 삼천배 참회법회를 실시해오면서 생명나눔캠페인을 벌여 은 화계사에서는 지금까지 서명하지 않은 신도들이 이날 집중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매회 삼천배 법회시마다 장기기증 서약과 화장유언 서약을 받기로 하는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 성광스님은 화계사를 대표해 생명나눔실천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내원정사 캠페인은 모두 483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화계사 캠페인은 삼천배 참회법회와 어우러져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성광스님 등 16명이 장기기증을, 165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했으며, 화계사에서 공부중인 외국인 스님 14명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 서약을 남겼다.

'선망부모 조상 및 전몰 장병 호국영령 천도 49일 지장기도 대법회'와 함께 열린 내원정사 캠페인에서 주지 정련스님은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보살행이며, 불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이웃에게도 그 뜻을 알려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법장스님이 참석해 서약을 독려한 내원정사 캠페인에서는 40명이 장기기증을, 443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483명의 불자가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명우 · 천미희 기자
(mwhan@buddhapia.com)



◇화계사에서 수행중인 외국인 스님들도 캠페인에 동참하고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이모저모

"보시권유 처음 해봤다"

○…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 신도님들에게 보시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은 한 번 해야겠다"며 서명대에서 신도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뜻깊은 일" 외국인스님 동참

○… 화계사 캠페인에서 단연 눈길을 끈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3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 곽 짜여진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날 생명나눔 캠페인에 많은 스님들이 동참했다.

한국에 온지 5년째라는 헝가리 출신 청안스님은 "몸은 어디에서 온 것도, 또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니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경도 살리고 넘쳐나는 묘지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주위의 외국인 스님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청안스님은 화장서약은 물론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등 장기기증 대부분 항목에 서명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4년째라는 대원스님도 청안스님과 함께 장기기증에 서약했다. 캠페인에 대한 소감을 묻자 대원스님은 "이렇게 뜻깊은 일에 불교인들이 앞장서니 매우 기쁘다"며 "훌륭하다"는 말만 몇차례 반복하기도.

공양주보살도 화장 서약

○… 내원정사 캠페인에서 가장 먼저 화장유언에 서약한 신도는 이곳의 공양주보살. 서명대가 차려지자마자 이것저것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던 공양주보살은 함께 절 일을 보는 보살들과 처사들을 데리고 와서 서명하라고 재촉하기도.

"나와 조상 함께 빛 찾는 일"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



조상들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올바로 천도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마음에 본래 밝아 있는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밝음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밝음을 체득한다면 바로 조상과 호국장병들의 마음을 밝혀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천도하는 귀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내 마음을 밝히고 나를 천도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생명을 나누자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내가 먼저 밝아지고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베풂은 이렇게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보시는 바로 내가 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고 오히려 기쁘게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보시는 최상의 보배"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보배는 안으로는 참다운 믿음이요, 바깥으로는 보시하는 것입니다. 귀일심(歸一心)하고 요익중생(樂益衆生)하는 삶이야말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청정한 본래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못 본척하고 그냥 지나치면 온종일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주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내 남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시입니다.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곳에서 허망한 육신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상대를 바로 볼 수 있고, 집착하면 세상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동체자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그것은 곧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 (56명)

▲서울 화계사(16명)
성광스님, 청안스님, 대원스님, 박경신, 박태임, 신영순, 조숙희, 한정현, 한순규, 노재철, 박현수, 이상수, 이명옥, 권석숙, 박상훈, 이계옥

▲부산 내원정사(40명)
강기상 구자동 권정옥 금진남 김나우 김명수 김선주 김성원 김세중 김영숙 김진백 김진형 김창환 김희숙 박갑순 박맹희 박선영 박영애 박준애 박태석 서수원 석종만 송영자 안정완 엄옥순 원순자 이근식 이은주 이인숙 이일권 이정삼 이철종 이한숙 임매자 임옥희 조경숙 최영희 최정숙 피현진 허현자 (각막:40건 뇌사시장기:32건 시신:32건 신장:1건 골수:4건 후원:14건)

화장서약 (608명)

▲서울 화계사(165명)
계령스님 공도스님 관미스님 관법스님 광홍스님 대원스님 명공스님 명화스님 미렵스님 미상스님 오광스님 청안스님 현문스님 Bao스님 Erik스님 Jazzy스님 Joanne스님 Kavol스님 Ritchie스님 강계식 강광자 강기복 강만순 강미희 강민수 강복희 강순희 강창재 구관순 구본수 권경태 권병근 권사태 권태욱 권혁래 김경란 김경희 김계순 김귀례 김남원 김명옥 김명자 김미아 김보관 김복녀 김복례 김선숙 김승예 김순자 김승자 김영숙 김옥자 김용자 김원순 김은숙 김재순 김정숙 김주희 김진현 김창수 김창환 김철수 김현순 김혜경 나은자 남성환 노선숙 류동선 류재복 류정현 문미영 박경신 박금강화 박길자 박대화 박덕환 박로양 박미헌 박승혁 박연엽 박영숙 박종환 박춘자 박현순 박현진 박환준 백현기 변종순 봉종성 성선화 성은숙 손금자 송정자 송태희 신복미 신영숙 신영순 안복숙 안복순 안효간 양경희 오덕희 오정아 원봉희 원정숙 유옥란 유지혜 윤대한 윤인숙 이경란 이대성화 이병순 이선희 이송 이수복 이순임 이영현 이영희 이은경 이정록 이정주 이진옥 이현노 이현월 일정남 임수연 장경순 장근순 장원호 전미순 전선광 정영자 정오현 정재문 정정수 정해봉 조경순 조경애 조금옥 조숙희 조영모 조영수 조진화 조한주 주복희 지영미 지종철 차춘자 채경례 채장수 최정혜 최길자 최난영 최란 최복천 최연동 최은미 태미란 한순옥 한춘봉 한태진 허선자 허옥경 허현 홍건의

▲부산 내원정사(443명)
감현자 강미애 강숙녀 강순옥 강신재 강애자 강영신 강재연 강종수 강청구 강화숙 고분성 고영삼 곽계주 곽순자 곽순희 곽종귀 곽청자 구경미 구준원 구필영 구환일 권민선 권영기 김경자 김경희 김광옥 김광원 김광자 김국자 김귀생 김기숙 김기호 김기홍 김길관 김남주 김동숙 김문자 김범용 김복길 김복숙 김분금 김분선 김상규 김석환 김선애 김세영 김소희 김수자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남 김순남 김순애 김순옥 김순임 김승희 김여진 김영미 김영미 김영석 김영웅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영희 김옥숙 김용덕 김용익 김원영 김원자 김윤영 김은정 김은향 김이선 김인분 김인성 김인숙 김인숙 김재영 김점이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은 김정자 김정혜 김제상 김종걸 김주희 김지영 김지현 김진혁 김진희 김춘자 김태희 김통락 김한순 김현경 김현숙 김혜선 김혜숙 김혜진 김흥수 나영봉 노경아 노은래 노차윤 노효경 류간란 류수현 류양배 류춘숙 무홍심 문성아 문성자 문윤향 문화자 박금자 박맹희 박명순 박명재 박명환 박무성 박미리 박분희 박상옥 박상희 박선이 박성미 박성조 박수영 박순자 박연숙 박영림 박옥순 박용수 박유미 박은실 박정규 박정미 박정자 박종숙 박종옥 박주영 박춘애 박진숙 박춘임 박해자 박화순 방희연 방순연 배경례 배경옥 배은경 배지은 배천종 백명선 백외숙 백현철 백혜영 빈남달 사유선 서대출 서상선 서수진 서영숙 서옥년 서용석 서정숙 서춘자 석대영 선우향 설이례 성미순 성지연 손 현 손기진 손민정 손혜영 송말순 송순옥 송양순 송은주 송해상 신경숙 신명심 신미자 신상화 신윤화 신정분 심봉주 심연자 심관수 안금준 안이영 안미선 안미옥 안상현 안선희 안수진 안숙희 안치신 안희진 암문숙 양경숙 양경승 양미숙 양봉희 양옥순 양원석 엄희원 오덕순 오덕임 오승택 오영희 오은주 오창석 옥미령 우병길 우하영 원무진 원미경 원수장 원순자 위미옥 유동익 유명수 유분남 유수옥 유지인 유태성 유한을 유혜미 윤나리 윤남진 윤동석 윤명옥 윤성윤 윤소희 윤영화 윤옥석 윤옥자 윤윤섭 윤일연 이갑선 이경욱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자 이구자 이다연 이둘섭 이말순 이면남 이명숙 이명자 이명자 이미령 이미숙 이미옥 이미현 이민희 이병근 이복수 이삼길 이선이 이소민 이수련 이신재 이연주 이연주 이영자 이영자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순 이외숙 이용권 이용희 이원우 이유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재순 이재정 이재천 이재훈 이정숙 이정애 이정연 이정오 이정원 이정은 이정희 이종호 이준희 이지연 이지영 이춘화 이혜란 이혜숙 이희순 이희자 임국자 임봉선 임선정 임선희 임순동 임순희 임옥남 임채현 장금종 장상병 장여식 장영순 장용준 장유정 장익준 장필숙 전경희 전말순 전소현 전영의 전종태 전차숙 전창익 전출옥 전현준 정광진 정명희 정성희 정수희 정순교 정연아 정영서 정영선 정영희 정용선 정원득 정유진 정윤옥 정은지 정지춘 정재민 정정이 정정자 정준자 정충리 정현대 정현칠 정혜숙 정혜승 정혜영 정희인 조광수 조금희 조대복 조동수 조명수 조명숙 조미경 조미려 조복련 조복희 조상경 조성호 조수원 조영구 조영석 조영태 조영혁 조옥남 조윤정 조재은 조진희 조혜경 조혜연 조혜은 주미화 주옥분 주효천 지두리 지심행 진명광 진혜경 차현규 채성애 천재경 최경순 최귀화 최길선 최동상 최동식 최미옥 최복선 최숙이 최승제 최원숙 최월선 최인석 최정열 최정자 최지현 추정민 추정윤 하갑순 하명지 하영희 하정은 하정자 한미영 한옥자 한인호 한재구 한현정 한혜영 합복한 허길량 허정림 허종철 홍영숙 홍지영 황귀선 황남발 황들순 황미리 황성남 황세월 황연수 황옥선 황은영 황정임 임다사롬 남궁금례 법일스님 법륜스님 윤대명화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신제품 걸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忘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우체국	013805-0068619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 불교 지도자들의필독서 ·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과 불교

고목스님 지음

이 한권의 책으로
3천년 서양철학은
불교에 화합하였다.
미래철학으로 주목받는
유기체 철학을
불교이론과 사상으로
명쾌하게 해설한 초유의 저술

「화이트헤드 철학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동서 철학 사상의 융합을 위한 효과적인 원리를 제공한다.」

시간과 공간사 Tel.3272-4546

고목스님의 책들

•화두 이야기
100대 선사의 유명공안 200칙 해설

•조주록 탐구
불세출의 걸승 조주선사의 선사상 탐구

•반야심경
생활 속의 반야바라밀 해설

•금강경
안목을 얻게하는 최상승 법문

•명상그 원리와 수련법(근간)
명상의 원리를 알고 수련하는 실용명상서

도서출판 삼양 Tel.762-5166-7

큰스님 요즘 장경 보실시간 없으시죠!

정원스님의
增補 玄句集

一. 本書는 고려대장경, 신수대장경, 속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全內典과 논어, 도덕경 등 外典 若干에서 參學人의 指南이 될 玄妙章句를 抄하여 한글 번역한 것임.

一. 原文과 譯文을 분리하였고 上中下卷으로 편집하되 上卷 諸經集352件, 中卷 經外集1127件, 下卷 句頌集1452件 都合2931項, 原文만 一十五萬餘字이며 每項目마다 出典을 세밀히 밝혔고 특히 하권 구송집은 첫째 字의 畵數順으로 安排하였음.

一. 此集은 抄譯者가 출가 이래로 삼십여 년 간 佛典을 열람하면서 긴요한 文句를 수시로 拔萃하여 쌓아두었다가 금번에 인연이 도래하여 출간하게 된 바 특히 抄譯者가 직접 毛筆로 原文과 譯文을 한 字 정성을 다해 書寫한 것이며 增補라고 이름한 由來는 몇 년 전에 역시 抄譯者가 출간한 바 玄句集을 대폭 修正補完한 연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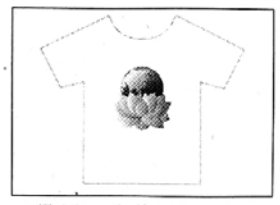
총판대리점 법우당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TEL : 994-4437 FAX : 994-4438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불·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원하실 분 문의주세요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 연꽃 나팔

부다피아 쇼핑몰을
성원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제1회
우수사이버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몰을 공급해 드리겠으며,
실제 생활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관련쇼핑몰을 개발함으로써
"생활속의 불법홍포"에
앞장 서겠습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자녀들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한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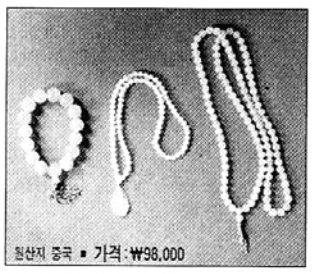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_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첫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지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지도 진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뭡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꿈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성두통 물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 ₩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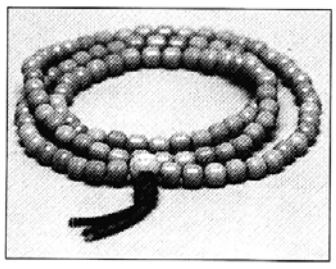
청산지 중국 ■ 가격 : ₩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폐' 가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옥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여 공민왕의 정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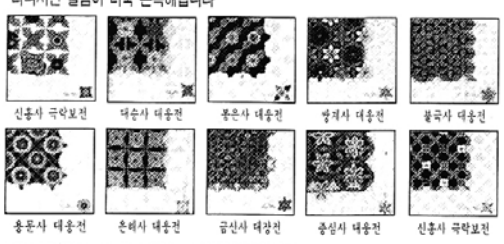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직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꽂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집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 : ₩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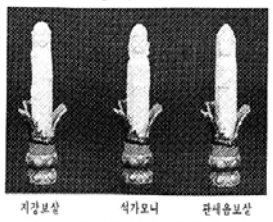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대흥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용문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중심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현상 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조원 숲城通商
- 판매원 몰 : 부다피아

■ 가격 : ₩8,000(3개 ₩21,000)

법성게 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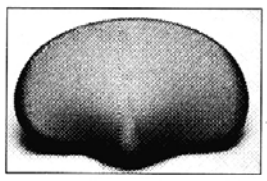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500×460(mm)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참선 명상 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지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개금형 공동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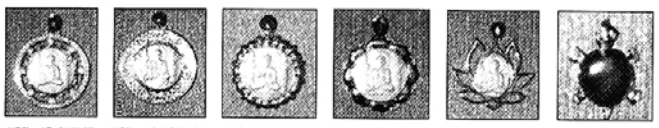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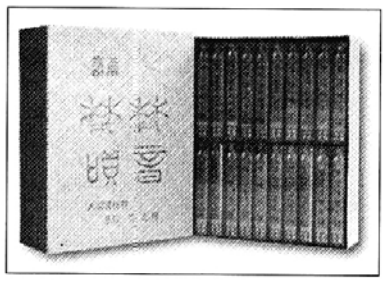
상진주 호신 메달

상조주(像造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율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법륜 호신불메달 / 중급기 ₩241,200 / 재 질 금18k 0.2그램 상진주
상품명 인디라 호신불메달 / 중급기 ₩268,200 / 재 질 금18k 약2.6돈 상진주
상품명 디라니 호신불메달 / 중급기 ₩199,800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12연기 호신불메달 / 중급기 ₩199,800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연꽃 호신불메달 / 중급기 ₩199,800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상품명 거북 호신불메달 / 중급기 ₩134,000 / 재 질 금18k 약0.5돈 상진주

문구암스님 법음 · 범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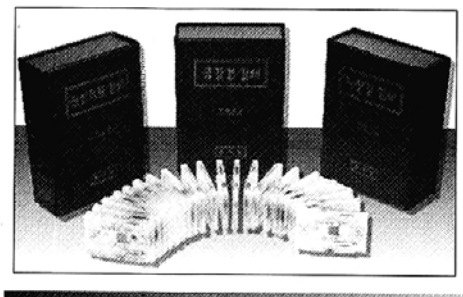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삼신이운 3신장청 · 손중권공 4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III 13.영산작법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요집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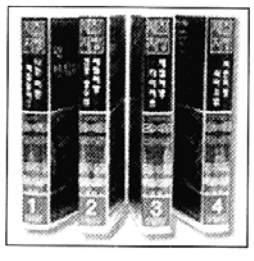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힌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가격 : ₩70,000(가방포함)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분청도자기



이시대의 살아계신 대선사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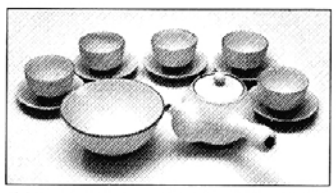
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사기(부처님의 원력으로 쓰신)를 꼭한점씩 가내에 소장하시어 모든 기도성취를 이루시고 가내액화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바랍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등 제조 과정에 작기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품 보증서 첨부)

- 규격 30×30×40단위(cm)
- 박스 31.50×31.5×36.8(cm)
- 무게 5.15kg(도자기)×2kg(포장나무)=7.15kg

■ 가격 : ~~₩1,000,000~~(정상가) / ₩495,000(특판가)

고산다기



고산 이규초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산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십일대손인 고희정신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실신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오(高山窩)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 : ₩120,000

찻상



- 크기 52×38×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쟁반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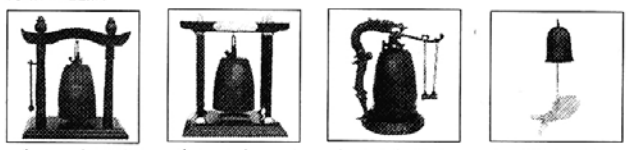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 (音筒高) 369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영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대 ₩49,000(14.5×19cm) 중 ₩39,000(11×17.5cm) 소 ₩35,000(10×6.5cm)

반야 불교반지



물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륙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堅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전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 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닮이지도 않고 분쇄후 물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오보크린



특징
- 목특한 향, 부드러운 촉감, 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시트팩이 비누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 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신생금속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기능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안비누는 미품질수준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 정상가격 : ₩18,000 (1세트 3개)

법회안내

27일 봉은사 일요법회



무진장스님(동산법회 법주) 27일 오전 10시 봉은사 일요법회. (02)516-5652

보리사서 화요법문



보각스님(소쩍새마을원장) 22일 오전 11시 보리사 화요법회. (02)562-9939

길상사 가족법회



지관스님(길상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 가족법회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02)3672-5945

매주 수요일 교리강좌



재연스님(광주 무량선원 주지) 매월 첫째, 세째 일요가족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기초교리강좌. (062)971-862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6월24일 (목)

■ 불교복지포럼=오후 2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전산망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불교복지포럼이 열린다. (02)723-5101

■ 동산불교청년회 수행정진기도=동산불교청년회 수행정진기도법회가 7월 15일까지 계속된다. (02)732-1206

■ 대둔사 순례=능인선원은 오전 6시 해남 대둔사로 6월 순례법회를 떠난다. (02)577-5800



◇산푸르고 물맑은 해남 대둔사에서 신심을 다져보자.

■ 개인택시불교정법회 정기법회=개인택시불교정법회는 오전 11시 혜림원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053)764-0766

6월25일 (금)

■ 금융감독원불교회 법회=금융감독원불교회는 낮 12시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법회를 연다. (02)3771-5191 백명현

■ 정불회 '묘법연화경' 강좌=과천종합정부청사 불교신행회 정불회는 낮 12시 청사 5동 지하 상황실에서 〈묘법연화경〉 강좌를 연다. (02)504-5143 장재군

6월26일 (토)

■ 여성불자 워크숍=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오후 4시 봉은사에서 여성불자를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 27일까지 계속된다. (02)720-7060

■ 정토회 100일법문 회향기념 성지순례=정토회는 100일법문 회향기념 성지순례를 27일까지 경주남산으로 떠난다. 천룡사, 칠불암, 사천왕사터, 황룡사지터, 분황사 등을 순례한다. (02)587-8993

■ 길상사 주말수련회=제12차 길상사 주말수련회가 27일까지 길상사 선원에서 열린다. (02)3672-5945

■ 청보리회 산사기도 수행법회=청보리회는 27일까지 안성 도피안사에서 산사기도 수행법회를 갖는다. (0334)676-8700

■ 수원교도소 둥지소년의집 자원봉사=수원교도소불심회가 오후 1시30분부터 9시까지 둥지소년의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0331)211-1285 어윤식

■ KBS불자회 정기모임=KBS불자회는 오후 7시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6월 정기모임 및 법회를 갖는다. (02)781-2481

6월27일 (일)

■ 정토선원 기도답사=오전 9시 정토선원은 강진 월남사지와 무위사로 불교문화 기도답사를 떠난다. (062)529-0108

■ 서울불교청년회 체육대회=오전 8시 서울불교청년회 체육대회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열린다. (02)730-9108

■ 하이텔 경기모임=하이텔 서울경기모임이 오전 10시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다. 017-270-1431

6월28일 (월)

■ 능인불교 청년아카데미=제2회 능인불교청년아카데미가 30일까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02)557-5800

6월30일 (수)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신행활동을 해보자.

■ 불과회 천안청소년교도소 방문=대한불교제과인회는 30일 천안 청소년교도소를 방문, 직접 만든 빵을 비롯해 음료수, 과일 등을 재소자들에게 보시하고, 법회를 봉행한다. (0417)574-6983

종단소식

조계종

수덕사 3박4일 수련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신심을 돈독히하고 자아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禪실천수련회를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개최한다.

선을 알고자 하는 20~60세까지의 불자 1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덕사 선수련회접수기간은 7월1일부터 24일까지이다. 회비는 6만원. (0458)337-6565

삼장강사 2기생 모집

영천 은해사승가대학원(원장 무비)은 삼장강사과정 제 2기생을 모집한다.

조계종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림, 율원, 강원 중강 2년의 수학경력이 있는 승랍 7년 이상의 비구면 입학할 수 있다. (0563)336-2381

태고종

선암사 불서·茶·향 전시

선암사(주지 인곡)는 23일까지 만세루에서 불서 및 전통향 전시회를 연다. 또 다도시연 및 선암사 차 시음회도 갖는다.

지난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는 불서 1천여권과 전통향 8종이 선보이고 있다.

군법당에 게임기 기증

인천 석왕사(주지 경봉)는 9일 백룡도 호국 흑룡사에 어린이포교를 위해 써달라며 2백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비디오게임기 3대를 증정했다.

천태종

금강불교대 하계수련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7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총학생회 주관으로 구인사 도보정진을 실시한다. 또 7월18일부터 20일까지는 구인사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연다.

진각종

위덕대 사회복지 연수

위덕대 불교사회복지연구회(지도교수 장익)가 20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통리원에서 사회복지 실무경험을 위한 연수를 가졌다.

고령 보현심인당 헌공

경북 고령 보현심인당(주교 도홍)은 25일 헌공불사(낙성법회)를 봉행한다.

보현심인당은 지난해 9월 종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사를 시작한 이래 지상3층 건평 37평 규모로 완공했다.

불승종

불광장학회 4돌 법회



불광장학회(이사장 장영철)는 11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창립4주년 기념 및 초대이사장 취임식(사진)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설송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함께 했다.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영철 이사장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받들어 인재양성에 열성을 다해 범국민적 장학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종

中 화성사와 자매결연

총무원(원장 성순경)은 7월3일 중국 구화산 화성사에서 화성사 친선교류 및 자매결연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중국식으로 법요식과 수계의식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 앞서 총무원은 1일 서울을 떠나 중국 황산과 구화산, 상해지역을 성지순례한다. 귀국은 7월5일. (02)395-2571

일붕선교종

서경보스님 추모법회

지난 96년 입적한 초대 종정 일붕 서경보스님의 3주기 추모법회가 22일 오후 2시 경남 의령 일붕선교종 총본산 일붕사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한마음선원 전화번호 변경=안양 한마음선원 종무소가 새 건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전화가 (0343)470-3100번으로 변경됐다. 팩스는 (0343)470-3116.

▲화엄동산 이전=목동 여성희망의집 화엄동산이 최근 서울 양천구 목3동 713-17로 이사했다. (02)642-1363

▲능인복지관 무료탁아방 개소=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탁아방을 연다.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02)571-2988

강좌

▲금하선원 불교교양대학 개강=금하선원이 24일부터 불교교양대학 초급반, 중급반 강좌를 시작한다. 2개월과정으로 초급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중급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지도한다. (02)823-9135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신도림복지관은 7월 11일에 시행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2,3급 대비반을 개강한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지도한다. (02)631-9792

▲염불봉사·복지시설 위탁교육=불교복지보건대학은 전문화교육의 일환으로 7월10일부터 염불봉사, 자원봉사, 복지시설,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참가접수는 25일까지. (051)866-7277

▲〈아함경〉공부=우리는선우전북지부는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전북불교회관 3층 선방에서 〈아함경〉공부를 실시한다. (0652)272-8892

▲장애인 자기표현=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3일 오전 10시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기표현과 스트레스관리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비 무료 (02)989-4215

▲불교 기초교리=서울불교청년회는 3개월 과정의 기초교육원을 개설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만해교육원에서 불교기초교리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02)730-9108

▲홈패션교실=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홈패션교실 강좌를 실시한다. 3개월 과정이다. (02)631-9792

▲홈패션·수족칠·컴퓨터 등=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일식조리사 실기, 주부컴퓨터교실, 수족칠교실, 모시한복반, 홈패션 등의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51)628-6737

▲미용사 자격증반·무료한글교실=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미용사자격증반, 무료한글교실 등을 개설했다. (051)265-9471

▲불교입문자 교육=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회에 걸쳐 불교입문자 교육을 실시한다. (051)466-4080

▲경전연구반=정혜사는 매월 첫째, 세째 월요일 오후 7시 30분 6개월 과정의 경전연구반을 운영한다. (02)903-8019

모집

▲맑고향기롭게 경리간사=맑고향기롭게에서 경리간사를 구한다. 25세~30세 미만의 여성불자로 자원봉사활동과 자연보호활동에 관심있는 불자면 된다. (02)741-4697

▲극빈장애인 결연후원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내 극빈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줄 정기 결연후원자를 모집한다. 매월 1구좌 5천원 이상을 지원하면 된다. (02)989-4215

▲소쩍새마을 후원품=소쩍새마을은 여름철 생활용품과 의약품 후원을 기다린다. (0371)762-9870

화촉

▲본사 이창호 편집위원의 장녀 이현주양이 27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에서 김형창군과 화촉을 밝힌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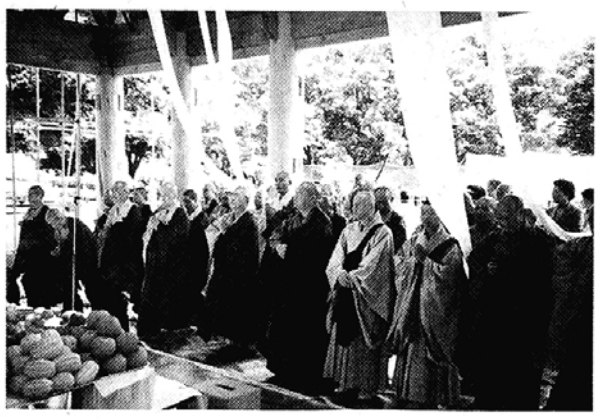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용성스님 탄생지가 성역화 된다. 장수군과 대각회가 2백60억원을 투입하는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11일 죽림정사 대웅전 상량식이 봉행됐다.

용성스님 생가 성역화

11일 전북장수 죽림정사 대웅전 상량
용성기념관·선농학습장·수련원 건립
3·1운동 계승 국민 정신교육장 활용

용성스님 탄생지인 전북 장수에 사찰 및 용성기념관 청소년수련원 선농교육단지 등 성역화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전북 장수군(군수 김상두)과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명옥) 대각회(이사장 도문)는 11일 용성스님 생가지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죽림정사 대웅전 상량식을 갖고 민·불자·과인·하나되여 대담원 추주모임 채 종고루 생가 주차장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생가지 주변에도 1만평 부지에 용성스님 석상과 기념관, 전시관, 추념광장, 33인벽화가 2002년까지 건립된다. 특히 용성스님이 실천하였던 선농일치사상을 오늘에 다시 잇기위해 선농교육단지를 만들고 선농학습장, 초화원, 암석원, 등을 2003년까지 완공한다.

장수군 김상두군수는 "용성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부도탑등이 있는 합천 해인사와 관계를 전북도와 장수군, 대각회가 국비와 불사금, 후원금 2백60여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된다.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일대 4천여평에 조성되는 용성스님 생가지 [illegible] 생가 주차장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생가지 주변에도 1만평 부지에 용성스님 석상과 기념관, 전시관, 추념광장, 33인벽화가 2002년까지 건립된다. 특히 용성스님이 실천하였던 선농일치사상을 오늘에 다시 잇기위해 선농교육단지를 만들고 선농학습장, 초화원, 암석원, [illegible] 등을 2003년까지 완공한다.

장수군 김상두군수는 "용성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스님의 부도탑등이 있는 합천 해인사와 관계를 생각하여 합천군과 29일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에 2천년도 '이달의 문화인물'로 추천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대각회 이사장 도문스님은 "우리 모두 다함께 3·1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용성스님의 10관계관심법을 받들어 용성스님 탄생성지를 성역화하고 전국청소년의 교육장과 전국민의 정신교육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성스님 탄생지 성역화사업은 10여년간 추진돼 왔으며 이번 [illegible] 천여명이 3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기탁하기도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파주 통일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열리는 금강경 법회. 금강경을 독송하며 업장소멸과 국토통일을 발원한다.

독경소리 울리는 통일촌

[illegible]

16일 저녁 8시 통일대교를 건너 관문점으로부터 9.5km 떨어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에서는 임진강 건너 북녘땅까지 닿을 듯 우렁찬 〈금강경〉독경소리가 울려퍼졌다. 이곳 통일촌의 조숙자·하수봉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면 열리는 '〈금강경〉법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 법회는 지난해 봄 바른법연구원에서 펴낸 〈성자와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을 우연히 접한 조씨가 통일촌내에 있는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위해 만든 모임.

통일촌은 지난 73년 정부가 민통선내에 조성한 입주영농마을로 현재 100가구 450여명의 주민이 벼농사, 콩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현재 초창기부터 들어온 교회를 제외하고, 아무런 종교시설이 없다. 특히 조씨 부부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여러번 마을에 법당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바른법연구원 정재영연구원((주)동보 상무)의 지도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마을주민과 지난주에 이어서 두번째로 참석한 1사단 안보통제실장 양병서소령, 〈금강경〉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1사단 참모장의 부인 서정옥씨 등 2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미륵존여래불 염송과 〈금강경〉 독송, 마음닦는법 염송, 호국영령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 하는 〈금강경〉탐구 등으로 이뤄졌다.

정재영연구원은 "〈금강경〉공부가 무르익어, 회원 각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가정법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통일촌의 모든 주민과 휴전선 인근에 근무하는 국군장병, 6·25전쟁으로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금강경〉독경소리를 듣고, 정법을 만나 업장을 소멸하고 건강하게 국토방위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진각종 청소년법인 설립

창종52돌 맞아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등 추진



◇회당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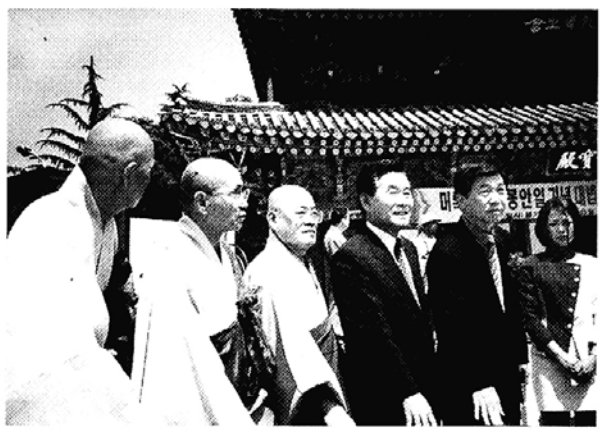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창종 52주년을 맞아 청소년사단법인 설립등 포교·복지사업 강화와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성지 울릉도 금강원의 성역화 사업을 천명했다. 실무팀이 구성된 청소년사단법인은 6월25일 열리는 종의회에서 사단법인 정관을 통과시키고 하반기내에 정식으로 법인을 창립해 21세기를 지향하는 청소년 포교의 새 전기를 마련한다.

한편 진각종은 성초 통리원장, 지광 회당학원 이사장, 일정 교육원장, 회정 총무부장 등 종단 간부스승들과 종의회 의원, 지방 각 교구청장 등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5일 울릉도 금강원에서 종조전 참배 및 창종 52주년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초통리원장은 "창종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북지종단구현에 역점을 두어 밀교문화 진각문화를 발굴 보급함으로서 '문화종단' 창출에 앞장서겠으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를 종조정신으로 새롭게 하기위해 올 가을부터 종조정신의 구심점인 탄생지 성역화 작업에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가 진각종에 보내온 창교절 축하메시지가 낭독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 6시 울릉도 마리나호텔에서 '진각종과 울릉군민과의 만남의 밤' 행사가 열렸다. 종단과 군의 친선을 도모한 이자리에서 정종태 울릉군수는 금강원이 위치한 사동항과 1만 7천여평에 이르는 사동·간령 관광지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며 성초통리원장은 독도수비대에게 보내는 위문품을 전달했다.

울릉도=이경숙 기자



◇도영·철주·고산 스님과 이의근·유종근 지사(왼쪽부터)가 경북과 전북의 상징기를 공개하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동서화합기원 합수·합토

금산사 1400돌 기념…용화대종 타종

영·호남 7천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전에 동서화합을 염원했다. 금산사(주지 도영)는 14일 개산 1400주년을 맞아 미륵불 최초 봉안일 기념 국운융창 영호남 화합 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스님, 금산사 회주 월주스님,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 등과 고건 서울시장, 유종근 전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문희갑 대구시장 등 영남과 호남의 지도자스님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호남 화합을 다지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이완시키는 영호남의 뿌리깊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호남 상호교류와 이해증진의 기회를 확대하자"등의 4개항을 결의했다.

이어 유종근 전북지사와 이의근 경북지사는 금산사대법회의 공덕으로 동서와 겨레를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어 국민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히고 경북과 전북의 물과 흙을 섞는 합수와 합토의식과 기념식수도 했다.

이에앞서 오전에는 진표율사가 금산사 금당을 짓고 미륵장육상을 봉안한 것을 기리는 미륵불 최초 봉안일 기념법회가 열려 새로 조성한 무게 2천3백관의 용화대종을 타종했다.

금산사=김원우 기자

은해사 여름수련대회

은해사(주지 법타)가 '아름다운 자연과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7월17일~8월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여름수련대회를 연다. 7월 15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0563)335-3318

"화쟁사상으로 통일을"

제석사 원효성사 다례재

제1382주기 원효성사 탄생 다례재가 17일 원효스님이 탄생한 곳으로 알려진 경산 제석사(주지 태경)에서 열렸다.

이날 다례재에서 태경스님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이야말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수 있는 대승정신"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원효스님이 탄생한 음력 5월 4일 봉행되는 원효성사 다례재는 원융회통의 사상으로 무애가를 부르며 민중불교의 불을 지핀 원효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열려왔다.

이날행사에는 법타(은해사주지) 돈관(대구불방 총괄국장) 혜해(거조암주지) 최희옥경산시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해동용궁사 캐릭터 '도리' 특허 신청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주지 정암)가 사찰 캐릭터 '도리'를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동용궁사는 동해에 인접한 사찰의 특성을 살리는 용을 소재로한 캐릭터를 제작, 티셔츠 등을 선보여 신도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목탁을 들고 있는 용을 귀엽게 처리한 '도리'는 국내 사찰로는 최초로 시도된 사찰 캐릭터.

이밖에도 해동용궁사는 가수 최유나가 부른 '용궁사의 밤' '남아 있는 용궁사의 추억' 등이 담겨있는 테잎과 사찰 홍보용 비디오 테잎, 철로 된 손거울등을 제작 적극적인 사찰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특히 사찰 홍보용 비디오는 불교 영상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지 정암스님은 "보다 친근한 불교, 일반에게 가까운 불교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이러한 시도가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무의탁노인 2천명 초청

범어사 지장암 경로잔치

부산 범어사·지장암(주지 묵화)은 11일 무의탁노인 2천여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벌였다.

'자비의 숨결-노인과 불교복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가수 김상국씨의 진행으로 가수들의 노래와 춤공연을 보고 직접 노래자랑에 참가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워지드 김희균 함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불자님! 운전연수를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듯이 AMT로 학습을 하시면 60일만에 영어능통자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내 최초로 개발된 특수 기능성 TAPE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영어 문장 자동 암기 테잎 AMT AUTO MEMORY TAPE 2-3년의 시간과 노력을 60일만에
앗! 이럴수가! … 탄생과 환호! 과연 굉장하더군요! 영어학습에 관한 한 이제 검증은 끝났습니다.
새천년! 21C 지식사회 (Knowledge Society)는 AMT학습자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Don't be far from the information)
영어교육컨설턴트 김 동 식
초등3년에서 직장인까지
AMT는 알파벳도 모르는 초등학교 3년부터 TOEIC점수 800~900점을 얻고도 영어로 말한마디 작문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최단시간내에 영어회화를 정복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상의 영어회화 교재입니다.
■ AMT 60일이면..
- 도대체 어느정도 학습효과인가?
●일반 TAPE 학습의 10배 이상 효과
●일반학원 수강의 5배 이상의 효과
●해외어학 연수의 3배 이상의 효과
●2-3년의 노력과 시간을 60일에
■ AMT의 특수기능
●LAB실과 CD-ROM의 기능
●어학전용 학습기보다 우수
●문장 자동 기억기능
●오직 S/W 1회면 OK!
●TOEIC, G-TELP, 수능 L/C 완전해결
●의지력 강화 프로그램
AMT가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용기를 내서 AMT로 전화 주세요.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100%리콜 Language Bank 랭귀지뱅크 F.T.C 교재 사업단
전국불자고객관리부 051)861-7705 (척척 영어)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석굴암식 돔형 황토토굴과 피라미드의 기가생동하는 신비한효능
황토 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범서 다라니 사경회원 모집(1차)
◈사경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불정존승 대다라니
◈사경기간
7월20일 ~ 10월17일(90일간)
◈기도회향
10월17일 (음, 9월9일)
◈모집기간(1차모집)
7월 20일까지
◈1차 동창금
50,000원(분납가능)
국민은행 570-01-0054-725 정토선원
사경방법
지도법사 도성스님이 직접 쓰신 체본을 가정으로 우편 발송 합니다.
앞으로 사경기도 할 다라니
수구즉득 다라니
불정능엄 대다라니
관세음보살 42수진언
전국 범서 다라니 사경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5-5번지
☎(062)528~0108, 011-607-7504
범서 다라니 사경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선원
범서 다라니 사경 회원모집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와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신묵가협회 조대 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용린佛字체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어린이·청소년 불교캠프 '다채'

'화합의 힘' 배운다

사찰·단체별 프로그램 마련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방학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름캠프와 수련회가 다련돼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를 기다린다. 〈표 참조〉

참선수행에서부터, 자연탐사, 담력쌓기, 민속놀이, 물놀이 등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행체험과 활기찬 캠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현대불교신문사가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7월 22일~24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연다.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불교신행의 기본인 예불과 참선, 108배 정진은 물론, 쉽고 재미있는 불교문화공부와 용주사와 와우정사 등 사찰도 탐방한다. 또 에버랜드 놀이시설과 캐리비안베이수영장에서 놀이도 즐길 예정이며, 이집트 파라오와 장미축제도 관람한다. 참가비는 5만5천원이며, 선착순 500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진주불교회관도 7월 30일~8월 1일까지 지리산 정각사에서,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가 전국 불교어린이 여름수련캠프를 7월 22일~24일 봉선사에서, 무진법장사는 7월 23일~25일 어린이여름불교캠프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백양사, 대둔사, 신흥사, 직지사, 해인사, 통도사, 은해사 등 전국 주요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잇따라 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어린이·청소년 불교캠프

사찰·단체	내용	날짜	대상	연락처	사찰·단체	내용	날짜	대상	연락처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7/22~24	초등학생	(02)723-1776	신흥사	여름수련회	7/30~8/1	초등학생	(0392)636-7044
진주불교회관	어린이캠프	7/30~8/1	초등학생	(0591)747-0108	직지사	어린이수련회	7/20~22		(0547)436-6174
무진법장사	어린이불교캠프	7/23~25		(02)932-2333		청소년수련회	7/24~26		
선재연구모임	어린이여름절실이	8/6~8		(02)493-7769	통도사	어린이수련회	8/10~12		(0523)384-8380
	청소년물꽃문화기행	8/6~8				청소년수련회	8/6~8		
구로종합복지관	어린이캠프	7월말예정		(02)852-0525	해인사	어린이수련회	7/27~29		(0599)931-1003
파라미타	연합캠프	8/6~9	청소년	(02)723-6165		청소년수련회	7/23~26		
우리는선우	여름캠프	7/30~8/2		(02)2278-8672	은해사	어린이수련회	7/26~28		(0563)335-3318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	어린이캠프	7/22~24	초등학생	(02)725-2201		청소년수련회	7/30~8/1		
	가족캠프	8/2~4			화성 신흥사	여름불교학교	7/23~25		(0339)357-2695
백양사	여름불교캠프	7/23~25	초등학생	(0685)392-7502	길상사	중고생수련법회	7/24~27		(02)3672-5945
대둔사	어린이수련회	7/26~28	초등학생	(0634)534-5502	몰운대복지관	어린이수련대회	7/23~25		(051)725-2201
	청소년수련회	8/2~4	중고등학생		목동청소년회관	역사유적지 순례	7/19~21		(02)646-6815



◇수행환경 파괴에 직면한 울산 청룡암. 원내는 공장건립지로 사찰과 바로 인접해 있어 수행환경 피해가 예상된다.

울산 청룡암과 50m 거리 재생공장 2곳 짓는다니 소음·진동 피해 '불보듯'

신도·주민 2900명 구청에 허가취소 탄원

통도사 말사인 울산 청룡암이 기도와 수행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청룡암 50m 상부에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공장이 건립 예정이어서 신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폐아스콘 재생공장과 건축 폐기물 재생공장인 (주)한국아스콘엔지니어링과 (주)강원.

청룡암이 위치한 동대산 상단에 이 두 공장이 건립 가동되게 될 경우, 청룡암의 수행환경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바로 사찰 앞을 지나고 있어 15톤 대형 트럭의 소음과 분진 등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업체가 모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로 상수원과 농업용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청룡암 신도와 마을 주민 2천9백여명은 이미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각 관청에 접수시키고 23일에는 농협 매곡지소 앞에서 공장건립 반대 시위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를 강력하게 저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관청인 울산 북구청은 "두 업체 모두 적법하게 신고와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향후 가동시 예상되는 소음,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두 공장의 건립은 진입도로가 사찰 경내지로 관정이 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이 공장들이 공사를 강행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지 종현스님은 "사찰의 5천6백여 신도가 당장 기도와 수행의 도량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도 위협받고 있어 공장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시했다.

청룡암은 지난 14일 '청정도량 수호를 위한 백일기도'를 입제하고 매일 신도들이 모여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해당 업체와 구청을 방문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울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뉴스 & 뉴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판명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면적 15만㎡이상인 공사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오종욱 기자

24일 조계종 불교복지 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24일 오후 2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계 사회복지 전산망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1차 불교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불교계 사회복지관과 불교사회복지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논제로는 교계 복지시설이 공유하는 통일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제시 및 불교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의 현실성에 대한 토론 등이다. 한명우 기자

선학원 선우승가회 창립

선학원 부산·경남지역 모임인 선우승가회가 5월 25일 창립됐다.

창립대회에는 진제스님(금모선원 조실)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도봉스님(부산 천불선원장), 총무 송월스님(부산 소원사 주지, 051-645-1547)이 선출됐다. 선우승가회는 이후 재단 행정지원과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월파·법타스님등 재심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25일 제17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 해 종단사태와 관련돼 해종특위에 의해 제소된 월파(통도사 주지) 법타(은해사 주지) 혜인(약천사 회주) 기연스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심판부에서는 또 성보도난의 건 등으로 1심에서 제적 등의 징계를 받은 현고(전 송광사 주지) 법일(전 기림사 주지) 진현스님(전 보경사 주지) 등에 대한 징계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청교련 아산지부 자원봉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아산지부(지부장 종인스님)는 19일~20일 노인복지시설 정애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날 행사에는 아산지역내 청소년 15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19일 오전에는 봉사활동의 의의, 집단별 유형, 봉사활동기 체험 등을 주제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했다. 이은자 기자

PC통신 불교동호회들 여름불심다지기

정진법회·금강경 100독운동 등 전개

PC통신 각 불교동호회들이 불자 네티즌들의 여름 불심다지기에 한창이다. 유니텔,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신비로, 넷츠고 등 6개 PC통신 불교동호회가 지난 주말(19일)부터 정진법회 및 수계법회, 금강경 100독 운동, 불교문화체험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불자 네티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샵 정경자)는 7월10일, 11일 양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정진법회 및 수계식을 갖는다. 또 지난 2월부터 벌여오고 있는 '금강경 100독 캠페인'을 확대운영해 독경삼매로 뜨거운 여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님나라는 통신불자들을 위한 〈법요집〉도 출간해 선보이고 있다.

나우누리불교동호회(대표시샵 김진현)도 7월31일~8월1일 1박2일 동안 천안(장소미정)에서 수련회를 갖고 회원들의 바른 신행을 이끌 계획이다.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정지문)는 지난 18일 강화 전등사 인천포교당 법왕사에서 인천부천모임 정진법회를 가진데 이어 8월6일~8일 2박3일간 충청모임(지역장 임경빈) 정진법회 및 수계법회를 열어 통신불자들과 함께 한다. '체험, 출가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진법회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체 묵언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하이텔 서울경기모임(지역장 최귀선)도 27일 오전 10시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있다.

이밖에 천리안불교동호회 대구모임은 19일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정진법회를 갖고 팔공산 갓바위 및 영천 거조암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넷츠고불교동호회도 같은날 서울경기모임 주최로 서초중학교 운동장에서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신비로도 20일 실상사, 천은사 불교문화체험 기행을 실시해 불자네티즌들의 불심을 다졌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동국대 발전기금 4백억원 돌파

모금 5년여만에…불교종합병원 10월경 착공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으로 불교종합병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한 동국발전기금이 모금시작 5년여만에 400억원을 돌파했다.

조성된 기금은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다음으로 첨단테크노파크단지가 될 제3캠퍼스 건설과 교육시설 확충, 연구 및 실습기자재 구입, 도서관 장서구입, 국가고시 육성 후원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 불교종합병원 착공식은 설계가 완성되는대로 10월14일경 거행할 방침이다.

불교종합병원과 제3캠퍼스 건설비용으로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동국대는 1차적으로 불교종합병원이 완공되는 2003년까지 1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금활동을 추진해온 한시적 기구인 100주년사업본부를 상설기구인 대외협력처로 명칭을 바꾸고 기금조성의 활성화도모와 홍보기능을 추가해 학교행정의 정식기구로 개편했다.

동국대는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국 주요사찰 순회법회, 자비의 벽돌쌓기, 대각전 만불봉안운동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군법당 시주금재판대책위' 만든다

교계 21개 단체 합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등 승가단체와 법조불교인회 불교언론인회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총동문회 불교기자협회 예비역군법사단 등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소속 21개 단체는 일명 '김태복소장 사건'과 관련 '군법당 건립 시주금 재판에 대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예비역군법사단과 종교편향대책위 참여단체 실무자들은 15일 3차 실무 준비모임을 갖고 '군법당 건립 시주금 재판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교단체 대표자회의를 23일 오후 2시 종단협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확대된 대책위 발족, 공동변호인단 구성 준비위 구성, 재판공식방청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종교편향대책위 손상훈 국장은 "불교계는 김태복 소장관련 1심 선고공판의 유죄사실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앞으로 유관단체와의 논의를 확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총지종 복지사업 나섰다

내달 재단 설립…사회시설 위탁·지원 활동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이 사회복재재단을 설립,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총지종은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로써 불교계 종단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조계종과 진각종에 이어 총지종이 세번째다. 복지법인 대표이사에는 효강 법장원장이 선임됐다. 〈관련 인터뷰 4면〉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의 복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위탁운영, 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각종 지원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인 발족식은 7월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종단 본산인 서울 총지사에 설치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 · 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 · 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둡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술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빚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참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 717-2121 팩스 :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범우문고② 값 2,000원

혼탁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정화수 같은 책

無所有

무소유



다시, 그 청청한 울림
일상에 가려져 있는 명징한 삶의 진리가
한 구도자의 목소리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찾아온다



법정(法頂)스님 /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을 빌려 홀로 땔감을 구하고 밥을 입구며,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고 계신 스님은 30년이 넘는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시아문

이 달 의 책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1960년 북한 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번역 출간한 『삼국유사』를 대본으로 하여 오역을 바로잡고 사진을 곁들인 책이다. 본문의 모든 사진이 컬러이고 자상한 주가 달려 있어, 한글 해독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또 필요한 까닭은, 역사서이면서도 민족문학의 보고이기도 한 삼국유사의 특징에도 기인하지만, 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일연 지음
최상호 옮김 · 김문구 사진
A5신 364쪽
값 20,000원
까치



화엄의 길, 생명의 길

진정 '사람의 길'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은 도법 스님의 글 모음.

스님이 보여 주는 사람의 길은 곧 '화엄의 길'이자 생명의 길'일 터. 그래서 스님은 귀농학교를 차려 '생명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정녕 불교란 어떤 종교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준열한 자기 비판이다. 또한 그 정신은 마땅히 대중 모두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도법 스님 지음
A5신 328쪽
값 8,000원
천우프린



화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불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면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헤드(1885~1947)의 유기체 철학을 불교 사상과 이론으로 설명한 책. 저술 목적이 화이트 헤드 철학 연구에 있는 건 아닌 만큼, 유기체 철학과 불교의 비교 고찰이라고 보는 것이 이 책의 정확한 성격이겠다.

'우주 전체는 서로 어울려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화이트 헤드의 우주론이, 불교가 펼쳐 보이는 진리의 지경 어디에서 만나는가를 밝히고 있다.

고옥 스님 지음
A5신 384쪽
값 15,000원
시간과 공간사



똥 속의 과일 줍기
— 석지명 스님의 세상 읽기

'삼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출가 수행자 본연의 자세와 딱 맞아떨어지는 '글쓰기'를 하는 지명 스님이, 그간 여러 매체에 써 온 글들을 가려 뽑아 엮은 책이다.

지명 스님의 글쓰기는 한 마디로 세간을 향한 '법공양'이다. 어려운 얘기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하면서도 신변잡기에 머무르지 않고 불법의 정수로 파고드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똥(사바)이 곧 과일(극락)임을 일러주고 있다.

석지명 스님 지음
A5신 264쪽
값 7,500원
여림



승려와 철학자

승려인 아들과 철학자인 아버지의 대화. 이는 곧 동양과 서양의 대화이기도 하며 불교와 과학의 대화이기도 하다.

카트만두를 굽어보는 의탄 산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인류 역사가 안고온 여러 의문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불교의 정체성(종교냐 철학이냐), 종교인과 속인의 구도 방식, 진보의 진정한 의미 따위에 대해….

삶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아주 독특하고도 흥미있는 대화록이다.

장 프랑수아 르벨 · matthieu 리카르 공저/ 이용철 옮김
A5신 양장 302쪽
값 12,000원
생각의나무



다시 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

대장경이 아니라 '대장경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만든 책. 대장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릇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책인 셈인데, 그게 무슨 한 권의 책으로 묶을 만한 얘깃거리냐고 고개를 갸우뚱할 법도 하지만 그건 오해다. 마치 공룡의 발자국으로 수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밝혀 내듯이, 대장경판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등을 밝히고 있다.

박상진 지음
A5신 288쪽
값 7,500원
(재)운주사문화재단



만해 한용운 한시선

불교계의 큰 별이자 3·1운동의 거장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한시 74편을 미당 서정주가 옮기고 각 시편마다 친절한 주석까지 단 책이다.

만해 스님의 빼어난 시인으로서의 면모와 지사로서의 인품에 그윽히 잠기게 한다. 우리말로 옮긴 시 한 편만 보자.

간 겨울의 꽃 같던 눈 / 을 봄의 눈 같은 꽃 / 눈도 꽃도 다 하염없는 뿐인 걸 / 어찌자고 가슴아 미어지려 하느냐. ('벗꽃을 보며 — 옥중에서', 122쪽)

미당 서정주 옮김
푸 반양 154쪽
값 6,000원
민음사



산하여 나의 산하여
— 감성 시인 고은의 북한 순례기

'백두산'과 '만인보'의 시인 고은의 눈과 가슴을 통해 들어온 한반도 위쪽의 풍광. 시인 특유의 감성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이 만나 이룬 북한 순례기. 그리고 그것은 동강난 국토에 맺힌 한을 달래는 해원(解冤)의 노래이자 통일의 염원(念願)이기도 하다. 또한 기행문이 갖춰야 할 기록성과 현장성에도 충실하므로 감동과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고은 지음
A5신 반양 332쪽
값 8,000원
동광보성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

도스토예프스키에서 아프리카 사막의 부시맨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한몸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삶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노래한 자연에 대한 장언 시집.

자신이 시인이기도 한 역은이는, 이름 모를 이에 의해 지어진 산사의 곳말에 적힌 깨달음의 시를 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시라는 장르가 주는 낯설에 대한 부담 없이 곧장 시가 전하는 메시지에 다가가게 한다. 짧은 시 한 편만 보자.

대지는 / 꽃을 통해 / 웃는다. ('꽃' 전문, 라빌 카슨, 18쪽)

류시화 엮음
B6 128쪽
값 5,000원
나무심는사람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무비 스님 풀이

예불문과 반야심경



무비 스님 지음 / A5신 264쪽
값 6,000원 / 불일출판사

구름이 무거워지는 계절이다. 앞으로 두어 달 간은 먹장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은총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켜켜이 쌓인 먼지에 질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름은 정화의 계절이다. 모든 먼지를 날려보내고 씻어내린다.

절[寺]은 절[拜]하는 곳이라는 말이 있다. 절하는 행위야말로 불교 신앙의 근본임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를 두고 '우상 숭배'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절[拜]은, 부처님에 대한 경배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약속(誓約)이요,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懺悔)이며, 자신을 끌없이 낮추는(下心)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린다. 예불의 기본이 절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을 좀더 엄숙한 의식으로 다듬은 것이 아침 저녁이나 사시에 올리는 예불이다.

불교 신앙의 골격이라 할 신(信)·해(解)·행(行)·증(證)의 과정을, 적절한 비유와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불 의식의 기본은 예불문의 봉독이다. 가락 또한 유장하여 뜻을 새기지 않아도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 또한 예불문은 삼보에 대한 단순한 찬탄이 아니다. 불법의 높고도 깊은 뜻을 어떻게 받들며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어떤가. 이에 대해서는 군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응축, 그것이니까.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회 의식에서는 반야심경의 봉독이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야심경과 예불문은 몸과 몸짓의 관계를 이룬다.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을 지혜를 반야심경이 담당하고, 행동이 결여된 창백한 믿음을 예불문으로 경계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최소한 예불문과 반야심경의 뜻만큼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 책 『예불문과 반야심경』이야말로 불자의 기본을 다지려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책이다. 선(禪) 교(敎)를 아울러 닦은 대강백으로,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무비 스님의 절절하고도 자상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 책은 불교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다. 불교 신앙의 골격이라 할 신(信)·해(解)·행(行)·증(證)의 과정을, 적절한 비유와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윤체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kr

출판계 뒷모습 보기

너무나 기독교적인, 하지만 너무도 반종교적인 책들

삼소회 음악회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종교간 화합의 장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에선 아직도 다른 종교를 비방 penalty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좋은 예는 개신교 출판물. 93년 11월,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이 입적한 이후 개신교 일각에서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멋대로 해석하며 집요하게 불교 흠집내기와 성철 스님 비하 작업을 해왔다. 94년 11월 (주)신앙계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성일 목사의 『성경으로 여는 세계』와 지난해 10월, 삼과 꿈에서 발행한 류병상 씨의 『왜 성철 스님은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는가』가 등이 그 예다.

류병상 씨는 머리말을 통해 '불교의 무엇이 왜 거짓말인지를 깨달아, 다시는 누구도 성철 스님처럼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안고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성철 스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졌으므로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오독(誤讀)하기도 한다.

불교의 심오한 사상과 깊이를 알지 못한 채 한 문장을 예로 들어 비방 penalty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쳐대는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참한 행위이다.

'진정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에 행하는 행동에 있다'는 말을 돼새겨, 겉으로만 화합을 주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정한 성직자의 자세가 아쉽다.

'진정 자신의 종교를 사랑한다면 남의 종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새삼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잘만 독서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禪) 수행기

로버트 버스웰 지음
김종명 옮김 / A5신 396쪽
값 10,000원 / 이끌어진

이 책의 지은이 로버트 버스웰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년 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참선 수행을 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의 체험을 통해 느낀 한국 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다.

한국 절의 제도적 구조, 절에서의 일상 생활, 수행 형태, 행자와 이판승 및 사판승들의 활동, 특히 선승들의 활동을 상세히 적고 있다.

김장 만들기, 메주 만들기, 과일 따기 등 절에서의 식생활 해결 방법에 관한 부분과 선방의 일과표, 선방 예절, 선방 규정, 여러 고행법 등 선방 생활은 물론이고, 이를 견디지 못해 절에서 떠나는 승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선승들은 실제로 매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실천적 종교 생활을 하고

한국 사찰의 전통적인 선방 생활을 통해 한국 불교의 특징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있는가를 가능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쓴 지은이는, 승려들이 하는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 불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불교가 경전의 권위뿐 아니라 선 그 자체의 가치도 부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거부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등 서양에서의 선불교에 대한 기존 인식을 지은이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선명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승가 생활을 다룬 책이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동양학 관련 학자들이나 일반 종교 생활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각 스님 편집 윤석준 옮김
A5신 396쪽/ 값 7,000원/ 물병자리

숭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제멋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호해서 만든 앎을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인생에 혼란을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책에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가 담긴 질문 편지와 그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들이 담긴 답신이 실려 있다.

이 책을 말한다

『오직 모를 뿐』
외국 수행자들 사이에서 선수행 교과서로 통하는 책.

김종근 기자

육체가 병이 들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토로한다.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아도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한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을 받고 치료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육체적 병보다 마음의 병, 즉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육체적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마음의 병으로 정신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직 모를 뿐』은 인생, 일, 가족, 인간관계, 출가 수행 등 정신적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적은 내용들을 모은 책이다. 한 마디로 정신 치료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인 셈이다. 화계사 국제선원 현각 스님이 이 책을 '침술과 같은 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훌륭한 의학서처럼 이 책에는 환자들이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과 불편함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들이 실려 있다.

이 서한집은 훌륭한 선사들의 가르침만을 따로 떼어 해석한 고전적인 책들과는 달리, 각계각층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가 담긴 질문 편지와 그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들이 담긴 답신을 담은 대중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숭산 스님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프로비던스 선원에서는 스님에게 온 모든 편지는 발신자가 공개를 꺼리지 않는 한 답신과 함께 세계 각처의 선원에 정기적으로 배부된다. 또 그 편지 내용을 읽는 것이 조석 수련의 일과다. 그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수록한 이 서한집은 외국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선수행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숭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제멋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호해서 만든 앎을 경계할 것을 강조한다. 인생에 혼란을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안다'는 생각 때문이다. 숭산 스님은 안다는 생각을 초월한 마음, 부처도, 나도,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무심, 본원심으로 돌아가야만이 궁극적으로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대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 서한집은 불교나 동양 정신에 낯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불교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나 갓 수련을 시작한 불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서 역할을 해 준다. 내용이 선수행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무관한 일반인이 읽어도 더없이 좋은 책이다.

숭산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은 의사, 학자에서부터 재소자, 출가를 마음먹고 있는 수행자, 이미 출가외 같이 들어선 납자,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 그만큼 그들이 보로하는 문제 또한 다양하다.

숭산 스님은 이 서한집에서 한결같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찌르는 해결책을 선불교적으로, 그러나 알기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욕망을 억제하고, 청정한 수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1. 금강산 유람기 — 김동주 편역/ A5신 390쪽/ 전통문화연구회/ 값 10,000원
2. 금강산으로 가는 울산바위 — 서문성 엮음/ A5신 256쪽/ 도서출판 창/ 값 6,600원
3.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 — 최창조 글, 김형수 사진/ A5신 236쪽/ 중앙 M&B/ 값 8,000원
4.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 남효온 외 저, 김용곤 외 역/ A5신 304쪽/ 해안/ 값 10,000원
5. 금강산 — 유홍준 엮음/ A5신 344쪽/ 학고재/ 값 13,000원
6. 나는 지금 금강산으로 간다 — 김영재, 변경섭, 양승봉 지음/ B6 배판 234쪽/ 김영사/ 값 11,900원
7. 북한의 지리 여행 — 윤웅 지음/ A5신 252쪽/ 문예산책/ 값 7,500원
8. 북한 불교 답사기 — 정태혁, 신법타 지음/ A5신 326쪽/ 민족사/ 값 5,500원
9.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 — 임덕순 지음/ A5신 290쪽/ 집문당/ 값 7,000원
10. 금강산 이야기 — A5신 192쪽/ 문원북/ 값 7,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우송안내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5,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오시는 길
